

# 저널리즘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언론인과 저널리즘 교육자를 위한 핸드북

노지마 무라토바, 알톤 그리즐, 딜푸자 미르자흐메도바 지음  
임영호 옮김

# 저널리즘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언론인과 저널리즘 교육자를 위한 핸드북

## 원제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n Journalism:  
a Handbook for Journalists and Journalism Educators

2019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 및 타슈켄트 사무소 발간

© N. Muratova, A. Grizzle, D. Mirzakhmedova, 2019

© Baktria press, 2019

© UNESCO, 2019

이 책에 사용된 모든 명칭과 자료는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이나 지역 당국의 법적 지위, 또는 국경이나 경계의 확정 등에 관한 유네스코의 입장을 담고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이 책에 표현된 저자들의 생각과 의견이 유네스코의 공식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 유네스코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 자:** 노지마 무라토바, 알톤 그리즐, 딜푸자 미르자흐메도바

**편 집:** 알톤 그리즐

**디자인:** 안드레이 콜마토프

**연구책임자:** 산자르베크 알라야로프

**보조연구원:** 바르기다 무민조노바

## **감수진:**

### **올루니페시 수라지 박사**

나이지리아 라고스대학교 매스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유네스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문화 간 대화 대학 협의회(MILID)  
나이지리아 지부 조정관

### **토마스 두란-베세라 박사**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 박사  
유네스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문화 간 대화 대학 협의회(MILID) 준회원  
콜롬비아 CUN대학교 국립연구소 소장

### **람손 R. 투아손**

아시아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연구소(AIJC) 소장  
아시아 미디어·정보커뮤니케이션 센터(AMIC, 필리핀 마닐라) 사무총장

### **마하 M. O. 바쉬리 박사**

아랍에미리트대학교(아랍에미리트 알 아인) 인문사회과학대학  
미디어·창의산업학과 커뮤니케이션 전공 부교수

### **마커스 리닝**

영국 윈체스터대학교 디지털 미디어교육 전공 교수

### **리사 재니클 힌클리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 교수

### **아크바르 누르마토프 박사**

우즈베키스탄 저널리즘·매스커뮤니케이션대학교 인쇄매체·출판학과 학장

### **베네라 카유모바**

전자저널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어> 과학·문학 담당 편집인

# 목 차

## 머리글

비판적이고 수준 높은 저널리즘을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 .....	6
---	---

## 서론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저널리즘에 관한 유네스코 안내서의 특징 .....	9
--	---

## 제1부. 미디어와 기타 정보 공급자의 시선으로 본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

1.1.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기본 개념 .....	16
1.2.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 .....	22
1.3. 유네스코가 제시한 MIL의 다섯 가지 법칙 .....	24
1.4. 미디어 대응을 위한 MIL에서 MIL 개발 동반자로서의 미디어로 .....	25
1.5. MIL 실습: 연습 문제와 사례 .....	29

4

## 제2부. 저널리즘 교육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

2.1. 저널리즘 학습자와 교육자를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 형성 .....	34
2.2. 검열과 보이콧을 MIL로 무력화하기: 시민의 비판적 자주성 .....	41
2.3.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를 위한 미디어 메시지 모니터링과 조율 .....	43
2.4. MIL 활성화를 통한 미디어 종사자와 정보 분야 및 도서관 종사자 간의 연계 구축 .....	45
2.5. 비전통적인 정보원 다루기 .....	49
2.6. 젠더 시각에서 본 MIL: 성평등 촉진 도구로서의 MIL .....	54
2.7. 공개 데이터 시대의 정보 수집 .....	61
2.8. 정보의 시각화: 저널리즘의 새로운 특징 .....	63

<b>제3부. 저널리즘 실무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b> .....	<b>69</b>
3.1. 저널리즘에서 왜 MIL이 필요한가? MIL을 통한 미디어 신뢰 구축 .....	70
3.2. MIL 관련 미디어 협회, NGO, 규제 기관 .....	77
3.3. MIL과 언론인의 직업 윤리 .....	83
3.4. MIL 개발에 관한 보도: 도구와 기법 .....	85
3.5. 미디어 내부용 MIL 정책 개발과 실행 .....	90
3.6. 온라인 인권, 시민 교육 도구로서의 MIL과 저널리즘 .....	93
3.7. 미디어 콘텐츠 창작: 수용자와의 소통을 위한 MIL의 목적, 방법, 촉진책 .....	95
3.8. MIL 실습: 자체 평가 연습 .....	98
<b>제4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도구 모음</b> .....	<b>103</b>
4.1. 체크리스트 #1: MIL 배양법 .....	105
4.2. 체크리스트 #2: 언론인의 보도에 MIL을 반영하는 법 .....	106
4.3. 체크리스트 #3: 정보원 다루기 .....	107
4.4. 체크리스트 #4: 텍스트 중심의 저널리즘 기사 작성법 .....	108
4.5. 체크리스트 #5: 공개 데이터 다루기 .....	109
4.6. 언론인의 MIL 노트 .....	110
용어 해설 .....	116
참고문헌 .....	120
부록 .....	122

# 머리글

## 비판적이고 수준 높은 저널리즘을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

언어가 없다면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저널리즘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이하 MIL)가 없다면 사람 간의 민주적인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날과 같이 미디어화가 심화되고 정보가 계속 증가하는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있어 저널리즘과 MIL의 융합이야말로 민주적인 공적 대화, 곧 인간의 권리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주는 최선책이다.

6

따라서 MIL과 저널리즘의 협력은 가까운 미래의 저널리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다. 이는 바로 이 핸드북의 중심 주제인 ‘MIL을 저널리즘의 실천과 학습에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의 문제이자, 오늘날 요구되는 저널리즘의 재창조에 있어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수준 높은 저널리즘과 MIL은 서로 비슷한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는 만큼 상호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 그 둘 모두 사람들의 자율성과 비판적 감각을 존중해야 하며, 진실과 정보의 검증을 추구한다. 또한 논의와 대화를 촉진하고,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추구하며, 어떤 종류의 검열도 없는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옹호한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저널리즘에서 MIL은 무시되어왔다. 아주 최근까지도 언론인의 관심사는 오로지 보도, 그리고 여론 형성을 유도하는 일이었다. 언론인은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책무라고 믿었으며, 스스로를 세상의 현실과 미디어 수용자 사이의 매개자로 여겼다. 사실상 이들은 보도의 패러다임 속에 편안히 안주해 있었다. 방송인(언론인)은 행동하는 측이고, 수용자(시민)는 그저 수동적인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디지털화에 힘입어 인간의 삶이 철저하게 미디어화 하면서 전통적으로 수동적이었던 수용자는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 많은 경우 전통적 저널리즘의 종개 없이도 미디어와 상호 작용하고 나름대로 정보를 생산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논쟁을 벌일 수도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맥락에서는 저널리즘의 역할도 변해야만 한다. 저널리즘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저널리즘의 새로운 사명은 더 이상 정보에 대한 접근을 독점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준거가 되고 진실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뢰성의 구축과 유지가 지극히 중요하다.

이제 저널리즘의 역할은 사회라는 콘서트의 위대한 솔로 연주자로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저널리즘의 새로운 사명은 방향성 없이 그저 의견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목소리를 부여해 그들이 공적 대화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적인 공적 담론을 풍성하게 만드는 논의에 관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이다. 저널리즘의 새로운 사명은 점차 더 광범위해지고 다원화되어가는 사회라는 오케스트라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며, 모든 시민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이다.

이러한 사명 가운데 그 무엇도 MIL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시민들이 공적 대화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양질의 수준 높은 저널리즘도 존재할 수 없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미디어·정보 기술과 역량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확산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좋은 토양 없이는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충분히 갖춘 시민이 없다면 좋은 저널리즘이 번창할 수 없다. 집단 구성원 일부가 침묵을 지키면 사람들 사이에 좋은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오래 전 언론인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그리고 아프리카인인 동시에 유럽인이었던 알베르 카뮈는 비판적 (혹은 수준 높은) 저널리즘의 필수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장했다. (1) 서두름이나 시간에 쫓김 없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2) 논평을 통해 때로 출처와 의도가 명백하지 않은 정보의 범위를 정확히 정해줌으로써 **뉴스의 이해에 기여한다.** (3) **“대중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보다는 그들의 비판적 정신을 지키기” 위해 정보 기법과 전략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처럼 카뮈는 아직 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투명성을 갖추고 저널리즘 과정에 대한 교육에 힘쓰는 좋은 저널리즘의 필요성을, 말하자면 수용자의 비판적인 역량, 곧 MIL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늘날 언론인과 MIL 운동 간의 협력은 이미 필연적인 과업이 됐다. 마찬가지로 대중/시민의 비판적 감각과 자율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들의 미디어 역량은 좋은 저널리즘의 고유한 속성이 됐고, 사회적 대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필수 요건이 됐다.

그렇다면 이 과업은 어떤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판단컨대 이는 이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 핵심 원칙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널리즘과 MIL 간의 협력은 필수다.

1. **진실은 모든 사람, 즉 언론인과 시민 사이에 구축된다.** 이러한 진실은 언제나 검증, 대조, 상호 이해, 비판이라는 체계적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 작업은 저널리즘과 MIL 운동이 함께 수행해야 한다.
2. **거짓과의 투쟁은 편견, 고정 관념, 폐쇄적 사고에 맞선 대결을 수반한다.** 이러한 습성을 갖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할 수도 있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일종의 은밀한 검열이 작동하는 것이다. 인습화한 사고의 흐름에 맞서고, 우리 자신의 사고에 대해 끊임



없이 비판적인 경계심을 유지하며, 세심히 분석하고 방법적 회의를 품는 데서 진실은 싹튼다. 따라서 저널리즘과 MIL은 관행을 따르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 끊임없이 해답보다는 질문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3. **윤리와 정직성, 그리고 책무성이 없다면 저널리즘의 신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뢰는 언론인과 수용자 사이의 존중, 윤리적 행위 기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정직한 직업적 실천 위에서 구축된다. 그리고 알려진 규칙이 없거나 이 규칙에 대한 집단적 경각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MIL 운동은 공유된 규칙, 책무성, 규제, 공동 규제의 활성화를 통해 수준 높은 저널리즘과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
4. **대중/시민의 참여 없이 양질의 저널리즘은 존재할 수 없다.** 오늘날의 저널리즘은 더 이상 일방향이 아니며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저널리즘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활기를 북돋을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양질의 저널리즘에서 혜택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널리즘 역시 사람들의 창의성과 공헌으로부터 혜택을 얻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의 품질은 시민 참여의 품질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디어와 정보를 상대하는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MIL과 양질의 저널리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곧 MIL이 발전해야 비로소 저널리즘도 발전할 수 있다.

## 8

5. **양질의 우수한 저널리즘과 MIL은 사람들의 권리를 평등하고 차별 없이 강화하는 수단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저널리즘과 MIL은 정치적, 경제적, 또는 어떤 다른 종류의 강압에도 저항해야 한다. 그리하면 정치적 조작이나 상업적 압력, 경제적 이익 추구도 수준 높은 저널리즘과 MIL이 공유하는 시민적 의무를 넘어설 수 없다.

이 다섯 가지 원칙에 근거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는 저널리즘의 품질과 MIL - 미디어와 정보를 대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높여려는 운동 - 사이에 굳건한 관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가 추진해오고 있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글로벌 협의체(Global Alliance for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GAPMIL),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문화 간 대화 대학 협의회(MIL and Intercultural Dialogue University Network, MILID)가 좋은 본보기로 발전해 왔듯이,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 강력한 연대가 구축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언론인과 시민의 훈련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손 안의 이 교재는 저널리즘의 품질을 개선하고 MIL 증진을 촉진하는 데 있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호세 마누엘 페레스 토르네로(Jose Manuel Perez Tornero)**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

‘양질의 저널리즘을 위한 MIL’ 유네스코 석좌

유네스코-유엔문명연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문화 간 대화 대학 협의회 회원

# 서론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저널리즘에 관한 유네스코 안내서의 특징

*디지털에 의한 미디어 지형 변화 양상이 가벼운 검색, 잡담, 채팅 정도에서 조작과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마이닝으로 옮겨감에 따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에서는 미디어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윤리적 토대에 관해 재고하여야 한다.*

디비나 프라우-메이그스(Divina Frau-Meigs)  
“지속 가능한 디지털 발전 시대의 재구조화 능력” 중에서

이 매뉴얼은 저널리즘 교육과 실무의 통합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의 기본 사항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책에서 ‘미디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두 가지 차원을 지칭한다. 첫째, 기관 즉 ‘제4부’<sup>1)</sup>로서의 뉴스 미디어로, 소속 구성원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거버넌스와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직업적 책무를 지닌다. 여기에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저널리즘 콘텐츠까지 포함된다. 둘째, ‘매체(medium)’라는 용어의 복수형인 ‘미디어’가 있다. 여기서 미디어는 방송, 케이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영화, 비디오 게임, 책, 잡지, 특정한 인터넷 사용 방식 같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지칭한다. MIL은 이 모든 양식을 이용해 참여하는 활동을 두루 포함한다. 유네스코는 주로 정보와 뉴스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오락, 대인 커뮤니케이션, 광고 같은 다른 콘텐츠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정보 공급자(information provider)’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정보 관리, 정보 제공 업체(information agency), 기억, 문화적 정보 조직과 인터넷 정보 조직을 지칭한다. 온라인이나 기타 광범위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기록 보존 센터, 정보 관리 기관, 비영리 혹은 영리 정보 공급자, 네트워크, 기업 등이 포함된다.

“MIL 개발 동반자로서의 미디어”와 같은 절은 이 매뉴얼에 새롭게 추가된 주제로서, 언론인이 대중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완성하는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저널리즘 학습자와 교육자를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 형성”에서는 지식 사회와 보편적

1) [역주] the fourth estate.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또는 언론 기관을 일컫는 말로 입법·사법·행정 등 3부의 영향력에 비할 만큼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디지털화 시대에 언론인에게 중요한 역량에 관해 다룬다. MIL의 젠더 측면이라는 주제와 성평등을 촉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 문제, 시민에게 잠재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의 메시지를 모니터하고 조정하는 일, MIL 이슈를 다루는 미디어와 규제 조직의 문제, 그리고 MIL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에도 초점을 둘 것이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미디어 내부용 MIL 정책 개발과 실행”이라는 주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 기존의 MIL 관련 문헌에서는 다루어진 적이 없다. 이 매뉴얼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하는 작업 도구들은 책 전체의 내용을 보강해준다.

모든 저널리즘 교육자, 저널리즘 학습자, 언론인, 혹은 미디어 규제나 미디어 자율 규제 분야 종사자는 직무와 연구 표준의 하나로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더 잘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수준 높고 윤리적인 저널리즘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 정부 및 미디어 파트너십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도 활성화할 수 있다.

이 안내서는 언론인, 저널리즘 교육자, 미디어 규제 종사자, 시민 사회 조직 등의 직무 수행, 그리고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활용에 있어 중요하고 실용적인 도구가 되고자 한다.

## 10

국제 사례를 보면,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와 허위정보(disinformation)를 분별하거나 허위정보에 대처하고 거짓을 식별하는 문제에 관해 언론인과 저널리즘 교육자용으로 나온 다양한 간행물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언론인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Journalists, ICJF)는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역사에 대한 짧은 안내서를 출간한 바 있다. 여기서 저자들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라는 현재의 위기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시기별로 다루고 있다. 이 책자는 멀리 클레오파트라 시대부터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sup>2)</sup>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주요 사건을 소개한다.<sup>3)</sup>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의 위기 및 그에 대한 대응이 전개됨에 따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출판물도 필요해졌다.

브라질의 팩트체크 플랫폼 아우스 파투스(Aos Fatos)가 2017년 4월 출간한 《프레드 팩트는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에 속지 않아요(Fred Fact Doesn't Fall for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라는 제목의 튜토리얼은 허위정보가 어떻게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손쉽게 전파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안내서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다루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맥락에서 해당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역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사건은 2018년 초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가 페이스북 가입자 수백만 명의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해 정치적 선전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3) Julie Posetti, Alice Matthews. A Short Guide to the History of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https://www.icjf.org>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에 관해 가장 최근에 나온 간행물 중에 2018년 유네스코가 발간한 《저널리즘, 가짜뉴스 & 허위정보: 저널리즘 교육과 훈련을 위한 핸드북(Journalism,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Handbook for Journalism Education and Training)》이 있다. 이 자료는 저널리즘의 품질과 영향력, 신뢰성을 훼손하는 새롭게 등장한 수많은 사건들, 그 중에서도 특히 거짓(untruth)의 확산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언론인이 허위정보, 잘못된 정보, 유해정보(malinformation)에 대처할 수 있는 폭넓은 방안을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도 포함되어 있다.<sup>4)</sup>

2017년 11월에 출간된 또 다른 자료 《크로스체크가 언론인과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CrossCheck on Journalists & the Audience)》도 있다. 이 자료는 소피 쇼베(Sophie Chauvet)와 엠마누엘 마르티(Emmanuel Marty)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했으며 국제 저널리즘의 실재와 미디어 사례에 초점을 두고 두 사람의 경험에 근거해 언론인이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상황을 들어 설명한다.

위에서 언급한 간행물들은 사례 중심의 접근 방식과 실용적인 콘텐츠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리고 지금 이 안내서 《저널리즘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언론인과 저널리즘 교육자를 위한 핸드북》은 앞서 소개한 간행물들을 보완해주고 있다. 이 안내서는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의미하며 시의성을 갖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한국어판 발간에 앞서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카라칼파크어<sup>5)</sup>, 영어 등 네 가지 언어로 출판된 바 있다. 내용적으로는 관련 주제의 실제적 측면을 다루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설계됐으며, 풍부한 키워드와 사례, 그리고 실습 과제 등을 제시한다.

미디어, 언론인, 저널리즘용으로 개발된 대다수의 도구와 안내서는 미디어 종사자가 어떻게 콘텐츠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둔다. 즉, 이들의 주된 관심은 미디어와 정보의 공급 측면이다. 이와 달리 이 안내서는 미디어, 플랫폼 기업 및 관련 조직들이 미디어의 주요 영역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것을 권장한다. 즉, 색다른 시각에서 수용자의 영역, 좀 더 정확히 말해 시민, 그리고 그들이 미디어 작동 방식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탐구해보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증 연구를 통해, 모든 시민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능력 중 하나로서 미디어와 기타 정보 공급자의 기능을 이해하고,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꼽았다.<sup>6)</sup> 도서관은 오랫동안 꾸준하게 정보

4)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552>. [2019.7.20. 접속]. 체릴린 아이머톤(Cherilyn Ireton)과 줄리 포세티는 여러 저자의 기고문을 모아 이 자료를 편집했다. [역주] 2020년 한국어판도 발간되었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esco.or.kr](http://www.unesco.or.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5) [역주] 카라칼파크어(Karakalpak): 우즈베키스탄 북서쪽의 소수 민족어.

6) Grizzle, A. (2018). Assessing Citizens' Responses to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es through an Online Course: An Empirical Study and Critical Comparative Analysis of Experts' Views. Doctoral Dissertation. ISBN: 9788449084775: <http://hdl.handle.net/10803/666860>. Tesis Doctorals en Xarxa (TDX). 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 Spain.

리터러시 향상에 힘써온 반면, 미디어에서는 MIL 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내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펼치지 못했다. 다만 유럽과 북미의 일부 전국 방송사에서 단기적으로 시범 사업과 프로젝트를 시행한 경우는 다수 있으며, 이 중 <BBC>의 미디어 리터러시 시리즈는 주목할 만한 사례다. 신문 독자층의 감소로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세계신문협회(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 이유 때문에 오늘날의 저널리즘에서 MIL은 특히 필요하다. (1) 뉴스 매체가 잘못된 정보/허위정보 전파의 플랫폼이 됐으며 이 때문에 뉴스 수용자의 분별력이 중요해졌다. (2) 뉴스 매체가 왜곡된 재현, 혐오 발언 및 극단주의에 악용되고 있다. (3) 많은 국가에서 뉴스 매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sup>7)</sup>

더구나 미디어와 저널리즘 교육이 모두를 위한 보편적 MIL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바, 이 핸드북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기존의 안내서들이 북미의 상황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유럽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미디어 뉴스 리터러시 안내서를 구상하고 있다. 이 책 《저널리즘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유네스코의 특성상 전 세계 회원국에서 각자의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유연성 있는 도구로서 개발되었다. 이 핸드북은 미디어뿐 아니라 저널리즘 교육은 물론, 나아가 MIL에 관련된 지속적인 내부 정책과 프로그램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도서관 간의 연계를 구축하는 일에도 초점을 맞춘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안내서는 MIL과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장려하기 위해 2008년 출간됐던 유네스코 방송사 안내서를 재편한 것이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지형이 새로워졌음을 감안할 때 기존의 안내서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안내서는 미디어 종사자, 저널리즘 교육자, 도서관과 정보 직종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이처럼 관련 조직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이 안내서가 기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 안내서는 저널리즘 교육자와 저널리즘 실무 종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와 관련해 실용적인 지침과 자원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1) 시민의 비판적 역량 강화와 참여 증진을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2) 저널리즘 교육과 뉴스 보도에 MIL을 통합시키는 방안, (3)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미디어와 시민/이용자 간에 대화를 촉진하는 방안.

이러한 접근 방식과 초점은 미디어 종사자의 수준 높고 공정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던 수많은 기존 자료의 공백을 메워준다. 이 핸드북은 유네스코가 마련한 MIL의 틀을 구성 개념으로 활용한다. 어떻게 하면 미디어 종사자와 이용자가 협력해 정보 검증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지도 살펴본다. 수많은 미디어가 디지털 공간 안에 존재하며, 물리적 공간이 디지털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디지털 공간도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본 안내서는

7) UNESCO World Trend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Development 2017/2018.

인식하고 있다. 또한 사회 안에서 더 광범위한 정보 문화의 맥락이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공간의 발전을 이끌어야 하며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핸드북 저자 중의 한 사람이자, 온라인 미디어와 디지털에 의한 미디어 혁신 문제 연구자로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보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인터넷 미디어의 확대는 새로운 복합 문화 정보 공간을 조직화하는 데 필수 요건이다. 동시에 이미 학교 교육 단계에서 형성될 필요가 있는 전 주민의 정보 문화라는 이슈는 특히 중요하다. 인터넷이 사회, 사회 집단,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짐에 따라, 전 주민 대상의 지속적인 미디어 교육이 이슈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sup>8)</sup>

이 안내서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라는 보편적 개념 및 정보의 출처와 관련된 언론인의 과업에 기반을 두고 팩트체크 문제도 다룬다. 특히 이용자들이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고, 가장 적절한 팩트체크 포맷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며 사실을 검증하고 비교하는 데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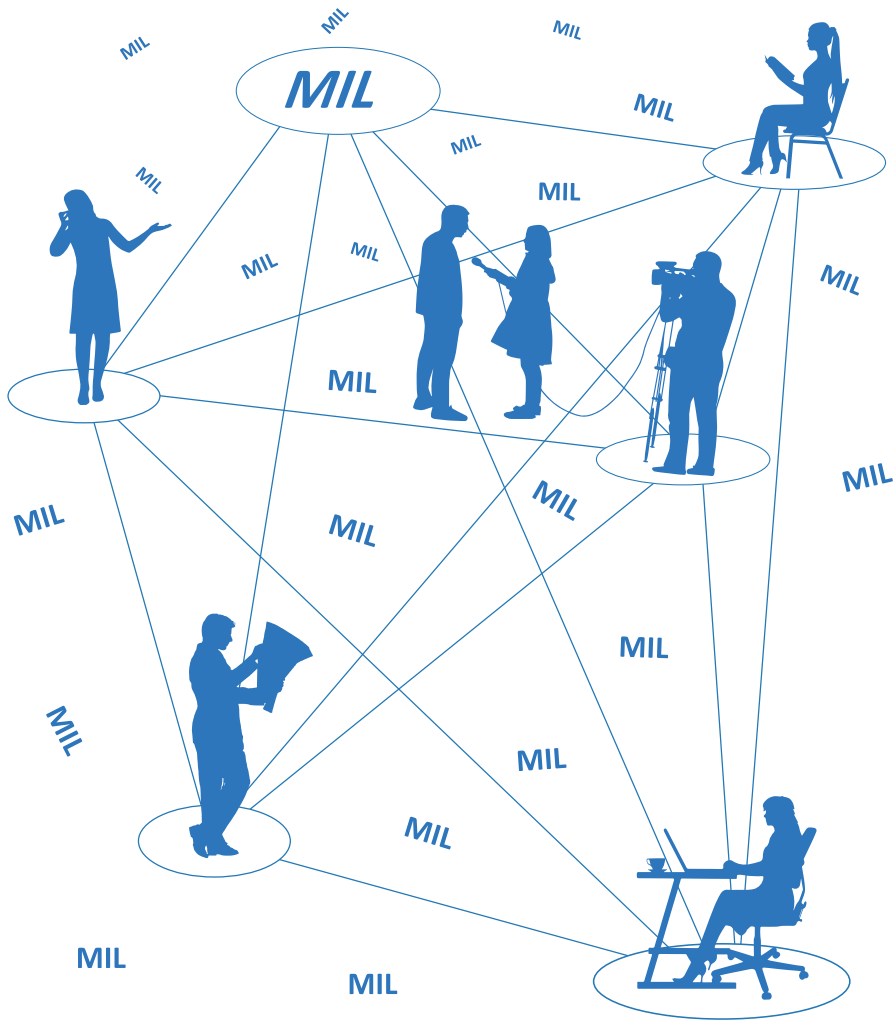
이 안내서에는 또한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보도에 도움이 될 만한 모범사례, 연습 문제, 읽을거리 및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안내서는 언론인, 저널리즘 강사 및 교사가 교육 훈련 교보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뉴스 조직, 미디어 개발 과정, 저널리즘 스쿨 등에서의 활용도 염두에 두었다. 안내서를 위해 수집된 이론 및 실무 자료는 미디어 전문가가 뉴스와 분석 자료를 작성하거나 탐사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이 책에 포함된 체크리스트와 지도는 현직 언론인, 미디어 관리자와 책임 편집인, 블로거, 사회 활동가, 미디어 종사자, 연구 기관 및 교육 기관 대표자,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개인도 활용할 수 있다.

모쪼록 본 안내서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자에게도 가치 있는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8) Julie Posetti, Alice Matthews. A Short Guide to the History of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https://www.icfj.organization/market/Abstract of Diss. NUUz, 2011. 온라인 판은 http://site.ziyonet.uz/ru/](https://www.icfj.organization/market/Abstract%20of%20Diss.%20NUUz,%202011.%20온라인%20판은%20http://site.ziyonet.uz/ru/)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제1부

# 미디어와 기타 정보 공급자의 시선으로 본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 1.1.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기본 개념

전 세계의 국가와 개발 기구들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시의적 적합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처럼 MIL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MIL이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허위정보에 대한 지속 가능하며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허위정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일반적으로는 민주주의, 건전한 거버넌스, 사회적 결속 등을 달성하는 데 위협이 되고 있다. 허위정보는 데이터 해석 및 사실에 관한 의견 충돌을 부채질하고, 영향력 있는 의견이나 경험, 사실 간의 경계를 흐리며, 심지어 믿을 수 있는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 훼손한다.<sup>1)</sup> MIL은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 참여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준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MIL의 발전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로서 MIL 수요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해 전략적이며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나 플랫폼 기업, 그 밖의 기타 정보 공급자와 함께 하는 대규모의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나 의미 있는 추진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sup>2)</sup>

16

허위정보의 사회적 도전에 대한 대응 외에도 유네스코는 문화 간 대화, 성평등, 평화, 인권, 과학/데이터 리터러시, 그리고 전반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사회적 기회 달성을 위해 MIL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3)</sup> 미디어, 플랫폼 기업 및 다른 글로벌 발전 파트너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 MIL을 한 축에 두고, 발전에 대한 접근을 학제 간 방식에서 더 나아가 범학문 간 접근 방식으로 점차 확대해 갈 태세가 되어 있다.<sup>4)</sup>

이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시대와 달리 정보, 테크놀로지, 미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 확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6번 목표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로서 굳게 확립돼 있다.<sup>5)</sup>

1) A Threat to Policymaking and Democracy. Rand Corporation. RB10002-RC (2018). [www.rand.org](http://www.rand.org). [2019.7.27. 접속].

2) Grizzle, A. (2018). Assessing Citizens' Responses to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es through an Online Course: An Empirical Study and Critical Comparative Analysis of Experts' Views. Doctoral Dissertation. ISBN: 9788449084775: <http://hdl.handle.net/10803/666860>. Tesis Doctorals en Xarxa (TDX). 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 Spain.

3) Grizzle, A. (2014). Measuring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 Singh, J., Grizzle, A., et al (2015).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er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ren, Youth and Media, NORDICOM, University of Gothenburg, Sweden.

4) White, A. (2008). To Tell You Truth. The Ethical Journalism Initiative. Brussels, Belgiu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5) World Trend in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Development, Global Report 2017/2018. UNESCO (Paris)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1065>. [2019.7.22. 접속].

세부목표 16.10은 사람들이 정보 접근과 같은 기본적 자유를 누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직업적, 국제적 기준<sup>6)</sup>에 근거하는 윤리적 저널리즘은 MIL과 공통점이 많다. 아래의 [표 1]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수준 높은 저널리즘과 MIL을 결합하면 좀 더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1]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과 MIL의 관계**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sup>7)</sup>	MIL의 기본 원칙
1. 저널리즘의 으뜸가는 의무는 진실의 추구이다.	1. 진실 추구 과정에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2. 저널리즘의 첫 번째 충성 대상은 시민이다.	2.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3. 저널리즘의 정수는 검증이라는 규율에 있다.	3. MIL의 본질 또한 개인적 검증이라는 규율에 있다.
4. 저널리즘 종사자는 취재 대상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4. MIL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5. 저널리즘은 권력에 대한 독립적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5. 미디어가 제4부라면, MIL은 (시민에게) 제5부의 권위를 부여해준다.
6. 저널리즘은 공적 비판과 타협을 위한 장을 제공해야 한다.	6. MIL은 사람들이 공적 담론과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7. 의미 있는 사안을 흥미롭고 (시민의 삶에)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MIL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기술 탐색을 자극해,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정보와 미디어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8. 뉴스를 종합적이고 균형감 있게 유지해야 한다.	8. MIL은 사람들이 정보와 미디어의 다원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
9. 저널리즘 종사자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MIL은 우리 모두의 타고난 자질인 추론과 양심을 자극한다.

\*출처: Grizzle, A. (2018), 미출간 저작.

6) White, A. (2008). To Tell You Truth. The Ethical Journalism Initiative. Brussels, Belgiu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7) Bill Kovach and Tom Rosenstiel (2014). The Elements of Journalism (Revised and Updated Edition)에서 재정리한 것임.

## MIL의 기타 원칙

- (1) MIL의 주요 특징으로 학제성(interdisciplinarity)이 있다.
- (2) 미디어와 정보 분야 모두를 다루어야 한다.
- (3) 인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4) 비판적 사고를 핵심 역량으로 간주해야 한다.
- (5) 문화 간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
- (6) 모든 젠더 정체성,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전수되어야 한다.
- (7)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 모두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8) MIL 관계자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개념은 보편적 인권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인, 공동체 및 모든 국가가 표현의 자유 권리와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해 세계 인권 선언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고수할 자유,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든,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수용하고 전파할 자유를 포함한다”<sup>8)</sup>라고 명시돼 있다.

18

유네스코는 이 원칙에 입각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개념이야말로 모든 나라의 시민에게 자신의 기본적 인권을 제대로 누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유네스코는 여러 출판물을 통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갖춘 시민은 모든 형태의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하고,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창작하고, 이용하고, 전파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sup>9)</sup> 이들은 정보와 미디어 관련 분야에서 자신의 권리는 물론, 자신을 대리해 자유롭게 독립적이며 다양한 수준 높은 정보와 미디어 시스템을 요구할 기관에 대해서도 이해하며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다. 미디어와의 관계에서 이들은 정보와 미디어 공급자의 역할과 기능뿐 아니라 이 기능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도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보 접근과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를 이해하고, 평등, 자유로운 표현, 문화 간 대화, 종교 간 대화, 평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을 다루는 것”을 포함<sup>10)</sup>해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정보 교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8) United Nations Human Rights Declaration, Article 19 (1948). <http://www.un.org/en/documents/udhr/index.shtml>

9) Kuzmin E.I., Parshakova A. V. (2013).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n Knowledge Societies. -M.: Мчбс, p.29.

10) Grizzle, A., Moore, P. et al (2013).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Policy and Strategy Guidelines. UNESCO, Paris. 다음 사이트에서 여러 다른 유네스코 발간물도 보라.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media-development/media/literacy/publications/>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기술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주요 영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접근
- 분석과 이해
- 비판적 평가
- 이용
- 창작과 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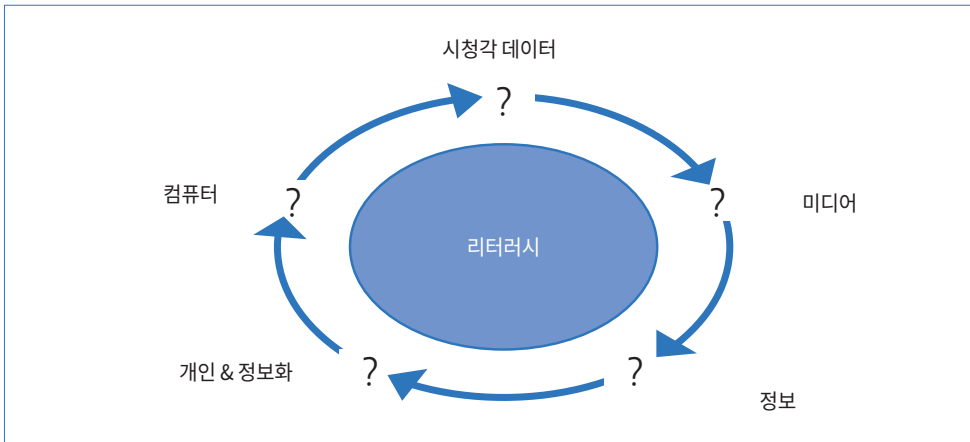
이 다섯 가지 주요 영역은 저널리즘의 기본인 5W 1H, 즉 무엇을(what),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n), 왜(why), 어떻게(how)와 관련되어 있다.

일부 MIL 관련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누가 정보나 콘텐츠를 창작했는가? 정보(콘텐츠)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표 수용자는 누구인가?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떤 정보가 포함되고 어떤 것이 배제되는가? 이 메시지에서 이익을 얻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실무자들은 또한 자신들이 뉴스 리터러시라 부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MIL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리터러시*라는 키워드를 살펴 보아야 한다.

또, 리터러시 개념을 명확히 확립하기 위해 단어를 추가한다면, 어떤 단어가 사용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림 1] 뉴스 리터러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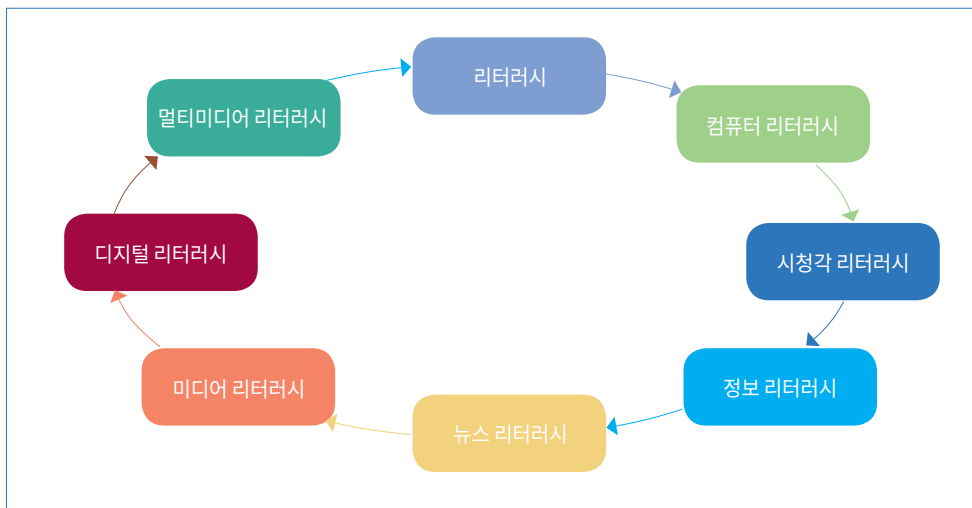


이 모든 개념들은 중심에 위치한 '리터러시'라는 키워드를 보충한다. 이전에 나온 리터러시 틀에서는 리터러시란 주로 개인의 교육과 관련이 있었으며, 글쓰기와 말하기뿐 아니라 사고와

예측의 폭이 이에 속했다. 오늘날 이 개념은 정보 및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에 관련된 행동을 비롯해 인간 행동의 많은 영역을 포괄한다. 따라서 리터러시 개념은 확장돼 왔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복수의 리터러시나 멀티 리터러시에 관해 논의하기도 한다.<sup>11)</sup>

리터러시는 MIL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리터러시는 [그림 2]에서 제시된 여러 특징과 보충적이고 상호 관련된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림 2] 리터러시의 특징



\*출처: 《UNESCO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for Teachers》에서 발췌.

이 범주들은 각기 나름대로 독특한 성격과 고유의 맥락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범주들을 보완해주는 근접한 속성을 지닌 경우도 상당히 빈번하다. 예컨대, 컴퓨터 리터러시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자 컴퓨터 과학과 정보 기술의 기초 지식이라면, 시청각 리터러시와 시각적 리터러시는 시간과 공간 속에 구현된 시청각 현실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일종의 시청각 미디어 텍스트를 ‘해독’하는 능력이자, 시청각 기법과 시청각 문화의 기초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미디어 역량에 속한다. 정보 리터러시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 모든 개념을 포괄하며, 정보를 숙지하고 분석하며 종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미디어 현실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이자, 미디어 텍스트를 이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며, 미디어 문화에 관한 기초 지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위에

11) Grizzle, A. & Wilson, C. (Eds.) (2011).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for Teacher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aris,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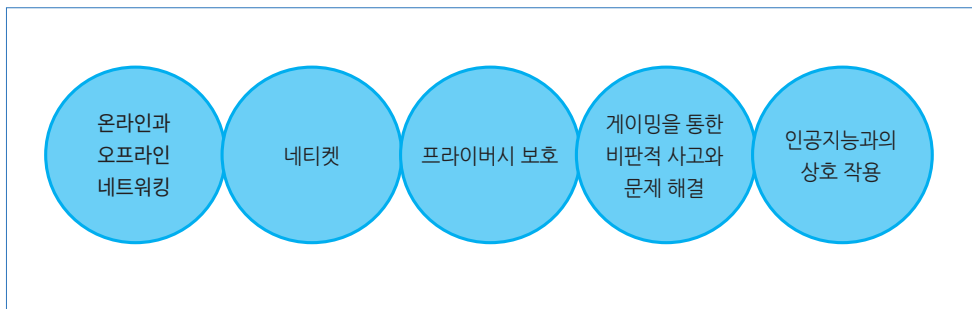
서 언급한 모든 리터러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리터러시의 양상들이 서로 수렴돼 가고 있다.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는 갈수록 디지털 기술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현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과거의 인터넷 이용이 단순히 서핑과 채팅에 국한됐다면, 지금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정보 교환이 상당히 널리 보급되고 활발해졌으며, 모바일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폰은 세상을 향한 독특한 창의 구실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스마트폰 이용자는 적극적인 정보 소비자이자 배포자, 생산자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 디지털화는 ‘프로슈머(prosumer)’를 탄생시켰는데, 이는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생산 과정에 관여하는 참여자라는 뜻이다. 앨빈 토플러가 1980년에 제안한 이 용어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이다.

새로운 정보 현실과 미디어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디지털 미디어, 모바일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등등의 뉴 미디어 이용자는 네트워킹 기술, 재가공, 공유, 다운로드 기술, 콘텐츠와 멀티미디어의 창작, 배포 및 적절한 이용법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뉴스 미디어 리터러시,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등 달라진 미디어 생태계를 묘사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날 하이퍼텍스트성(hypertextuality) 개념은 디지털 정보뿐 아니라 네트워크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이 디지털 연결을 통해 이어진다는 원칙인 네트워크는 사람과 기계, 기계와 프로그램, 로봇과 다른 장비 사이에 발생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그림 3]과 같은 새로운 역량도 추가하고 있다.<sup>12)</sup>

**[그림 3]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와 관련된 새로운 역량**



12) Rayimjanov R.Z. Requirements for Media Competencies in New Media Environment. Media, Human, Society in Asia. Korea & Uzbekistan. Seoul, South Korea, April 21-26, 2019. p.119-124.

전문가들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해 언급하면서, “전통적(리터러시) 능력이 확장되고 있다. 즉, 빅데이터와 개인 데이터 정보 보호,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등에 관한 지식, 그리고 포함할 미디어와 차단할 미디어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새롭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요소다”<sup>13)</sup>라고 말한다. 따라서 오늘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용자 상태를 구분하는 개념은 인간관계와 정보 교환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됐다.

MIL과 관련해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네티켓(디지털 에티켓)으로,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 규범이다. 디지털 에티켓의 준수는 새로운 정보 커뮤니케이션 지형에서 미디어를 능숙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무 조건이다.

## 1.2.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

사람들이 지식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국제 공동체, 특히 국제기구의 관심사였다. 유네스코는 “포용적이며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다원주의 지식 사회 구축의 전제 조건”<sup>14)</sup>으로 간주되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개발에 힘쓰고 있다.

22

넘쳐나는 정보가 무한히 유통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언론인의 객관성 문제 및 언론인의 시민 교육 역량 습득 정도 또는 수용자의 MIL 증진을 위한 관여 정도는 시급한 현안 과제라 할 수 있다.

언론인과 편집인은 검증됐거나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새로운 팩트체크 방법을 활용해 끊임 없이 정보 검증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식별하는 도구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언론인과 미디어 조직은 허위정보에 대처하고 시민이 MIL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그룬발트 선언(Grunwald Declaration)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청취자, 시청자, 독자의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있어 부모, 교육자, 미디어 종사자, 의사 결정권자가 각자 스스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인식할 때, 미디어교육의 효과는 가장 커질 것이다. 교육과 미디어 체제, 커뮤니케이션 간의 통합이 더 강화된다면 이는 분명히 교육의 효율성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것이다.”<sup>15)</sup>

13) Kuzman E.I., Parshakova A.V. (2013).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n Knowledge Societies. -M.: Мчсь, p.29.

14) Kuzman E.I., Parshakova A.V. (2013).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n Knowledge Societies. -M.: Мчсь, p.29.

15)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n Knowledge Societies.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유네스코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 개념을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로 결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미디어, 테크놀로지 역량을 포괄한다.<sup>16)</sup> 이와 같은 구상은 여러 국제 선언과 권고에 반영됐다. 이 중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에 관한 페스 선언 (2011년 모로코).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에 관한 IFLA 권고 (2011년 네덜란드 헤이그; 2012년 러시아).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글로벌 협의체(GAPMIL)의 구상과 실천 계획 (2013년 나이지리아).
- 디지털 시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에 관한 파리 선언 (2014년 프랑스).
- 변화하는 미디어·정보 지형에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에 관한 리가 권고 (2016년 라트비아).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에 관한 청년 선언 (2016년 브라질).
- “열린 정부 문화 구축을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에 관한 한티만시스크 (Khanty-Mansiysk) 선언 (2016년 러시아).
- MIL 도시를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2018년 러시아).

전 세계 전문가와 현직 종사자가 이 문서들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MIL의 발전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메커니즘을 발굴하기 위해 국제 공동체가 정부 수준에서 이 문제를 의제화하고, 교육, 연구 분야의 노력을 결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또한 수용자가 진짜 정보와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디어와 기타 정보 공급자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는 점에서도 MIL은 유의미성을 지닌다. 언론인은 스스로 허위정보, 잘못된 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의 진실성을 규명, 확인, 식별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시민들도 이와 같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과거에는 미디어(매스 미디어)가 세상을 보여주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든 끊임없이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 정보의 수용자, 배포자, 창작자가 되어 정보의 의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언론인은 뉴스를 수집하고 전파하는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

16) Grizzle, A. (2018)를 보라.



### 1.3. 유네스코가 제시한 MIL의 다섯 가지 법칙

**MIL의 다섯 가지 법칙은 기본적으로 알톤 그리즐(Alton Grizzle)과 작타르 싱(Jagtar Singh)이 정리해 유네스코에 제출한 핵심 원칙이다.**<sup>17)</sup>

MIL의 다섯 가지 법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Grizzle, A. (2018)를 보라.<sup>18)</sup>

**제1법칙.** *사회는 정보, 커뮤니케이션, 도서관, 미디어, 테크놀로지, 인터넷을 비판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이 정보원들은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으며, 이 중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키워드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바로 ‘비판적으로’와 ‘동등한 지위’다. 첫 번째 원칙은 정보의 소비자 역시 창작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아들이는 정보에 비판적 태도를 지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어떤 사람이든 정보나 미디어 콘텐츠의 분석과 평가에 임하게 되면, 정보를 접함에 있어 가장 진실되고 치우침 없는 정보를 찾으려 할 것이다. 모든 미디어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명시한 것은 특정 미디어나 정보원이 지배적이라는 인식을 떨쳐버리고, 다른 정보원을 찾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제2법칙.** *모든 시민은 정보/지식의 창작자이다. 모든 사람은 정보/지식에 접근할 권리와 자기표현의 권리가 있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인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터넷과 현대적 미디어라는 맥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든 정보의 저자/공저자와 배포자가 될 기회를 갖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국제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정보 도구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각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 교환 분야의 법적 관계, 정보를 수신하고 배포할 권리, 공적·사적 조직 및 개인의 의무와 행위자 등을 다루는 다양한 규정을 통해 법률을 개정해나가고 있다. 더욱이 이 법칙에 명시된 성평등의 준수는 의무적인 필수 조건이다.

**제3법칙.** *정보, 지식,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중립적이거나 독립적 또는 불편부당한 것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MIL을 개념화하고 활용, 적용할 때는 모든 시민이 이를 명료하게 파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7) Grizzle, A. and Singh, J. (2016)을 보라.

18) Grizzle, A. (2018). Assessing Citizens' Responses to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es through an Online Course: An Empirical Study and Critical Comparative Analysis of Experts' Views. Doctoral Dissertation. ISBN: 9788449084775: <http://hdl.handle.net/10803/666860>. Tesis Doctorals en Xarxa (TDX). 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 Spain.

사실을 선별하고 분류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정보 그 자체와 정보 걸러내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이는 조작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때때로 일차적인 것과 이차적인 것을 선별하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이슈를 우리 자신의 시각에서 세상에 보여주거나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다. 다만 이 법칙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기 마련이며, 정보원과 일할 때 또는 일반적으로 미디어와 기타 정보 공급자를 대함에 있어 이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4법칙.** 비록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모든 시민은 새로운 정보, 지식, 메시지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들의 권리를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또한 헌법에 의해 거의 모든 국가의 법에 명시되어 존중받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권리는 오히려 더 훼손되고 있다. 기술의 힘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바꿔놓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로의 이행 환경에서건 전자적 형태의 현대적인 정보 교환 과정에서건 이 헌법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법칙.**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하룻밤 새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경험이자 과정이다. 미디어에 대한 정보 및 기술 콘텐츠의 이용, 창작, 전송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까지 망라할 때 비로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MIL은 여러 역량을 겸비한 자질로 정의되고 있으며, 각 개인이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속성이다. 전문가들은 오늘날에는 취학전 교육도 MIL과 관련성을 맺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제 정보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시점에서 일어나고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든 집 안, 모든 가정에 미디어 자료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MIL 역량의 형성은 음식 섭취, 개인위생 등에 필적할 만한 일차적인 욕구임이 자명해질 것이다.

## 1.4. 미디어 대응을 위한 MIL에서 MIL 개발 동반자로서의 미디어로

이번 절은 이 핸드북 편집자의 일화로 시작해보겠다. 영국 레스터대학교(University of Leicester)에서 원격 교육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던 당시, 그는 필수 과목인 대면 세미나 수업에 출석해 권위 있는 미디어 연구자이자 기업가인 한 학자가 이끄는 저널리즘 세션에 참석했다. 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세션을 시작했다.

*“저널리즘은 비즈니스다. 저널리즘은 항상 비즈니스였다.  
저널리즘은 앞으로도 항상 비즈니스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발언은 분명히 그 교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그에게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현실일까? 매스 미디어는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으로서의 성장에 일차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가? 미디어의 자유를 포함해 미디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유엔 기구로서 유네스코의 역할이나, 전 세계의 수많은 다른 기구의 활동을 보더라도 미디어는 단순히 거대 기업 이상의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저널리즘 세션에서 이 책의 편집자는 그 저명한 교수에게 바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당시 강의실에 있던 약 30명의 학생 중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한 사람은 미래의 이 편집인이 유일했다.

일부 미디어 종사자는 미디어란 그저 그들의 콘텐츠가 선택한 초점에 맞추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반영할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의 현실인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초점 혹은 주 목적을 구체화해서 표현해줄 틀을 모색하다보면 흔히 미디어의 패러독스를 놓고 고심하게 된다. 많은 경우 MIL은 사람들이 미디어, 플랫폼 업체, 거대 기업, 정부, 혹은 정보 공급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다루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와 상호보완적인 한 가지 시각은 MIL이 정보의 준비, 배포, 수용 과정에서 언론인과 시민이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미디어 조직이 어떻게 하면 MIL을 통해 시민 참여를 늘려 미디어 발전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다. 이러한 이슈는 이 핸드북의 제2부와 제3부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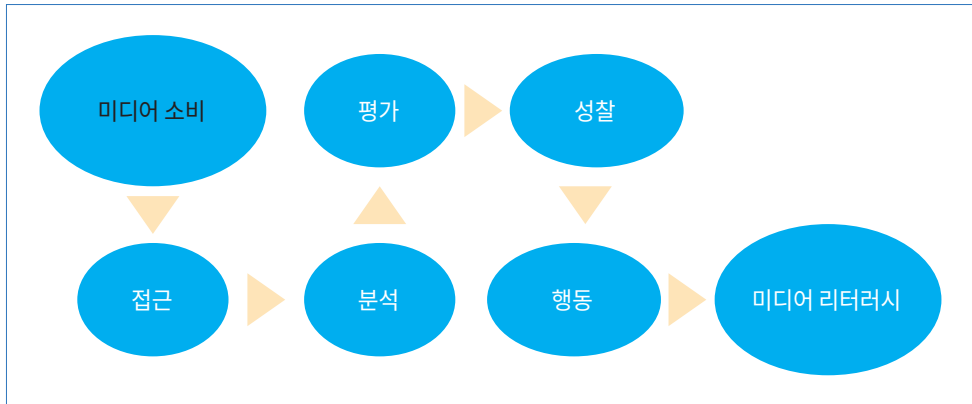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의 기본 자질인 비판적 사고와 같은 역량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비판적 사고**란 정보와 지식의 소비 과정과 관련된 역량이다. 이는 정보를 분석하고 비교하며, 어떤 사건이나 이슈 혹은 상황의 대상과 주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미디어 텍스트나 정보를 유사한 주제 또는 사건과 연결 짓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개인이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개발한다면 타당한 결론을 내리고 합리적인 추론과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상황과 문제점에 올바르게 적용된다. 이것이 바로 시민 또는 수용자의 적극적인 자세이다. 비판적 사고는 미디어와 기타 정보 공급자에 대한 극단적인 냉소주의 및 회의적 태도를 최소화해줄 뿐 아니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 역시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합리적 수준의 회의론은 비판적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극단적 냉소주의나 회의론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매스 미디어와 관련된 사항 중 어느 것도 미디어 텍스트 개념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으며, 이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갖추는 데 주요한 토대가 된다. 여기에서 미디어 텍스트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낸 산물 전체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란 개념이 전통적 매체 혹은 매스 미디어의 고유한 속성이란 뜻은 아니다. 텍스트는 모든 ‘미디어’ 형태나 정보 전달 수단을 변형시킨다. 여기에는 서적, 저널리즘 텍스트, PR 텍스트, 신문 텍스트, 텔레비전과 라디오 텍스트, 광고 텍스트, 온라인 매체의 텍스트,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단 사람들이 미디어 콘텐츠와 다른 여러 형태의 정보를 다루게 되면 미디어 또는 기타 정보 공급자와의 의식적인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한다. 미디어는 시민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접하고 정보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식을 관리하게 되며, 결국에는 반대로 정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4] 미디어 소비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로**



그러므로 사람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다시 말해 정보나 미디어 콘텐츠를 접근, 분석, 평가, 활용하는 법을 깨우치게 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직업 활동 안에서 그리고 삶 전반에서 효과적인 학습 능력을 갖게 된다. 즉, 이 사람은 다양한 용도의 조사, 평가, 체계화, 정보 활용 분야의 능력을 확장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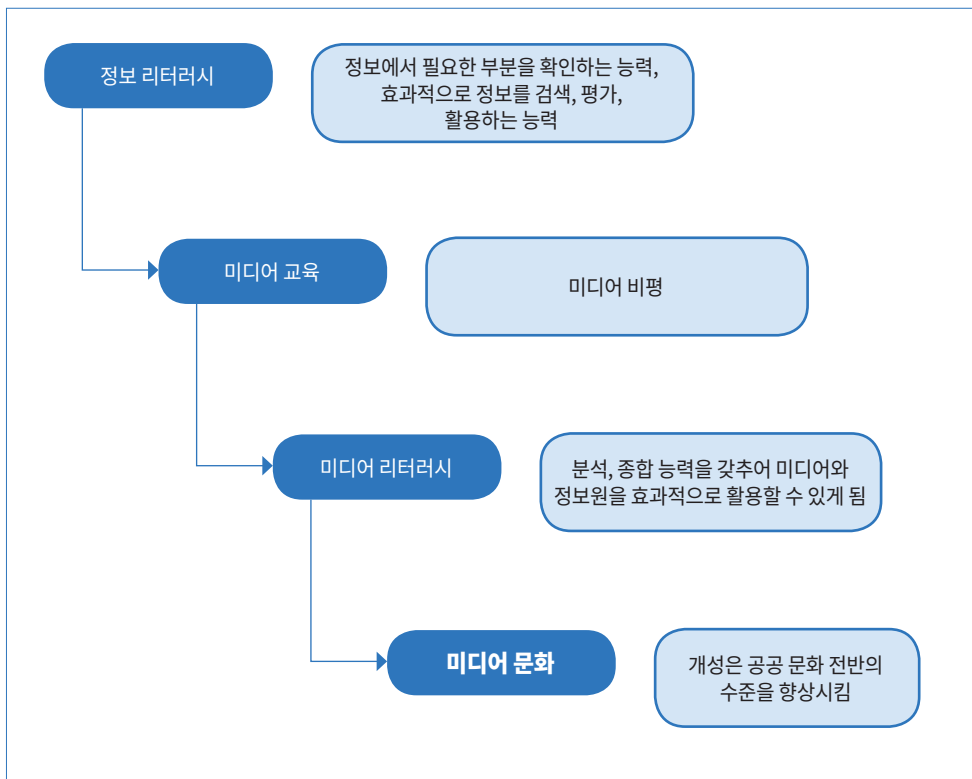
사람이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면 기존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사실과 정보에 비추어 자신의 의견을 재고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MIL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측면이다. 우리는 단지 한 개인이 수용한 일정량의 정보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정보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면서, 습득한 정보를 검토하고, 그 정보의 맥락 안에서 지금까지 시민/수용자가 의견 형성의 토대로 삼은 견해와 근거까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미디어는 시민/소비자의 정보 현실을 보충하는 집단적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핸드북 제1부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는 MIL을 미디어로부터의 보호 수단으로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MIL은 시민/수용자를 미디어의 동반자로, 그리고 미디어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갖춘 사회의 옹호자로 바꿔놓는 과정이다. 왜 그런지 궁금할 수도 있다.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여보자. 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시민에게 미디어 및 기타 정보 공급자와 상호 작용

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제공하고,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게 됨으로써 비판적 역량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는 목표를 추구한다. MIL 역량 중 미디어와 관련된 측면은 아래 항목과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의 이해
- 미디어가 어떤 맥락에서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해
-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자기표현 및 양질의 콘텐츠 소비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와 상호 작용
- 어떤 미디어 콘텐츠든 창작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 습득<sup>19)</sup>

[그림 5] MIL과 상호 연계된 개념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



19) Zhilavskaya O.P. Media Information Literacy as a Holistic Concept in a Changing World. International Electronic Scientific and Educational Journal <Media. Information. Communication>. <http://mic.org.ru/2016g/16-nomer-2016/562-medijno-informatsionnaya-gramotnost-kaktselostnoe-ponyatie- v-izmenyayushchemsya-mire>. 또한 다음 자료도 보라. Grizzle, A and Wilson, C. (Eds.) (2011). UNESCO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for Teachers. UNESCO, Paris.

## 1.5. MIL 실습: 연습 문제와 사례

여러분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가 어느 수준인지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은가? 만약 그렇다면 아래 질문에 답해보라. 제1부에서 공유한 정보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의 전문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MIL 기술도 발굴해낼 수 있을 것이다.

### 1. 정보란 무엇인가?

- A. 사람, 사물, 사실, 사건, 과정에 관한 데이터
- B. 구체적인 주제에 관한 견해나 진술문
- C. 사람과 대상에 관한 스토리
- D. 사람들이 전달한 이야기

### 2.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균형을 갖추었다고 간주된다.

- A. 어떤 사건이나 과정, 갈등에서 모든 당사자가 발언 기회를 얻을 때
- B. 이해와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질 때
- C. 누구의 견해나 판단에도 의존하지 않을 때
- D.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가 제시될 때

### 3.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다음 측면 중 당신이 식별할 수 있는 것은?

- A. 컴퓨터 리터러시
- B. 시각적 리터러시
- C. 정보 리터러시
- D. 앞서 언급한 모든 측면

### 4. 다음 중 새로운 정보 커뮤니케이션 지형에서 능숙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선결 조건이자 이용자의 온라인 행동 규칙을 나타내는 것은?

- A. 네티켓
- B. 네트워킹
- C. 공유
- D. 놀이

### 5. 정보에 비판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해당 항목을 모두 고르시오)

- A.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
- B. 생각/숙고한다
- C. 의문을 품는다

- D. 추가 정보를 찾는다
- E. 분석한다
- F. 조작을 허용한다
- G. 수용한 정보를 대부분 거부한다

**6. MIL을 한 문장으로 기술한다면?**

---



---



---



---



---

**7. 어린이가 정보와 미디어 습관에 노출되어도 좋은 나이는?**

- A. 5세
- B. 10세 이후
- C. 20세 이후
- D. 25세 이후
- E. 가능하면 이른 나이에

**8. 유네스코의 다섯 가지 MIL 원칙을 각각 한 단어를 사용해 기술하라.**

1. 

---
2. 

---
3. 

---
4. 

---
5. 

---

---



---

**9. 데이터와 정보량의 증가는 MIL 역량 필요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의 개인 생각을 기술하십시오)**

---



---



---



---



---



---

## 10. ‘미디어로 가득 찬 세계’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



---



---



---



---



---

### 연습 문제 1. 정보의 휴식 시간 갖기

이 연습 문제는 정보 흐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정보 흐름과 접하는 시간을 잠시 중단해보자. 즉 인터넷에서 늘 접하던 모든 유형의 미디어 및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라.” 휴식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미디어 소비 양상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창조하거나 공유하는 정보,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정보 환경에 대한 의존 양상 등에 관해 성찰하고 분석해보라. 아래 표에 여러분이 전송한 발간물/포스팅/정보/메시지의 숫자를 기록하고 그 의미를 기술해보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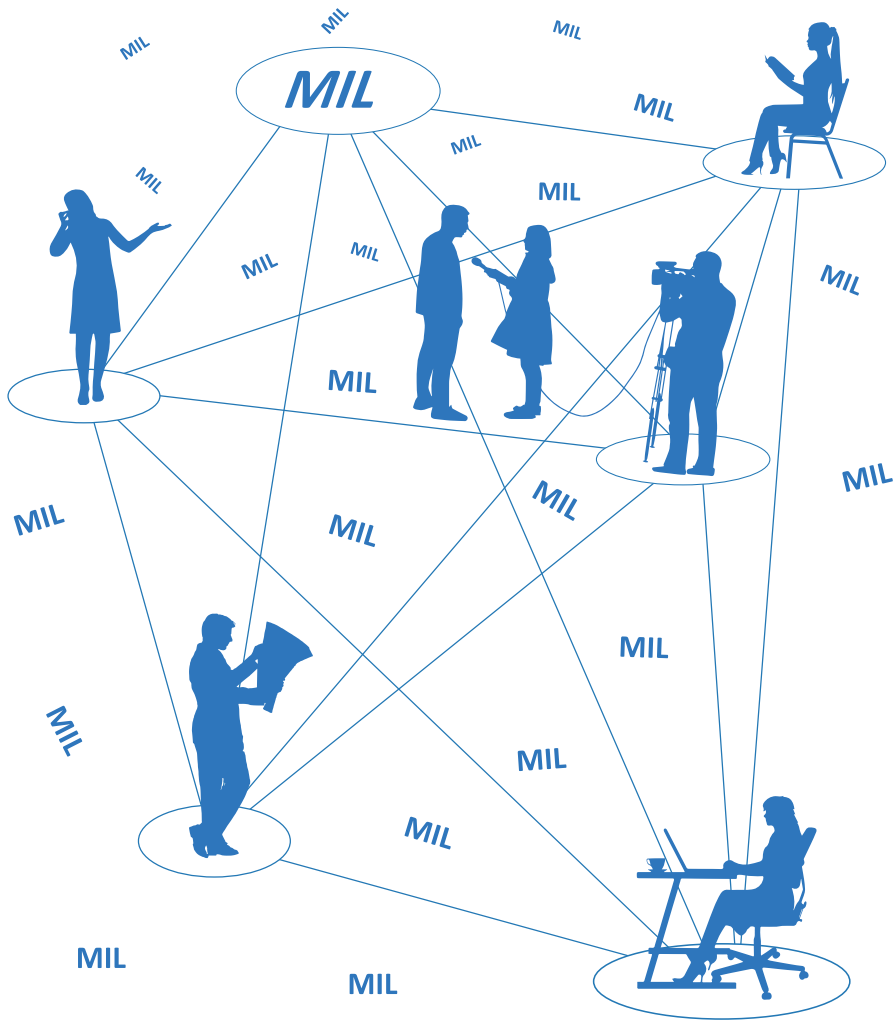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사이트/ 메신저 등	공유한 포스팅/ 정보의 총 개수	의미 있는 정보/ 무의미한 정보	공적 중요성/ 개인적 중요성/ 사적 중요성
1			
2			
3			
4			
5			
6			

### 연습 문제 2. 나의 미디어, 시민 참여 일정표

여러분이 이용하는 미디어 분야, 시민과의 직접 상호 작용, 미디어 소비 습관을 분석해보라. 결과를 타임라인으로 제시하라. 타임라인을 보고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자주, 어떤 여건에서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고, 이런저런 메신저를 사용하며, 소셜 네트워크에 로그인하는지 살펴보자. 또한 만일 시민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들에게서 받는 피드백의 수준은 어떠하며 이 피드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돌아보자.







## 제2부

### 저널리즘 교육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 2.1. 저널리즘 학습자와 교육자를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 형성

제2부에는 세 가지 핵심 가정이 깔려 있다. 첫째,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 세계 수많은 언론인이 공식적인 저널리즘 훈련을 받지 않았다. 둘째, 훈련을 받은 언론인의 상당수도 미디어의 시민 교육 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해하지 못한다.<sup>1)</sup> 이는 일부 지역에서 특히 더 만연해 있는 현상이다. 셋째, 지속적인 숙련도 향상과 저널리즘 교육만이 언론인에게 MIL과 본인 직무의 관련성을 자각하고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sup>2)</sup>

이 안내서의 사용자는 서로 다른 두 영역인 미디어교육(이 핸드북에서는 MI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과 미디어 연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교육(MIL)은 미디어와 정보 이슈를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비판적 사고 개발에 통합시키고,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체계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 및 기타 정보 공급자와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둔다. 반면 미디어 연구 분야를 집약해서 표현하자면, 미디어와 경영, 이용, 사회에서의 관련성과 기능의 이론적, 개념적, 경험적 측면을 다루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 연구가 비판적 사고나 커뮤니케이션, 정보 체계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다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 핸드북에서 양자를 구분하는 주된 차이는 맥락, 목적, 주요 초점, 목표 집단 등에 있다. 아래 [표 1]을 보라.

[표 1] MIL과 미디어 연구의 구분

	맥락	목적	주요 초점	목표 집단
MIL	시민/사람들의 정보, 미디어, 기술에의 관여. 사회적 참여와 대화, 자유, 권리, 포용을 다룬다. 정규, 비정규, 비형식 교육 환경을 포함해 모든 교육 수준을 대상으로 한다.	시민들에게 비판적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부여하며,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를 널리 검색, 비판적으로 평가, 이용하고 기여할 수 있게 하며, 평등, 자유로운 표현,	비판적인 정보, 미디어, 기술 역량(지식, 기술, 태도, 가치와 행위자). 이 역량들이 문화적 리터러시, 재정적 리터러시, 글로벌 시민성 등의 다른 사회적 역량과 맺는 관련성.	다양한 형태의 정보, 미디어,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

1) Cole, P. (2005). Instinct, Savvy and Ratlike Cunning: Training Local Journalists. In Bob Franklin and David Murphy (Eds.). Making the Local News: Local Journalism in Context. First Published in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Republished in Taylor and Francis e-Library, 2005.

2) Mihailidis, P. (2006, January). Media Literacy in Journalism/Mass Communication Education: Can the United States Learn from Swede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 60(4), 416-428. 또한 다음 자료도 보라. Standards for Journalism Educators. <http://jea.org/wp/home/for-educators/standards/>. [2019.12.1. 접속]. Towards a Programme for Journalism and Media Literacy (Aidan White). <https://ethicaljournalismnetwork.org/resources/publications/ethical-journalism/media-literacy>. [2019. 12.1. 접속].

	맥락	목적	주요 초점	목표 집단
		문화/종교 간 대화와 평화를 촉진하는 데에 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미디어 연구	권력, 통제, 정치, 경제, 사회 변동, 문화 등 사회 속의 미디어. 대개 정규 고등교육.	사회 내에서의 미디어 기능에 관한 연구 및 이해, 정책 개발.	미디어 작동과 사회에 관한 이론, 개념들, 경험적 연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분야의 전문가, 연구자나 커리어 지망생.
양자의 관계	맥락은 서로 관련이 있으나 MIL의 맥락이 좀 더 사람 중심적. MIL은 행동, 인지 과학뿐 아니라 미디어 연구와 정보 연구에서 파생되어 나옴.	미디어 연구는 대중적 시민 교육과 시민 참여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	미디어 연구의 초점이 학술적인데 비해, MIL은 좀 더 일상적인 역량에 초점.	MIL 역시 전문가와 현장 언론인, 또는 미래의 언론인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MIL의 목표 집단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

\*출처: Grizzle, A. (2018)의 미출간 저작.

일반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인 세 가지 광범위한 역량이 제안된다. (1) 정보 역량, (2) 시민 교육과 시민 단체/자율성 역량, (3) 정보 접근, 검증, 전파와 관련된 기술 역량.

저널리즘은 늘 정보 검증을 위한 훈련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저널리즘 교육자와 언론인은 저널리즘의 정보 역량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저널리즘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전, 가짜 정보, 정보 장난질(pranking), 디지털 공격, 트롤링(trolling)<sup>3)</sup> 같은 현상으로 인해 미디어와 다른 정보 공간의 왜곡이 심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위기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 과잉’은 ‘정보 불확실성’을 낳는다. 다양한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도구를 동원한 의식의 조작으로 시민과 수용자는 ‘비판적 자율성’이 결여되고 결국 제공받는 정보는 무엇이든 ‘그대로 삼키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널리즘 교육자와 언론인은 또한 현재 일반 시민이 미디어 및 정보 플랫폼과 상호 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온라인 문화에 관여하고 있다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이 온라인 문화 덕분에 시민들은 정보 창조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 능력과 자율성을 더 많이 갖게 됐다. 문제는 시민들이 새롭게 누리게 된 이 자율성에 얼마나

3) 부정적인 이용자 반응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메시지를 게재하는 것. 트롤링은 집단뿐 아니라 개인도 도발한다. 네트워크 트롤은 집단으로 행동하기도 하는데, 서로 조율된 상태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무작위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일삼는다.

비판적인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저널리즘 교육은 미래의 언론인들이 온라인에서건 오프라인에서건 수용자와 더 잘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량에 눈뜨게 만들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된 아래 절에서는 몇 가지 보편적 역량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와 역량이 젊은 미디어·정보 종사자의 교육·훈련과 관련이 있는가?

1982년 유네스코 국제 심포지엄에서 채택한 미디어교육에 관한 그룬발트 선언에서 19개국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심의 여지없이 강력한 미디어의 위력을 비난하거나 찬양하는 대신에 우리는 미디어가 삶의 모든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침투해 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하고, 현대 문화의 통합적 요소로서 이들이 지닌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저널리즘은 발전 과정 속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가 제 역할을 하도록 새로운 활력을 줄 뿐 아니라, 이들이 시민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돕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활성화 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이 만든 데이터와 정보를 발견하고 분석하며, 이 데이터와 정보로부터 스토리를 창조할 수 있는 언론인만이 자신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공적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고 수용자는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언론인이라면 정보를 수용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36

MIL 분야에서 미디어와 저널리즘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

- 첫째, 언론인의 MIL 역량 개선용 자료 개발을 목표로 한 적극적 조치와 프로젝트의 시행이다.
- 둘째, 정보를 소비할 때 필요한 분석과 비판적 사고력을 미디어를 통해 수용자에게 널리 알리고 그러한 능력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 언론인을 위한 MIL 교육 플랫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흔히 글로벌 미디어 세상의 평생 교육으로 통한다. 업데이트된 전문가 기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갖춘 정보 허브에서 제공하는 MIL 교육 자료는 언론인 능력 향상에 필수적이다. 유네스코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조율해온 이 분야의 주요 기관이다. 국제 미디어교육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1982년 그룬발트 선언 채택 이후 유네스코는 사람들의 MIL 역량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러한 효과적인 조치들은 ‘파리 어젠다: 미디어교육에 관한 12가지 권고’<sup>4)</sup>에 따라 마련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4) ‘파리 어젠다: 미디어교육에 관한 12가지 권고’는 유네스코 미디어교육 국제 심포지엄 “Media Education – Advances, Obstacles, and New Trends Since the Grunwald: Towards a Scale Change?”에 근거해 채택됐다.

다음은 현직 종사자와 연구자들 간 네트워킹을 추구하는 플랫폼이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MIL 온라인 정보원이다.

	<p>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글로벌 협의회(GAPMIL)<sup>5)</sup>는 MIL 관련 네트워크들을 이어주는 유네스코의 네트워크로서, 다양한 관계자, 네트워크, 시민 사회 단체, 미디어 정보 산업, 연구기관, 정부 등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MIL 역량과 관련 정책의 전 세계적 전파를 촉진하고자 한다.</p>
<p>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문화 간 대화 대학 협의회 (MILID Network)</p>	<p>유네스코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문화 간 대화 대학 협의회(MILID Network)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문화 간 대화에 관한 최초의 국제 대학 네트워크이며 GAPMIL의 연구 분과에 해당한다. MIL 개발에서 연구, 교육, 참여의 세 가지 영역을 담당한다.</p>
	<p>MIL클릭스(MIL Clicks)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MIL의 혁신 프로젝트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결하고, 사고하고, 놀이하고 브라우징하는 분위기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어 MIL 역량을 습득하게 유도한다. (2)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유도한다.</p>
	<p>글로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주간(Globa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Week)</p>
	<p>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템플대학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센터(Center for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MIL)는 연구를 수행하고 미디어와 언론인, 교육자에게 비판적 분석, 고품질 미디어 콘텐츠의 이용 및 창작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지역, 전국, 국제 수준에서 MIL 관련 연구, 옹호 및 교육 활동, 그리고 직업 개발 센터 역할을 수행한다.</p>
	<p>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NAMLE)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미국의 전국 단위 협회이다.</p>
	<p>미디어리터러시센터(Center for Media Literacy, CML)는 이 분야의 선도 기관으로, 정보 접근, 분석, 평가, 미디어 콘텐츠 창작 및 참여를 위한 근거지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훈련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 설립됐다. CML은 시민, 특히 젊은이들이 21세기 미디어 문화에서 성숙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 기술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뉴지엄온라인교육(NewseumED)은 프리덤포럼(Freedom Forum Institute)의 온라인 정보원이자 성공적인 프로젝트다. 저널리즘 교사가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기술 개발을 돕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MIL에 관한 교육 자료와 사례 연구, 보고서, 분석 자료를 정기적으로 출간한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다.</p>

5) [역주] GAPMIL은 2020년 10월 이후 '유네스코 MIL 연합'(UNESCO MIL Alliance)로 변경되었다.

저널리즘 교육에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통합하려면 반드시 일반 교육 프로그램 과정 안에 여러 학문 분야를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포함시켜야 한다. 고도의 전문화된 언론인 훈련 프로그램 안에서 단기 학술 강좌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캐나다에서는 오랫동안 국가 교육과정 안에 미디어 리터러시 훈련이 필수로 요구돼 왔으며, 초·중·고등학교, 단과 대학, 종합 대학은 다양한 강좌, 학과목, 통신 교육과정(MEP, 널리 제공되는 온라인 강좌)을 개설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교육부는 미디어 리터러시란 ‘학생들이 미디어의 속성과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술 및 기술의 영향을 의식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끔 도와주는 도구’라고 규정한다. MIL 교육 역시 이와 비슷하게 미디어와 기타 정보 공급자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의견을 형성하고,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으며,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다.<sup>6)</sup>

38

“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생명의 리터러시라고 본다. 만약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시민적, 개인적, 직업적 차원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닐 앤더슨(Neil Anderson)은 인터뷰에서 말한다. 미디어교육 분야의 선구자인 그는 교사들이 MIL의 기술과 역량을 교육과정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그는 호주, 캐나다와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각지에서도 수많은 교육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했다.<sup>7)</sup>

MIL과 교육과정의 통합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스 리터러시 센터로 간주되고 있는 미국의 스톤브룩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의 뉴스 저널리즘 과목 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은 네 가지 영역으로 압축될 수 있다. 다양한 정보 유형—교수진의 표현에 따르면 ‘자신의 정보 이웃 환경에 대한 지식’—규정하기, 뉴스에서 정보원과 출처 평가하기, 뉴스와 의견 식별하기, 미디어 편향의 이해·확인 및 뉴스 소비자의 편향이 미디어 텍스트 수용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등이다.<sup>8)</sup>

MIL 역량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사고는 젊은 세대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할 뿐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시민적, 경제적 삶에 참여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확신한다. MIL이 현직 언론인이나 예비 언론인에게 어떤 유의미성이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건강 관련 사례를 살펴보자.

‘미디어리터러시나우(Media Literacy Now)’ 프로젝트는 미디어의 건강 관련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 전략으로 제시했다.

6) <https://medialiteracynow.org/what-is-media-literacy/>

7) <https://medialit.org.Voices of Media Literacy project, March 4, 2011.>

8) Toward 2020: New Directions in Journalism Education/ Ryerson Journalism Research Centre.

흡연은 미국에서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데, 흡연에 의한 사망자 중 90퍼센트는 청소년기부터 흡연을 시작했다. 연구에 따르면, 영화와 광고 속 등장인물의 흡연과 같은 미디어의 흡연 관련 메시지는 청소년의 흡연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가 포함된 건강 교육과정인 전통적인 금연 교육(효과적이긴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가 포함되지 않음)보다 학생들의 흡연을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sup>9)</sup>

이 보고서는 흡연, 음주, 마약 복용, 비만과 영양실조, 정신 건강, 수면 장애와 학업적 특성,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노출, 잔혹성과 폭력, 신체 이미지와 청년 건강 같은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전개돼 가는 과정에서 미디어 정보 이용이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미디어교육을 받은 청년 그룹에서는 MIL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 건전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라고 본다.

또 다른 예는 전 세계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 수준이 2011년 이래 계속 상승해 왔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젊은 세대의 정신 건강은 최근 수십 년 중 가장 최악의 위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젊은이들 손에 쥐어 준 기기가 이들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들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sup>10)</sup> 최근 진행된 또 다른 연구는 하루 2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경우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등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게 되면 미디어를 좀 더 책임감 있고, 안전하고 윤리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결론짓는다. 이들이 학습하는 내용에는 과잉 이용의 위험성뿐 아니라 미디어와 기술 이용의 건강 효과와 연계된 ‘디지털 영양 섭취(digital nutrition)’ 개념도 포함된다. 이 용어를 창안한 조슬린 브루어(Jocelyn Brewer)에 의하면, 디지털 영양 섭취란 개념은 “인간이 소비하는 기술 기반 미디어 콘텐츠의 (긍정적, 부정적인)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그리고 디지털 기기가 우리 인간의 심리적이며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sup>11)</sup>

9)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t. of Adolescent Health, Adolescents & Tobacco Trends. <https://www.hhs.gov/ash/oah/adolescent-development/substance-use/drgus/tobacco/trends/index.html>

10) Jean Twenge (2017). “iGen: Why Today’s Super-Connected Kids Are Growing Up Less Rebellious, More Tolerant, Less Happy—and Completely Unprepared for Adulthood.”

11) Digital Nutrition by Jocelyn Brewer. <https://www.digitlanutrition.com.au/about/>. [2019. 11.22. 접속]. 또한 P. Sharma, MU Rani (2016). Effect of Digital Nutrition Education Intervention on the Nutritional Knowledge Levels of Information Technology Professionals. IN Ecology of food and nutrition, Taylor & Francis도 보라.



젊은이들이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관계성 및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 소셜 네트워크 이용에 좀 더 주의하게 되고, 더 진정성 있는 관계 맺기를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sup>12)</sup>

###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와 역량이 젊은 미디어·정보 종사자의 교육·훈련과 관련이 있는가?

이 영역에서는 수많은 연구가 수행됐으며 여러 권고 사항과 검증된 경험 사례도 나와 있다. 일부 국가는 이미 적극적 단계의 MIL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이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적돼 있는 오픈 소스와 자료를 미래의 언론인 양성을 위한 훈련에 활용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4차 정보 혁명 시대 언론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강좌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미디어 분석**—미디어의 메시지나 콘텐츠는 대체로 생산자와 배포자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내용을 분석해서 정보나 상황의 원인, 목적, 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 **미디어 독해**—미디어 콘텐츠를 읽고 새롭게 생각해보라. ‘어디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와 ‘왜’라는 질문을 더 자주 던져라.
- **미디어 조작 분석**—조작을 목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와 도구 연구.
- **역사와 연결 짓기**—과거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과거가 오늘날의 가치, 행동, 사건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가?
- **수용자 관여 분석**—미디어 메시지의 목표 집단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언론인이 수용자와 어떤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신뢰 수준은 어떠한가, 수용자의 욕구가 미디어 메시지와 콘텐츠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 **미디어 예측**—미디어는 행동의 반영이며 미래를 향한 지표이자 지침이고, 방향이다. 언론인은 뉴스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데이터 분석**—대규모 정보를 다루는 종합적 기술과 유용한 최신 정보, 이례적 패턴, 새로운 가설을 식별해내는 능력.
- **기술 수단의 보유·활용 능력**—정보의 검색, 처리, 분석, 요약, 시각화와 관련된 기술.
- **온라인 탐사 저널리즘**—온라인 도구를 활용해 신뢰할 만한 사실 추출, 진실 추구, 사건의 원인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료와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술.

12) Joni Siani (2013). Celling Your Soul.

- **팩트체크**—발행된 사실과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하는 팩트체크.
- **클릭을 유도하는 미끼와 훅(hook)<sup>13)</sup>의 사용 감독**—훅의 사용이 콘텐츠 시청, 청취, 열독을 넘어 수용자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이다. 아래 연습 문제에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 연습 문제 1.

다음 [표 2]에는 수용자의 주목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장치로서 몇 개의 훅이 설명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 장치들은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홍보할 때 수용자에게 정서적 영향을 주는 데 효과적이다.

[표 2]

캐릭터	쉽게 식별 가능한 기호는 목표 수용자 집단에 따라 강력한 지지/자부심/냉담/증오의 감정을 유발한다.
유머	즐거움 느낌으로 기억하기 쉽다.
평범한 사람	신뢰, 친밀성, 공감, 혹은 공범 의식 등의 감정을 유발한다.
과장 (광고)	냉소주의와 불신을 초래한다. ‘최고의 ~’, ‘가장 많은 ~’ 등의 표현은 의심과 모호성을 불러온다.
아침	시청자를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며, 정보의 소유자/고객에게 유리한 선택을 유도한다.

## 2.2. 검열과 보이콧을 MIL로 무력화하기: 시민의 비판적 자주성

검열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미디어 전반의 자유와 직접 연관돼 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 동향 보고서 최신판과 2018년 프리덤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미디어 자유는 정부 검열로 인해 쇠퇴하고 있다.<sup>14)</sup> 특정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해

13) 훅(hook): 마치 갈고리처럼 글에서 독자의 흥미를 사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짧은 구절이나 문장을 의미한다.

14) World Trends in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Development: Global Report 2017/2018.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1065>. [2019.7.30. 접속].

보이콧을 실시해 실질적인 차단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이러한 현실은 분명히 언론인과 저널리즘 교육자에게는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미디어에 대한 검열과 보이콧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 중 대다수는 일반 저널리즘 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정치, 선거, 거버넌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힘
- 문화 전파와 문화 보존에 대한 미디어의 기여
- 미디어가 시민의 삶에 잠재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 미디어와 플랫폼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한 정보 전파와 이용자 정보 악용
- 사회 변화를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
- 미디어 소유권의 집중화
- 대기업과 특수 이해관계 집단의 영향력

42

해당 내용은 위에 열거한 사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미디어 검열과 보이콧에 영향을 미치는 무수히 많은 다른 요인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 미디어와 플랫폼 기업의 병폐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종종 검열과 보이콧을 지지하는 근거가 성립되기도 한다. 저널리즘 교육은 대체로 어느 정도는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인터넷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저널리즘 교육과정은 MIL을 활용해 검열과 보이콧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았다.<sup>15)</sup> 이 책의 앞 절에서 정리한 것처럼, 시민 참여 운동으로서의 MIL은 수많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종교 간 대화, 문화 간 대화, 평등, 사회적 포용, 관용,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반이 포함된다. MIL은 또한 미디어 자유가 왜 필요한지, 미디어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등등에 대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사람들이 MIL 역량을 갖추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디어의 자유를 수호하고 미디어에 품질과 진실을 요구하며,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미디어에 관여할 때 식견을 갖춘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현직 언론인과 예비 언론인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MIL은 미디어의 자율 규제 메커니즘에서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 미디어가

---

15) Van der Linde, F. (2010). The Necessity of a Media Literacy Module within Journalism or Media Studies Curricula. *Global Media Journal*, vol 4(2). <http://dx.doi.org/10.5789/4-2-7>.

특정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자율 규제에 실패한다면, 추가로 정부 규제를 불러들이는 위험을 범하게 된다. 미디어와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볼 때 MIL은 정부 규제와 검열을 대체하는 대안이며 내부 지향적인 동시에 외부 지향적이어야 한다. 내부와 외부 지향적 행동의 몇 가지 예는 아래에서 간략히 제시할 예정이며, 이는 이 책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외부 지향적 행동이란 미디어와 언론인이 대화를 통해 MIL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높이고, 또한 시민의 자각을 제고시킴으로써 시민이 정부를 향해 미디어를 검열하고 규제를 하기 보다 MIL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널리즘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이슈와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MIL을 향상시켜 미디어와 언론인 단체가 미디어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아동 대상 특정 콘텐츠의 적절성 문제 및 광고 규제와 같이 국제 표준에 근거해 불가피하게 정부가 미디어를 규제할 때도 역시 더 많은 시민 참여와 대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MIL은 그러한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 MIL에 부응하는 편집 정책 설계.
- 언론인과 미디어가 정보 공급자로서의 한계에 대해 투명성 있게 임하도록 하는 방안.
- 사람들이 뉴스와 다른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가 개발하는 기술과 프로그램.
- 시민 사회와 미디어의 파트너십 개발.
- 대중의 관심사와 이들이 파악한 문제점을 더 부각하는 방안.
- 미디어 소유 구조와 더불어 협찬사, 광고주와 어떤 성격의 관계인지 투명성 유지.
- MIL을 저널리즘 실무 및 이 핸드북의 목차에서 열거한 다양한 주제·이슈에 통합시키는 방안.
-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디어 메시지를 모니터링하고 조율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간략히 논의하도록 한다.

### 2.3.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를 위한 미디어 메시지 모니터링과 조율

수준 낮은 저널리즘과 근거 없는 온라인 콘텐츠가 미디어 메시지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례들은 종종 검열을 옹호하는 주장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유네스코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저널리즘이 검열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이라고 제안한다.<sup>16)</sup> 유해한 미디어 메시지에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은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통해 시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 교육은 현직 언론인 뿐 아니라 예비 언론인에게도 시민 의식을 더 향상시켜야 한다.<sup>17)</sup> 이를 달성하는 한 가지 방안은 특정한 메시지가 사람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응을 잘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이러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언론인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방송되거나 출판되는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검증된 메커니즘은 바로 미디어 조직 내에 확립돼 있는 편집 정책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이슈는 언론인과 미디어가 뉴스를 수집하고, 편집해 발행하는 속도가 때로는 품질 관리에 심각한 제약을 가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미디어 메시지가 잠재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모니터링 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언론인을 훈련시키면, 결국 남보다 앞서 보도한다는 원칙과 시민 보호 및 진실 전달이라는 윤리 문제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삼중 방어막을 제공하는 셈이다.

따라서 저널리즘 교육은 언론인에게 진실, 정확성, 관련성, 시의성, 균형, 공정성, 불편부당성, 독립성 등과 같은 표준화된 저널리즘 원칙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언론인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 미디어 메시지를 더 잘 조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앞서 제안한 역량과 아래에서 언급할 몇 가지 사안을 특히 중시해야 한다.

- 인지 영역에서 기초 심리 훈련. 즉,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고 반응하게 되는 방식, 정보를 알고 학습하고 이해하게 되는 방식 등.
- 시민과 수용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리터러시.
- 수용자에게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는 방안으로 MIL을 장려.
- 특정한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수용자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수용자와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도구를 사용하며, 결과를 공개하고, 수용자에게 보낼 향후의 메시지를 조정하기 위해 이러한 피드백을 윤리적으로 접목시키기.

16) Professional Journalism and Self-regulation: New Media, Old Dilemmas in South East Europe and Turkey. UNESCO (2011). Paris.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90810>. [2019.11.23. 접속]. White, A. (2008). To Tell You The Truth. The Ethical Journalism Initiative. Brussels, Belgium: International Federations of Journalists도 보라.

17) Banda, F. (2009). Civic Education for Media Professionals: A Training Manual. UNESCO Series on Journalism Education. UNESCO, Paris.

## 2.4. MIL 활성화를 통한 미디어 종사자와 정보 분야 및 도서관 종사자 간의 연계 구축

사회가 정보 사회로 변해가면서 새로운 기술의 영향 아래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미디어의 영향력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활용은 역동적이고 글로벌한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는 수동적 형태는 아니지만 뉴 미디어의 영향하에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들은 정보의 창작과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정보의 저장고였다. 도서관은 진화하고 있으며 오늘날엔 단순한 책 저장고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가 됐다. 미디어 기술을 통해 관리 방식이 개선된다면 도서관은 엄청난 양의 정보와 지식 자원을 보유하는 셈이다. 도서관 직원은 정보의 미로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두 가지 임무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 고속도로의 규칙에 따라 안내가 가능하도록 정보 저장소를 체계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와 동시에 정보 자원의 이용자인 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정보 문화는 바로 정보와의 접촉 지점에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개인의 특성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중요한 교점이 된다. 따라서 바로 여기에 MIL 습관(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기술) 형성에 필요한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서관

도서관은 모든 주민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배양하는 수단이며, 정보와 이용자, 그리고 접속점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매스 미디어



미디어



도서관



접속



자문



이용자

MIL 역량 형성에서 도서관이 우위에 있는 부분은 도서관에는 정보 다루는 일에 훈련된 진짜 정보 안내자가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새로운 도서관의 전문가들은 예전처럼 사람들이 정보 목록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에게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며 이들이 찾는 정보의 성격, 범위, 특징에 관해 알려주는 컨설팅 제공자이자 전문가에 더 가까운 존재가 됐다. 이는 사서와 정보 전문가의 정보 경험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데서 중요한 마케팅 도구가 됐다는 의미다.

### 도서관은 왜 중요한가?

도서관처럼 정보와 지식이 만나는 접속점은 MIL 형성이 가능한 플랫폼이자 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한다. 도서관은 청소년과 젊은층에게 인터넷 및 기술과의 폭넓은 접속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만큼 MIL 역량을 보존하는 데 도서관이 좀 더 관여할 필요가 있다. 아무런 평가 체계도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는 더 쉽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가짜 정보가 1,500명의 트위터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데 평균 10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진실은 60시간이 걸린다.” 사서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접하는 정보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한때 발행인, 편집인, 전문가들이 수행했던 검증자(verifier) 역할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미디어 조직과 도서관 같은 정보기관은 타임라인은 각각 달라도 정보를 수집하고 재배열하고 전파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sup>18)</sup>

저널리즘 교육은 언론인과 미디어가 사서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언론인에게 일깨워주어야 한다.

- 젊은이가 뉴스와 인터넷상의 정보를 ‘건강하게’ 소비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 가짜를 식별하고 온라인 뉴스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지침을 제공한다(예컨대, 제목을 믿지 말고, 출처를 확인하고, 사진을 믿지 말고, 작성된 내용에 의심이 들면 댓글을 남기고, 의심 부분을 적시하는 것). 이는 공공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훈련 방법이다.
- 여러 미디어 출처에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정보를 제대로 소비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 언론인은 도서관과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하는 접근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식견을 갖춘 뉴스 소비자 세대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탈진실(post-truth) 사회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동시에 도서관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줄 아는 이용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도서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다양한 훈련 형태와 훈련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공개강좌
- 과제 기반 훈련
- 발표
- 소책자
- 포스터
- 웹 페이지 발간물
- 소셜 미디어 발간물
- 미디어와 여러 경로의 (구두 및 글로 된) 발언

---

18) Altschiller, D. (2002). A Librarian's Plea to Journalists: Give Us a Clue! Columbia Journalism Review, 40(6), p.70.



**[박스 1] 지속 가능한 정보 문화 배양을 위해 사서가 하는 일의 예**

젊은 독자를 방대한 정보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 미국사서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Librarians)는 “어린이를 위한 걸작 웹 사이트(<http://gws.ala.org/>)”를 개설하고, 어린이를 위해 양질의 검증된 출처 목록을 제공한다.

이탈리아의 도시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어린이를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여긴다. 어린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단어뿐 아니라 이미지와 소리, 기타 여러 가지 수단, 즉 “100여개에 달하는 어린이 언어”를 활용한다. 네덜란드도서관협회(NBLC)는 어린이와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방안을 활용해서 어린이 도서관용 디자인 개념을 개발하고자 했다.

덴마크에서는 ‘도서관에서 놀기’ 같은 프로젝트를 대단히 중시한다. 이 프로젝트는 게임 문화를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의 주요 구성 요소로 바꾸어 이들 사이의 중개 요소로 활용하려 노력한다. 도서관은 여러 미디어의 긍정적 역할을 고려해 게임을 창안하고 있으며, 또한 장난감과 게임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중개자의 입장에서 어린이의 게임 문화를 지원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05년 7월 ‘문자·활자문화진흥법’이 새로 통과됐다. 이 법과 관련해 일본도서관협회는 법안을 작성하면서 어린이의 읽고 쓰는 능력이 향상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법은 2005년 7월에 시행됐다. 이 법은 글쓰기와 읽기 문화 지원을 기본 개념으로 정하고, 중앙 정부와 지역 당국의 책임 사항을 공식화했다. 이 법에 따라 독서 주간의 첫째 날인 10월 27일은 ‘문자·활자문화의 날’로 지정됐다.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역시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사서들이 학교에서 두 가지 수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이 수업에서 사서들은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내준다.

실제 수업 예시: 미디어 텍스트의 분석과 종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물건을 사용한다. 우선 물건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조립해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본다. 뉴스 역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다른 방식으로 조립될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48

레고처럼 여러 조각으로 쪼개보라	조각을 조립해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보라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2016년 미국 도서관(2016 Libra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란 문서에 따르면 사서와 기타 정보 관련 직종의 초점은 자료 접근 제공에서 벗어나 좀 더 쌍방향적 정보 서비스 및 정보 교육 제공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 사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파악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정보 멘토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 2.5. 비전통적인 정보원 다루기

저널리즘이란 시시각각 터지는 매일매일의 사건 흐름 속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의미 있는 정보를 식별하는 일이다. 따라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한 후 뉴스 형태로 전파하는 일이 언론인의 주된 임무다.

저널리즘은 항상 문서로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언론인의 작업 과정은 사실과 출처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먼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개념과 접하게 되고 해당 분야의 직업 역량이 작업 결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최종 결과물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인은 출처를 다루고, 사실을 처리하며,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언론인의 기술이다.<sup>19)</sup>

정보를 수집할 때 언론인은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가장 우선해야 하며, “사실에 대한 신뢰성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견해와 전문가 논평에 의해 확인되며, 증거와 주장으로 뒷받침된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저널리즘의 정보를 다른 모든 정보와 구별 짓는 속성이다.

창작 과정에 관해 언급하자면 무엇보다 주제 선정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제는 저널리즘이 다루는 소재의 중심 측면이다. 이는 보통 어디에 실릴 글인가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면, 법률 간행물에 적합한 주제는 청년, 정치, 교육 등이다. 미디어에 글을 실는다는 것은 해당 미디어 포맷에 적합한 주제를 찾아낸다는 뜻이기도 하다.

선택된 주제를 소재의 아이디어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론가들에 따르면 아이디어란 “저자의 입장을 표현한 것, 즉 내가 이 소재를 글로 쓰는 목적”이다. 글의 소재가 누구를 대상으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작성/마련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 질문에 답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소재, 사실, 논평, 해명, 주장 등을 수집해도 된다.

19) Henderson, H. (2004). Library in a Book: Power of the News Media. New York: Facts on File. 미디어 연구에 관한 참고문헌 목록과 연구자 이력과 역사적 정보 소개. Singh, A. B. (2005, July). A Report on Faculty Perceptions of Students'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ies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s Programs: The ACEJMC Surve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6(4), 294-311.

언론인은 텍스트를 작성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실을 수집한다. 해당 주제에 관한 수많은 출처, 미디어 자료, 출판물 등을 검토하다 보면,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 현상, 주제에 관한 그림이 언론인의 머릿속에 형성된다.

실제로 출판할 소재를 다루는 과정은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보 수집과 정보의 재검토이다.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사람과의 대화나 인터뷰, 개인적 관찰, 아카이브 문서 작업, 사회학적 설문 분석, 인터넷 출처를 포함한 다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검토 등이 이에 속한다.

**정보의 재검토:** 문서, 사진, 음성 녹음 등 모든 것이 활용된다! 또한 이 모든 정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검토해보아야 한다. 최초로 접한 정보에서는 데이터, 사실, 인용문 등을 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파악해야 한다.

정보의 재검토 과정에서는 대개 해당 주제를 어떻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보도할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 출처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주요 관계자 인터뷰로만 국한할 필요는 전혀 없다.

50

필요한 사실 자료를 확보하고 나면, 이를 중심 부분과 부차적 부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서 중심 부분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후자는 소홀히 다룬다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 주된 개념을 설정하고 자료에서도 중심이 될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

중심 사실을 선택할 때는 항상 전문가의 검증을 받고 증거가 되는 토대도 갖춘 탄탄한 요소를 선택해야 한다. 그 밖의 내용은 중요도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

정보 수집과 텍스트 작성 준비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따라서 수집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시해야만 한다. 즉, 사실을 선택하고 정보를 체계화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아무 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일은 늘 어렵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우선 앞으로 입수하게 될 자료의 구조를 구상해보고,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 유형과 형태를 결정하며 사진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오늘날 글쓰기 입문서의 저자들은 “정보 차원에서 텍스트를 가장 잘 보완하게 될 인포그래픽이나 콜라주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하라”<sup>20)</sup>고 조언한다. 시각화 가능성과 요소에 대해서는 이 핸드북의 “정보 시각화: 새로운 기회” 단락에서 좀 더 자세히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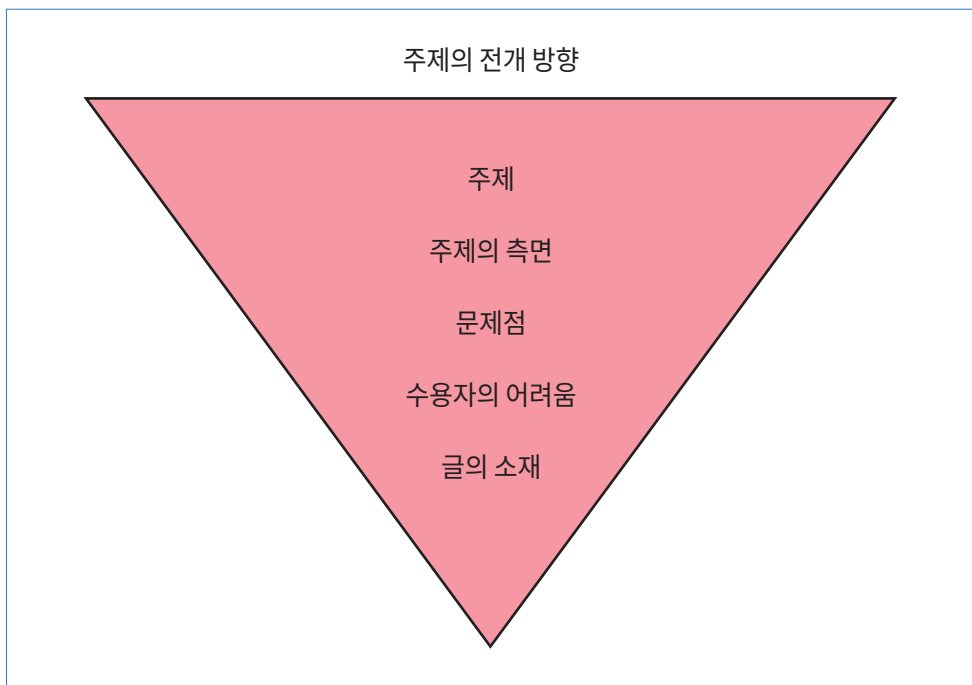
---

20) Bakanov R.P., Simkacheva M.V., Tumanov D.V., (2018). Journalism for Beginners: A Textbook for University Students. --M.: Aspect-Press, p.66.

### 연습 문제 2. “현장의 문제점”

1. 소셜 네트워크와 미디어 분석에 초점 맞추기.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주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다음 단계로, 한 가지 주제로 범위를 좁혀라.
3. 초점을 결정하기 위해 주제를 몇 가지 측면으로 좁혀라.
4. 이제는 수용자의 어려움을 기술할 수 있다. 말하자면 문제점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5. 이 문제로 영향을 받는 개인들을 찾아내서 관계를 도출해내야 한다.

### [그림 6]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점



### 연습 문제 3. 입증 근거로 삼을 정보의 출처 다루기

특정한 주제에 관해 자료로 사용할 정보의 출처를 목록으로 정리하라. ‘신뢰할 만한 출처’와 ‘신뢰할 수 없는 출처’로 정보를 구분하라. 정보는 최소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출처를 이용해 검증해보아야 한다.

주제	신뢰할 만한 출처	신뢰할 수 없는 출처
알코올 거래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2. 3.	1. 2. 3.
사건 수사와 조사로 개인인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1. 2. 3.	1. 2. 3.
마약과 항정신성 약물 목록이 더 늘어났다.	1. 2. 3.	1. 2. 3.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금인출기에서 수수료 없이 외화를 국내 통화로 바꾸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1. 2. 3.	1. 2. 3.
2.5리터 터보 엔진을 장착한 새 모델 '말리부' 차량이 우즈베키스탄에 도입됐다.	1. 2. 3.	1. 2. 3.
실베스터 스탈론이 암으로 사망했다.	1. 2. 3.	1. 2. 3.

### 정보원으로서의 인터넷

월드와이드웹의 능력은 언론인이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출판하는 데 엄청난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전이라면 정보가 미디어에 소개되고 신문에 인쇄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보에 대한 믿음이 확보됐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러한 확신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부정확하고 허위의 정보를 퍼뜨리는 '팩트'가 넘쳐나서 때때로 많은 언론인들도 헛갈리고 있다.

아카이브나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정보를 파헤치는 방식 대신에 디지털화된 많은 데이터를 통해 가상의 영역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 이처럼 엄청난 용량으로 저장된 정보를 접하다 보면 언론인은 때때로 의도치 않은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언론인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소셜 미디어를 중요한 뉴스의 정보원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봇에 의해 작동하는 블로그와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데 의도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고리즘의 등장과 인공 지능(AI)의 진화는 저널리즘 실무와 교육 속 MIL과도 관련 있는 현상이다. 뉴스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을 검증하는 데도 점차 알고리즘과 인공 지능이 사용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진실한 보도와 거짓 보도를 식별하는 데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시사해 왔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컴퓨터 알고리즘만으로는 정확성을 100퍼센트 보장할 수 없다”<sup>21)</sup>고 말한다. 누구나 손쉽게 정보와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MIL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량, 태도다.

오늘날 이러한 정보원을 다루는 데는 반드시 별도의 역량과 경험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웹에서 제공되는 엄청난 정보량 때문에 소셜 미디어 마케팅(SMM) 전문가, 팩트체커, 마이닝 전문가, 그리고 오로지 인터넷 공동체 모니터링만을 담당하는 언론인 등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겨났다. 따라서 언론인이 정보를 얻고 검증도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출처를 살펴보자.

시의 적절하며 가장 자주 논의되는 주제/현상이라 할 수 있는 한 가지 검색 유형은 ‘블로그 모니터링’이다. 오늘날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는 많은 전문가나 오피니언 리더들은 독자적인 웹 사이트나 블로그를 운영한다. 하지만 그러한 자료를 활용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단지 텍스트가 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블로거는 자기 블로그의 평가 등급과 인용 지표를 올리기 위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전파할 수도 있다. 흥미가 당기는 정보라면 보는 즉시 믿기보다 확인하고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권위 있는 블로거는 인기몰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고통스런 이슈에 관해 쓰기도 하고 구체적인 주제에 관해 기록을 남기며 구독자 수를 늘리려 애쓰지 않는다. 언론인은 바로 이러한 블로그를 찾아내서 읽고 활용해야 한다. 그런 곳에서 언론인은 또한 구독자와 댓글 작성자의 면면을 살펴봄으로써, 정보를 확인해주거나 반박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발견할 수도 있다.

또한 블로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상위 10개 주제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인터넷 미디어는 “오늘의 블로그”라는 별도 제목까지 두고 인기 있는 웹 다이어리 주제를 게재하기도 한다. 블로그에서는 흔히 사건에 관한 공식적 시각과 관점을 달리하는 의견을 읽을 수 있어 유용하다.

‘소셜 네트워크 모니터링’은 출처를 다루는 또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최근의 사건들을 따라잡으며 파악할 수 있다. 브이콘택테(Vkontakte), 트위터, 페이스북에는 늘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있어, 이를 근거로 주제를 선정하거나, 인물, 전문가를 찾아내고 진행 중인 사건의 규모도 파악할 수 있다. 개개인의 소셜 페이지 외에 다양한 네트워크 공동체(공중)도 언론인의 작업에서 매우 유용하다. 소셜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으면 발언자를 찾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긴급 사태나 다른 사건의 세부 내용을 찾아내고, 사건 목격자를 찾아서 질문하고, 인물의 개인 이력을 탐문하고, 출판용 사진과 영상을 발굴하며, 심지어 정부 자료에게도 직접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21) Schifferes, S. Newman, N. Thurman, N., Corney, D., Goker, A. S. and Martin, C. (2014). Identifying and Verifying News through Social Media: Developing a User-Centred Tool for a Professional Journalists. *Digital Journalism*, 2(3), pp. 406-418. doi: 10.1080/21670811.2014.892747.

‘주제별 커뮤니티(thematic communities)’ 같은 정보원은 여론을 탐색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또한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때때로 특정한 문제에 대해 논평을 권유할 수도 있는 미래의 전문가를 찾아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인터넷 자원은 ‘데이터베이스’다. 여기에 게시된 정보는 흔히 그 자체로는 뉴스가 안 되지만, 사실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때, 그림이나 통계치를 활용할 때 대단히 유용할 수도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능력은 분석적이고 탐사적 성격의 저널리즘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인쇄된 정보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재빨리 비교도 가능하고, 역학 관계와 트렌드를 파악할 수도 있으며,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 2.6. 젠더 시각에서 본 MIL: 성평등 촉진 도구로서의 MIL

54

MIL의 틀 안에서 언론인의 기술을 훈련하고 제고할 때 젠더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미디어 콘텐츠에는 흔히 성 불평등, 고정 관념, 차별 등이 반영돼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인에 대한 적절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네스코의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발전에 관한 세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여성은 지나치게 적게 나타나고 있다.<sup>22)</sup>

디지털 기술의 젠더 격차는 MIL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파악해야 하는데, 최근 《할 수 있다면 얼굴을 붉혔을 거예요: 교육을 통한 디지털 기술의 젠더 격차 해소(I'd blush if I could: Closing Gender Divides in Digital Skills through Education)》라는 유네스코 간행물에 따르면 이 격차는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탐색하고 미디어 이용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 낮으며, 디지털 미디어에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에 대한 이해도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sup>23)</sup>

미디어와 기술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관여도가 불균형을 보인다는 사실에는 수많은 시사점이 있다. 가장 시급한 두 가지 이슈는 온라인에서의 여성 혐오, 그리고 여성과 소녀에게 가해진 폭력에 관한 보도물 중 낙인찍기와 선정주의에서 자유로운, 책임감 있고 균형 있는 보도가 아예 없거나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여성과 소녀 대상 폭력에 관한

22) UNESCO (2018). World Trends in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Development, Global Report 2017/2018, UNESCO, Paris.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1065>. [2019.11.23. 접속].

23) West, M., Kraut, R., and Ei Chew, H. (2019), I'd Blush if I Could: Closing Gender Divides in Digital Skills through Education. UNESCO, Paris.

보도(Reporting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라는 제목의 언론인용 핸드북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sup>24)</sup> 이 책이 제시한 대안은 저널리즘 실무와 교육 안에 MIL을 접목하면, 여성과 소녀 대상 폭력 문제를 둘러싼 의사소통 과정에서 미디어와 시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여성 언론인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온라인 괴롭힘
- 조혼 또는 아동 결혼
- 여성 생식기 절제/할례
- 강제 결혼
- 여아 낙태와 살해
- 성희롱, 성폭행, 강간
- 소위 ‘명예’ 범죄
- 인신매매와 이민자 밀입국
- 전쟁 중 여성 대상 폭력
- 연인 또는 전 연인에 의한 폭력과 가정 내 살인

유네스코는 미디어 전문가 및 현직 종사자와 협업으로 이미 미디어용 젠더 감수성 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지표는 “어떤 기술이 사용됐건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미디어에서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미디어에서 사회적 다양성의 평등과 젠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개발됐다.”<sup>25)</sup>

이러한 중요한 지침들이 간과될 때 인쇄 매체, 텔레비전, 온라인 미디어 및 광고 속 콘텐츠에서는 젠더 고정 관념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다. 저널리즘 교육은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이 채택된 이후에도 여전히 끈질기게 미디어에 남아 있는 이러한 추세를 뒤집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4) Impe, A-M. (2019). Reporting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 Handbook for Journalists. (Ed. Lourenco, M.). UNESCO, Paris.

25) Grizzle, A. (2012, Ed.). 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Framework of Indicators to Gauge Gender Sensitivity in Media Operation and Content. UNESCO. <https://ru.unesco.org/events/kazakhstan-usilenie-uchebnoy-programmy-po-gendernoy-zhurnalistiche> / 다음 문헌도 보라. Gallagher, M. (2014) Feminist Scholarship and the Debates on Gender and Communication. In Montiel, V. A. (2014). Media and Gender: A Scholarly Agenda for the Global Alliance on Media and Gender. UNESCO, Paris.



## [그림 7] 두 개의 대양 합치기



\*출처: Grizzle, A. (2012). UNESCO 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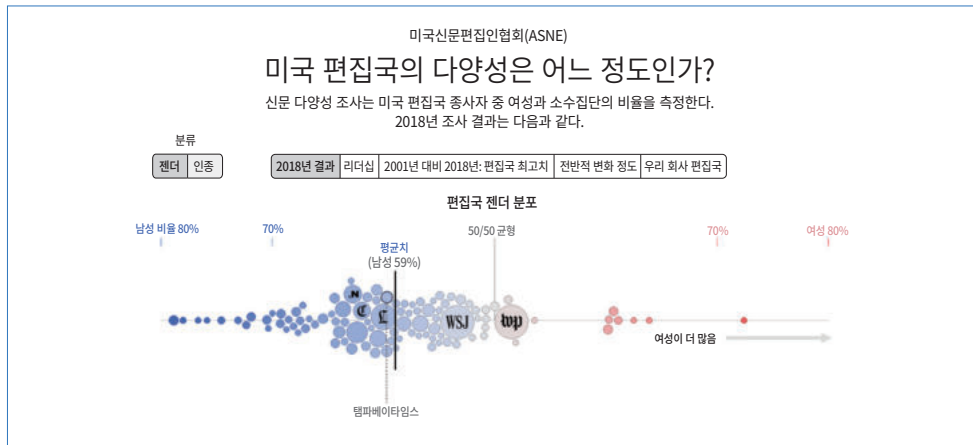
‘두 개의 대양 합치기’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저자가 구상하는 젠더 이슈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림에서 흰색 선으로 표시된 미디어는 ‘두 개의 양극단’을 분리할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다. 미디어의 젠더 감수성 지표는 바로 통합이라는 과업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 지표들은 고정 관념을 없애고 성평등과 정의의 문제, 상업적 메시지에 나타난 불편부당한 여성과 남성 묘사를 강조하여 미디어가 여성과 남성을 공정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MIL의 시각에서 보면 미디어의 젠더 감수성은 교육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sup>26)</sup> 예를 들면 언론인은 성평등이라는 주제를 강조함으로써 수용자가 이 문제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젠더 지표(젠더 감수성 지표)는 질적, 양적 지표를 활용하는 측정 장치로서,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젠더 측면에서 일어난 유의미한 변화를 반영한다. 젠더 지표는 구체적인

26) Grizzle, A. (2014). Enlisting Media and Informational Literacy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Vega Montiel, A. (2014). Media and Gender: A Scholarly Agenda for the Global Alliance on Media and Gender.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aris, France; Lapayese, Y. V. (2013) Going Against the Grain: Gender-Specific Media Education in Catholic High Schools. Catholic Education: A Journal of Enquiry and Practice. Volume 15, Issue 2; Melki, J. and Farah, M. (2014). Educating Media Professionals with a Gender and Critical Media Literacy Perspective: How to Battle Gender Discrimination and Gender Harassment in the Media Workplace. In Vega Montiel, A. (2014). Media and Gender: A Scholarly Agenda for the Global Alliance on Media and Gender.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aris, France.

규제 기준과 관련해 여성의 지위를 직접 드러내는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 미디어에서 젠더 다양성 정도를 분석한 한 사례를 살펴보자. 이 연구는 미국의 젠더 다양성 현황을 보여 주면서 뉴스 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과 소수 집단의 비율을 측정했다(아래 차트는 2018년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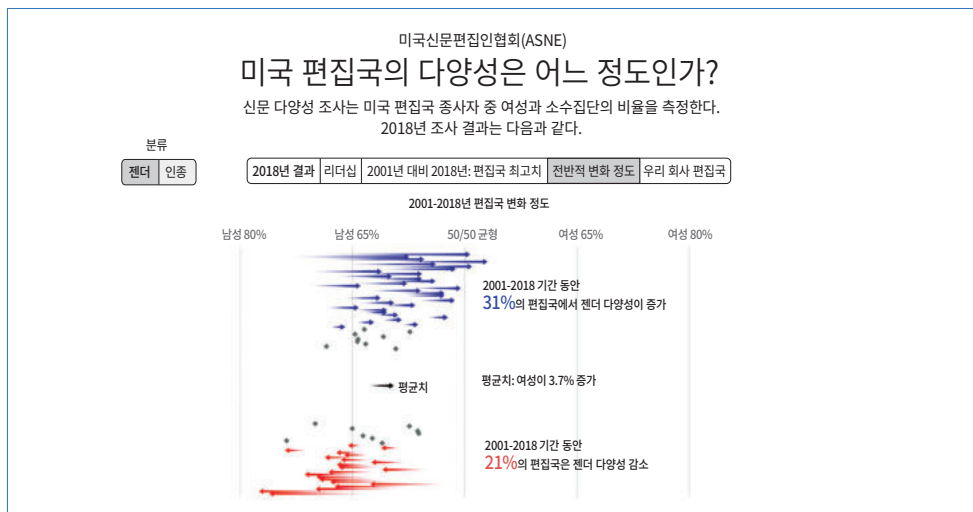
[차트 1]



57

아래의 차트는 시간 경과에 따라 상황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목적은 무엇일까?

[차트 2]



27) How Diverse Are US Newsrooms? [https://googletrends.github.io/asne/?fbclid=IwAR3qyKcDsJRd6MMry6tuKgUGPgHswN2Jos1X8luwt6\\_CyfbdgV3Ci4nwySo&view=0](https://googletrends.github.io/asne/?fbclid=IwAR3qyKcDsJRd6MMry6tuKgUGPgHswN2Jos1X8luwt6_CyfbdgV3Ci4nwySo&view=0)

바로 이 질문은 우리 독자에게 흥미로울 수도 있다. 엄연한 사실은 언론 기관에서 젠더 다양성이 증가하면 이 주제에 관한 출판물의 수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박스 2]

[그림 8] 미래의 언론인이 이해해야 할 젠더 관련 이슈들



58

예를 들면, 2010년 <블룸버그 뉴스>는 보도물 속 등장인물 중 여성의 수를 늘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경영계, 시장, 정치, 정부의 뉴스 메이커뿐 아니라 앵커와 발언자도 포함됐다. “여성은 인간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이들이 전 세계적 경제사적 발전에 미친 영향은 저평가됐다”<sup>28)</sup>고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말한다.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포르투갈에서 개최한 제2차 연례 ‘뉴스 속 여성(Women in the News)’ 고위급 회의에서는 미디어 세계에서 여성의 존재에 관한 실망스런 (그러나 동기 부여가 되는) 통계치에 주목했다. 그리고 <기즈모도(Gizmodo)>와 <BBC> 같은 언론 기관이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부각했다. (세계 신문협회의 ‘뉴스 속 여성’에서 채택된 추진 계획의 하나로 보츠와나에서 영국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사례 연구를 모아 미디어 속의 젠더 다양성에 관한 지침이 편찬됐다.)

28) [https://www.bloomberg.com/distribution/blog/2014-07/qa-with-lisa-kassenaar-of-the-bloomberg-news-womens-project/?fbclid=IwAR04\\_tzjKH07xjwA-28DnkjwEIAOK6LDAOG\\_l8jdl3xrQ255WVjnNNElcc](https://www.bloomberg.com/distribution/blog/2014-07/qa-with-lisa-kassenaar-of-the-bloomberg-news-womens-project/?fbclid=IwAR04_tzjKH07xjwA-28DnkjwEIAOK6LDAOG_l8jdl3xrQ255WVjnNNEl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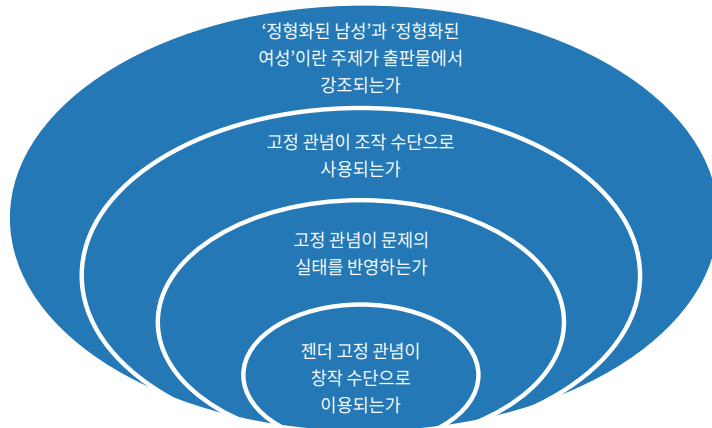
이 연구를 수행한 포인터연구소(Poynter Institute) 소속의 또 다른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매년 저널리즘이나 매스 커뮤니케이션 학위를 지닌 졸업생의 3분의 2가 여성이지만, 미디어 산업의 여성 비율은 3분의 1뿐이며 이 수치는 감소하고 있다.”<sup>29)</sup>

젠더 통계는 추상적이거나 다른 영역과 분리된 분야가 아니라 그 반대로 경제, 농업, 건강과 고용 통계 등 다른 모든 통계 영역과 관련돼 있다. 젠더 통계를 이용해 사회에서 남녀 간 지위 차이를 연구할 수 있다. 이 통계는 젠더 이슈 관련 정책 개발과 성평등 실현에 필요하다.

앞서의 연구 내용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형성을 위해서는 젠더 감수성 이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정 주제를 담당하는 언론인은 일정한 젠더 지표의 틀을 통해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는 적절한 젠더적 사고와 성평등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한 미디어 간행물을 연구할 때 이 문제는 생각해볼 만한 중요한 이슈다.

**[그림 9] 젠더 감수성을 나타내는 광의의 지표들**



이 작은 지표들은 간행물의 젠더 감수성과 편집국에서 젠더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

29) York, K. Women Dominate at Journalism Schools but it is a Different Story at the Editorials. <https://www.poynter.org/business-work2017/women-dominate-journalism-school-but-newsrooms-are-still-a-different-story/?fbclid=IwAR33hBugKDXT0hT1Ekz3mPPabBe1NePOpnhHbufmctguso632mulxITQQMrc>

[박스 3]

[그림 10] 보드 게임을 활용한 성평등 촉진과 MIL

**성평등에 관한 대화에서 MIL 역량을 활용하는가?**  
**이 ‘보드’ 게임을 한 뒤 당신의 점수를 확인하십시오.**

MIL 역량	나는 성평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행하고 있다.	이 점수를 합산하십시오.	MIL 역량	나는 성평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행하고 있다.	이 점수를 합산하십시오.
정보와 미디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표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디어, 서적과 역사에는 여성/소녀와 남성/소년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인식한다.</li> <li>•실업, 정보 접근 등 발전 관련 보고서에는 남녀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본다.</li> </ul>	6점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를 추출하고 조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여성과 소녀의 권한과 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 대화에 활용한다.</li> </ul>	6점
민주 사회에서 미디어와 기타 정보 공급자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디어와 기타 정보 공급자가 성 불평등의 심화 또는 개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식한다.</li> <li>•대중이 성 불평등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미디어와 기타 정보 공급자에게 촉구한다.</li> </ul>	9점	콘텐츠에서 추출된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활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지킨다.</li> <li>•권리에는 의무도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가령 젠더에 근거한 허위정보나 혐오 등을 의도적으로 전파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li> </ul>	15점
이 기능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디어의 자유와 모든 연령대의 남녀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옹호한다.</li> </ul>	12점	권리와 의무에 근거해 정보를 윤리적으로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스로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여성 및 소녀 관련 콘텐츠 포함)를 생산하는 능력과 독립성을 키우고 있다.</li> <li>•성평등을 옹호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파한다.</li> </ul>	12점
관련 정보를 찾아서 접근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젠더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불러올 수 있다.</li> <li>•정부가 보유한 여성 평등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접근법을 활용한다.</li> </ul>	9점	정보를 처리하고 UGC를 생산하는 데 IC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디어에서의, 또 미디어를 통한 성평등을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와 문화에 대한 여성 참여를 옹호하기 위해 주류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 및 인터넷에 접근하고 참여한다.</li> </ul>	16점
권위, 신뢰성, 현재의 목적과 잠재적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미디어와 기타 정보 공급자의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디어 메시지와 정보를 분석해 성차별주의, 젠더 고정 관념 간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다.</li> <li>•온라인 정보에 비판적이며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나의 행동을 모니터링 한다.</li> </ul>	15점	자기표현, 대화, 시민 참여, 성평등을 위해, 그리고 모든 형태의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 미디어와 기타 정보 공급자에 대처할 수 있다.		

총점: 100점  
 당신이 달성한 점수에 근거한 평가 등급 점수

♥♥	30점 이하	입문자 수준! 계속 노력하고, 3개월 후 다시 시도해보라.
♥♥♥	31-50점	아주 잘 하고 있다! 더 높은 점수를 목표로 3개월 후 다시 시도해보라.
♥♥♥♥	51-70점	우수한 점수! 당신은 MIL을 통한 성평등 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나 전문 실천가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떤가? 다시 시도해보라.
♥♥♥♥♥	71점 이상	탁월한 점수! 당신은 전문가나 전문 실천가 수준이다. 이제 동료 교육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라.

출처: “Enlisting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 Alton Grizzle. Media and Gender: A Scholarly Agenda for the Global Alliance on Media and Gender. UNESCO를 재구성.

## 2.7. 공개 데이터 시대의 정보 수집

공개 데이터란 정부 기구, 기업, 지역 당국의 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반복적 사용을 목적으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인터넷에 게시한 정보다. 따라서 공개 데이터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이용하고 배포할 수 있다.

공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접근 가능성과 가독성:** 모든 정보는 검색 요청에 의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컴퓨터로 이 정보를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재사용과 배포:** 정보는 자유로운 작업과 배포가 가능한 조건하에서 유통된다. 유일한 조건은 정보 출처에 접속하는 것뿐이다. 그 밖에도 데이터는 이용할 때 왜곡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

**보편적 참여:** 데이터의 접근과 이용에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완전성과 시의적 관련성:** 데이터베이스는 완전하고(즉 객관적 그림을 보여주고), 시의적 관련성이 높은 (뒤쳐지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를 다루는 데 꼭 필요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 영어 구사력
- 온라인 검색 엔진의 작동 원리에 관한 이해
- 스프레드시트 작업 능력. 디지털과 텍스트 형태의 방대한 데이터를 MS 엑셀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
- 수학과 통계학 지식
- 법률적 리터러시

언론인이나 행동가, NGO 종사자가 현대적인 기술력을 보유하면 상당한 장점을 지니게 된다. 이 능력은 오늘날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다. 흥미롭고 현대적인 저널리즘/발간물/정보 자료를 생산하고, 언론인으로서 조사를 수행하거나 심지어 프로모션 캠페인을 진행할 때도 새로운 접근 방식과 지식은 필수적이다.

오늘날 언론인이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단지 좀 더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기술 전문가와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기 위해서다. 전 세계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초 지식은 언론인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HTML 지식과 가장 단순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R’을 이용한 프로그램 능력은 언론인에게 새로운 수준의 자유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해준다.

#### 연습 문제 4.

1. 이 표를 MS 엑셀에 입력하라.

경제 활동별 GDP 생산				
	10억 슴(우즈베키스탄 화폐 단위)		양적 성장 지표 (%)	GDP 성장에 미친 영향(%)
	2018년 1-6월	2019년 1-6월		
GDP 전체	175,367.5	222,022.0	105.8	5.8
이하 세부항목				
총부가가치(GVA)	153,273.9	199,857.5	105.8	5.1
농업/임업/수산업	41,767.0	48,552.4	102.1	0.5
제조업	41,548.5	60,601.6	106.9	1.6
건설업	11,226.7	15,215.9	120.0	1.3
무역/숙박/요식업	12,178.2	14,360.7	104.1	0.3
교통/물류/정보· 커뮤니케이션	14,170.4	16,401.6	105.1	0.4
기타 서비스 산업	32,383.1	44,725.3	105.4	1.0
상품에 대한 순과세	22,093.6	22,164.5	105.9	0.7

62

2. GDP 기준으로 가장 호황을 누린 세 가지 업종과 가장 발전이 더딘 세 영역을 찾아내라.

3. 자료를 분석해보라. 어떤 데이터가 어떤 기준에서 비교 가능한지 결론을 내보라.

우즈베키스탄에 관한 통계와 데이터를 습득하는 데는 다음 자료가 유용할 것이다.

- 통계청 — <https://stat.uz/ru/>
- 세계은행 데이터 —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 국제기구 데이터 — <https://stat.uz/ru/ofitsialnaya-statistika/mezhdunarodnaya-statistika/mezhdunarodnye-statisticheskie-sluzhby>

## 2.8. 정보의 시각화: 저널리즘의 새로운 특징

현대의 언론인에게 시각적 콘텐츠 사용이 중요하고 효과적인 이유는 이러한 유형의 정보 전달이 파악하기 더 쉽고, 목표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재빨리 알려주기 때문이다. 심리학 분야의 수많은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생리학적으로 인간에게는 시각 정보가 일차적이며 텍스트 정보보다 더 빨리 처리된다고 한다.

대다수의 현대 독자는 ‘시각화’되어 있어, 이미지로 구현된 정보를 더 잘 습득한다. 현대의 이용자는 정보 기술의 발전,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발전과 연계되어, 사람의 지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용한다.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날 대다수의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알고 있는가? 그렇다. 바로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화면과 같은 스크린이나 모니터다. 심지어 신문도 이제는 스크린으로 읽는다. 그리고 이 추세는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바뀌면 정보 지각의 특성도 바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크린을 통한 지각의 특성은 텍스트를 읽기보다는 스캔하듯이 보는 데 더 의존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추가로 자세히 읽을 자료를 선택할 때도 역시 미리 잠깐 훑어보고 정하는데, 여기서도 시각적 보조 자료만이 정보에 대한 주목을 유도할 수가 있다. 오늘날 데이터 시각화가 대단히 중요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시각화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한편으로는 시각적 언어(이미지, 기호, 이미지, 활자, 인포그래픽)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정보 전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각적 지각(시각기관, 지각 심리)”<sup>30)</sup>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현대의 정보 소비자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방식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된다. 시각 정보의 특징은 무엇인가? 시각화는 콘텐츠를 파악하는 과정을 더 심화시키며, 복잡한 데이터를 빠르고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잘 만들어진 시각화 자료는 텍스트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정보를 명쾌하게 보여준다.

다음은 언론인, PR 전문가를 비롯해 적극적인 모든 네트워크 이용자가 작업 시 사용하는 가장 전통적인 시각 콘텐츠 유형이다.

- 일러스트레이션
- 사진
- 인포그래픽(그래프, 차트, 다이어그램 등)

30) Rodkin, P. Visual Communications. <http://www.prdesign.ru/text/2010/visual-communications.html>



- 멀티미디어 콘텐츠(비디오, 클립, 설치 영상, 플래시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쇼, 플래시 프레젠테이션 등)
- 현대적인 시각 콘텐츠(밈, 셀카 사진)

가장 대중적이고 효과적인 자료 제시 방법 중에 인포그래픽이 있다. 인포그래픽은 시각적 요소 및 이 시각적 요소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포함하는 메시지다.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특정한 이미지의 선택은 메시지를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시각 요소를 선택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포맷은 주제에 대한 개념화를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31)</sup>

인포그래픽은 시의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흥미롭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많은 양의 정보를 표현해야 하지만 이 정보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sup>32)</sup> 인포그래픽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질 수 있다.

- 다이어그램
- 그래픽
- 표
- 카드
- 대안적 인포그래픽—일러스트레이션<sup>33)</sup>

64

시각적 콘텐츠의 대중화에 기여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소셜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이다. 여기서는 수많은 출처에서 나온 방대한 양의 정보가 흐르기 때문에 언론인과 독자, 구독자, 팔로워가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됐다. 이 중 한 예가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의 인기다. 이들은 독자에게 새로운 뉴스원이 됐고, 전통적 미디어와는 경쟁 관계에 있다. ‘140자 메시지’라는 포맷은 제목, 그리고 상호 작용이 가능한(“클릭이 가능한”) 콘텐츠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했다.

독자가 텍스트 자료에 익숙해지는 데 할애하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두가 대단히 경쟁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했는데, 전통적 미디어와 언론인보다는 독자가 여기에 훨씬 더 잘 적응하고 있다.

앞서 시도한 연습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데이터 통계 분석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계산해 얻은 숫자를 그래픽으로 시각화해 보여주어라. 이는 다이어그램이 될 수도, 원그래프나 피라미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

31) Muratova, N. (2016). Characteristics of Visual Information and Its Impact on the Audience. Materials of the workshop on Internet journalism. T.  
 32) Buzinova A.A. (2013). Visual Content of Modern PR Text. Mediascope: An Electronic Scientific Journal. Issue №4. <http://www.mediascope.ru/issues/477>  
 33) 스탠퍼드대학교의 시각 저널리즘 강좌, ‘Journalism in the Era of Data’. <http://datajournalism.stanford.edu/>

### 경제 활동별 GDP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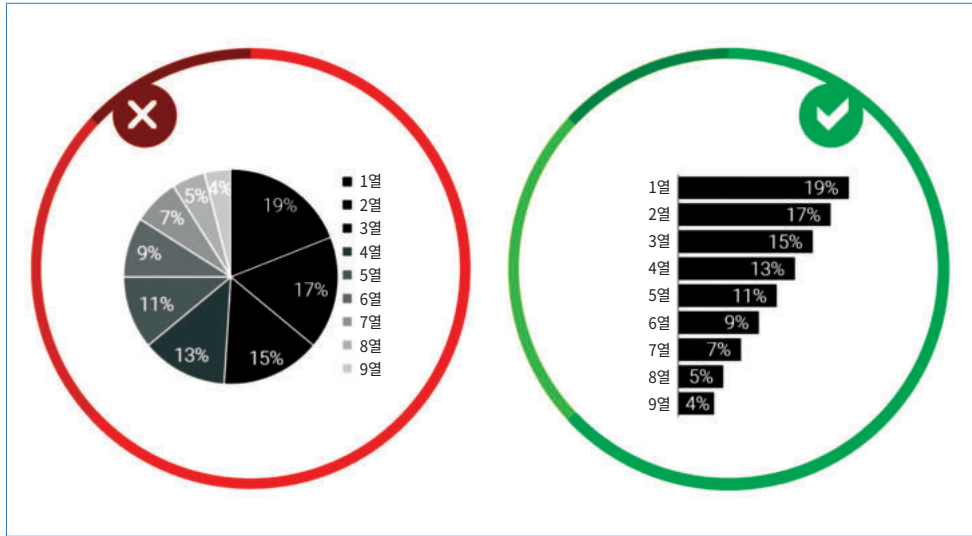
	10억 슝(우즈베키스탄 화폐 단위)		양적 성장 지표 (%)	GDP 성장에 미친 영향(%)
	2018년 1-6월	2019년 1-6월		
<b>GDP 전체</b>	<b>175,367.5</b>	<b>222,022.0</b>	<b>105.8</b>	<b>5.8</b>
이하 세부항목				
<b>총부가가치(GVA)</b>	<b>153,273.9</b>	<b>199,857.5</b>	<b>105.8</b>	<b>5.1</b>
농업/임업/수산업	41,767.0	48,552.4	102.1	0.5
제조업	41,548.5	60,601.6	106.9	1.6
건설업	11,226.7	15,215.9	120.0	1.3
무역/숙박/요식업	12,178.2	14,360.7	104.1	0.3
교통/물류/정보· 커뮤니케이션	14,170.4	16,401.6	105.1	0.4
기타 서비스 산업	32,383.1	44,725.3	105.4	1.0
상품에 대한 순과세	22,093.6	22,164.5	105.9	0.7

시각화용 통계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시각화의 주 목적이 정보의 지각을 단순화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이 점에 방해되지 않는 포맷과 그래픽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원그래프의 경우 조각이 3개 내지 5개 이상이 되면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막대그래프를 선택하는 편이 더 낫다. 실패한 원그래프 사용의 또 다른 예는 범주들의 합계가 100퍼센트가 아닐 때다. 이 경우 데이터 자체가 왜곡된 것이므로 원그래프 사용은 전적으로 잘못이다.<sup>34)</sup>

34) Bazaleva, O. 11 Rules of Data Visualization. <https://habrahabr.ru/company/netologyru/blog/341364/>

[차트 3] 올바른 유형과 포맷의 시각화를 선택해야 한다



66

시중에 나와 있는 기성 솔루션을 활용하면 시간과 돈을 적게 쓰고도 새로운 결과물을 창작할 수 있다. 지금은 자료를 출판하기 위해 별도의 서버나 복잡한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갖출 필요가 전혀 없다. 고도로 전문화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를 직원으로 대거 고용할 필요도 없다. 실로 대규모 프로젝트(예를 들면 파나마 페이퍼스<sup>35</sup>)나 달러스 포 닥터스<sup>36</sup>) 취재에는 여전히 IT 전문가 팀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사용 가능한 기성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언론인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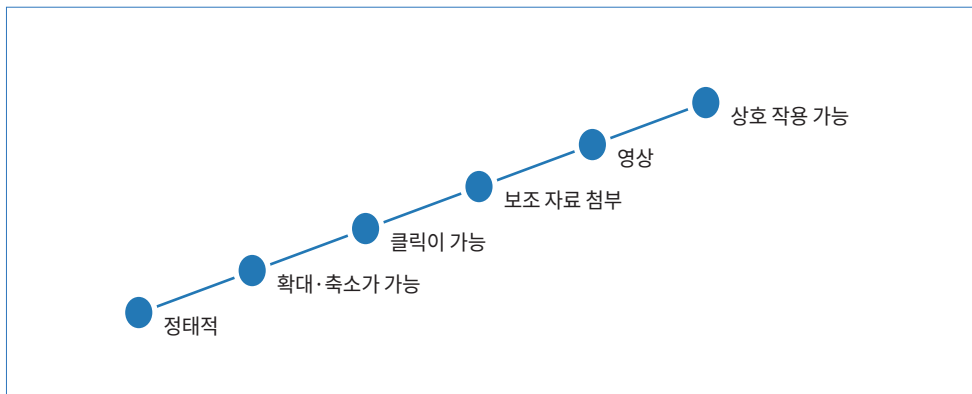
**과제:** 시각 자료 준비를 위해 다음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각각을 분석해보라. 각 항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찾아보라.

35) [역주]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는 2016년 파나마의 로펌 모색 폰세카가 관리하던 1,150만 건의 회계, 법률 문서가 내부자 고발로 유출된 사건이다. 독일 신문사가 이 문서에 관해 처음 제보를 받은 후 80개국의 107개 미디어가 공동으로 탐사보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취재에 들어갔다. 그 결과 각국에서 20만 개 이상의 기관과 지도자가 범죄, 부패, 뇌물 등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분석한 자료의 규모나 취재의 범위 측면에서 세계 탐사보도의 역사에서 이정표를 기록한 사건이다.

36) [역주] 달러스 포 닥터스(Dollars for Doctors)는 비영리 공익 탐사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ProPublica)>가 2010년부터 수행한 탐사보도 프로젝트로, 의사들의 처방전 발부 자료를 분석해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유착 관계를 파헤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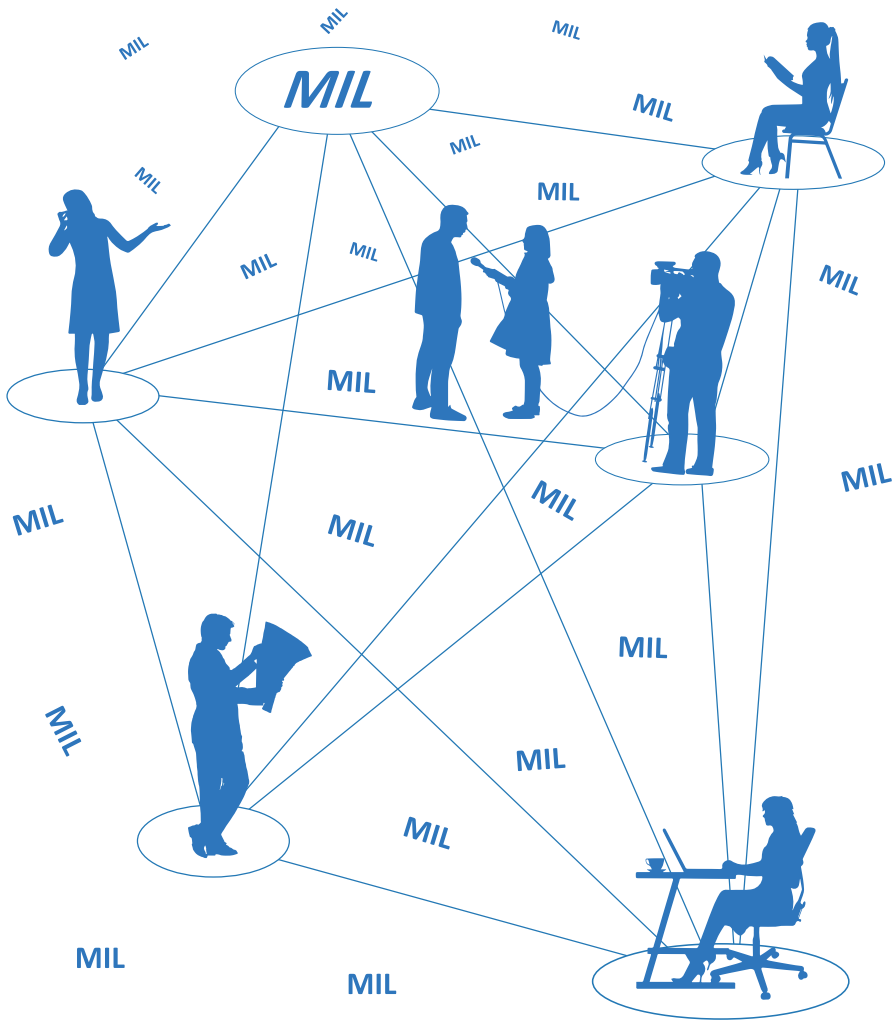
Infogram Pictochart.com	→	타임라인
Timeline JS		오늘의 숫자, 팩트와 그림, 인포그래픽, 시각화, 단순한 표
Jpen Street Map Google Maps Animaps.com Storymap JS		워드 클라우드, Q&A, 어휘 체크 리스트, 링크 추천 리스트, 인용문 추천 목록, 등급 평가
Tagul.com		정태적 지도
Tagxedo.com		상호 작용 지도, 애니메이션화한 여행 지도, 타임라인

[그림 11] 인포그래픽의 복잡성 단계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면 복잡성 정도별로 인포그래픽을 발전시킬 수 있다. 늘 보던 정적인 인포그래픽은 매우 단순할 수 있지만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3차원의 그래픽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 제3부

# 저널리즘 실무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민영 미디어 소유자뿐 아니라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미디어와 기타 정보 공급자는 MIL을 대중적인 시민 교육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심적인 존재이다. 미디어와 기타 정보 공급자의 자유, 독립성, 다원성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들과 다른 주요 관계자 사이에 생산적인 협력 관계도 필요하다. 매스 미디어(라디오, 텔레비전과 신문)와 기타 정보 공급자 모두 MIL 이슈를 영속적으로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모든 시민의 정보·미디어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디어는 MIL을 향상시키는 데 참여함으로써 수용자와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도시뿐 아니라 원격지, 농촌과 주변 집단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강화하고 반복할 수 있는 활동 유형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3.1. 저널리즘에서 왜 MIL이 필요한가? MIL을 통한 미디어 신뢰 구축

#### [박스 4] 저널리즘에서 왜 MIL이 필요한가?

\*출처: Martin Scott (2019). UNESCO Guidelines for Broadcaster on Encouraging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and User-Generated Content를 수정함.

#### 1. 정보, 미디어, 기술 문해력과 뉴스 소비자/이용자 역량 강화

사례는 아래와 이 책 전반에서 소개되고 있다.

#### 2. 미디어에 대한 신뢰 구축

수용자와의 관계를 구축, 강화하고 신뢰와 충성도를 높인다.

대중의 관심사에 대해 좀 더 잘 호응한다.

MIL 수용자는 미디어 비즈니스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단 수용자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갖추면 고품질 미디어에 대한 이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이것은 양질의 저널리즘을 옹호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 3. 대중의 목소리 존중

수용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장려한다.

미디어에 재현된 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공동체 간의 재현 격차를 줄인다.

수용자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수용자와 상호 작용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긴다.
- 수용자에게 콘텐츠 창작 도구를 제공하면 미디어 조직과 수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 언론인이 다른 방도로는 얻을 수 없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면 미디어 조직은 미디어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수용자가 제공한 돌발 뉴스 스토리 영상이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이 그러한 예다.

#### 4. 시민을 민주주의의 적극적 참여자로 만들

- MIL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미디어의 민주적 의무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 미디어는 MIL을 촉진할 역량이 있는 기관이며, 공적 논의에 시민의 참여를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5. 미래의 창의성 배양

- 미디어 부문이 성장하려면 MIL의 육성이야말로 한 국가의 창의적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미디어 제작 기술 교육은 미래의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 MIL의 육성은 수용자가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유형의 가치를 식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방안이다.

#### 6.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서의 미디어 브랜드 확립

- 소속된 미디어 조직을 양질의 저널리즘과 MIL로 브랜드화한다.
- MIL을 저널리즘 실무에 통합하고 더 나아가 MIL을 육성함으로써, 소속 조직의 브랜드를 신뢰받는 뉴스원으로 확립하고 사회 안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조치는 시청자와 독자 수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박스 5] 언론인과 미디어 조직은 어떻게 MIL을 실무에 통합할 수 있는가?

\*출처: Martin Scott (2019). UNESCO Guidelines for Broadcaster on Encouraging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and User-Generated Content를 수정함.

#### 1. 내부적인 MIL 전략 실행

- 방송과 인쇄 매체는 MIL과 UGC를 장려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시범적으로 실행해 본다.
- 미디어의 작업 방식을 대중과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한다.
- 공익을 위해 잘못된 보도를 제어하는 미디어 정책을 개발하고 정확한 보도를 촉진한다.
- 기존의 국가 미디어 정책과 전략을 검토해 MIL의 포함 수준을 살펴본다.



## 2. 수용자의 MIL 역량 구축

- 수용자가 MIL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일은 다양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정이다.
- 시민이 미디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뢰와 충성도를 갖춘 동맹을 확보해 검열과 외부 영향력에 맞서 싸울 때 도움이 된다.

## 3. 시민의 스토리텔링 역량 마련

- 독자 섹션을 마련하거나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해 독자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시민이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준다.
- 뉴스 기사 작성법, 영상 만드는 법 등의 짧은 영상을 통해 시민이 제작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청년을 대상으로 뉴스 보도, 카메라 사용, 편집 방법 등의 교육을 적극 실시한다.
- 시민에게 영상 제작이나 기사 쓰기를 통해 사실 검증 기술을 습득시키고, 뉴스 검증에 필요한 기술 사용법을 알려준다.
- MIL 교육을 위한 대외 활동에 참여한다.

## 4. 미디어와 수용자의 관계 개선

- 수용자와 미디어의 관계 개선에 힘써 이 관계의 긍정적인 잠재력과 부정적 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정보 접근과 효율적인 정보 피드백 체제를 위한 메커니즘과 규제 틀을 확립하고, MIL 활동을 통해 이 과정에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미디어 종사자를 대상으로 MIL의 장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들이 MIL 촉진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언론인과 미디어 조직은 도시, 원격지, 농촌, 주변부 그룹에까지 MIL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발, 강화, 반복될 무수히 많은 다양한 유형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
  - 공동체 미디어 및 기타 지역 조직과의 파트너십 구축
  - 쌍방향(interactive) 저널리즘
  - 공동체 워크숍
  - 카메라 보급 프로젝트
  - MIL 촉진을 위한 아웃리치(outreach) 계획 시행
  - 언론인과 청년 간 네트워크 확립

## [박스 6] 전 세계 미디어는 어떻게 MIL의 주체가 되고 있는가?

\*출처: 다양한 자료에서 발췌함.

- 하고 있는 일과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버즈피드 뉴스(BuzzFeed News)>는 윤리 강령을 개정한 뒤 수용자에게 개정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며, 자사 편집국이 윤리와 기준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 함축적이면서도 명시적인 방법으로 전달했다.
- 학교와 협력해 MIL 가르치기—체코 공화국에서 미디어교육은 이미 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다. 많은 언론인이 뉴스룸을 대표해 학교와 공동으로 뉴스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을 한다. 여기에는 콘텐츠가 어떻게 제작되며, 어떤 점에서 조작에 취약한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된다.
- 스토리텔링과 검증 기술—<뉴욕타임스>는 팩트체크를 위한 특별 섹션을 마련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공인의 진술을 팩트체크할 뿐 아니라 독자에게도 듣고 읽고 보는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권장한다.
- MIL 논의에 관여—남동부 유럽과 터키에서는 수많은 미디어 조직과 언론인이 국가의 MIL 정책과 전략에 관한 자문 활동에 참여한다.
- MIL 프로그램 방영—남동부 유럽의 공영 방송사와 민영 미디어 조직들은 MIL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 청년 대상 미디어 제작 기술 교육: 글로벌 소녀 미디어(Global Girls Media)—이 프로젝트는 미국, 코소보(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244조에 의해 설립), 남아공, 영국, 모로코 등 다양한 국가에 확산되어 있으며, 각 지역 미디어 기관이 16~25세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비디오 제작, 편집, 글쓰기와 저널리즘 기술을 숙련시키는 활동을 펼친다.
- <알 자지라>—기자들이 열흘간 요르단의 자타리 난민 캠프에서 10대들과 함께 지내며 실습 워크숍을 열어 360도 영상 제작법을 가르쳤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스스로 영화를 제작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 유럽방송연합(European Broadcasting Union)—EBU는 회원사가 실시하는 젊은 층 대상 저널리즘 훈련을 지원한다.
- 미디어 수용자를 위한 옴부즈맨 설치
- 스냅챗(Snapchat)과 인스타그램 같은 새로운 소셜 플랫폼을 활용한 의견 청취—<이코노미스트>와 <텔레그래프>는 각각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을 이용해 자사 기사를 공유하고, 젊은 이용자층이 자신의 스토리도 공유하며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발언하도록 참여를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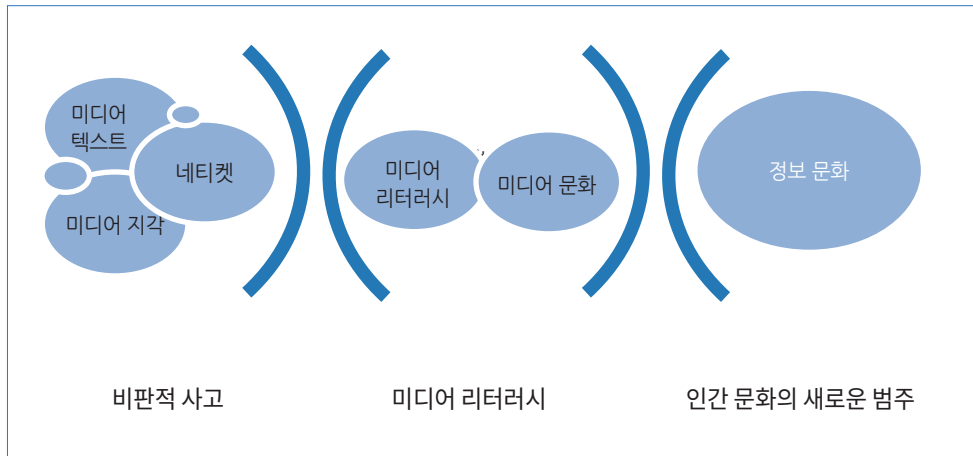
- 젊은 층에게 게임을 통해 허위정보 다루는 법 가르치기(<BBC> iReporter)—이 게임은 학생들이 정보를 걸러내고, 정보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출처 확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신뢰할 만한 출처인지 판단하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수집의 장단점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됐다.
- <해시태그아워스토리(Hashtag Our Stories, HoS)>—이 회사는 언론인과 일반 대중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뉴스를 발행한다. 일반 사용자가 영상을 촬영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송신하면 HoS는 사실 확인, 편집을 한 뒤 이 영상을 스냅챗 디스커버(Snapchat Discover)를 비롯한 자사의 여러 소셜 플랫폼에 올린다. 일반 개인 누구나 시민 기자가 되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생생한 영상을 공유하고 주류 뉴스에서 잘 다루이지 않는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PBS>—미국 공영방송인 이 방송사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학습용 온라인 플랫폼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섹션이 있다.
- ‘매일 질문 하나(1 day, 1 question)’—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 텔레비전>에는 매일 1분 30초 동안 뉴스와 관련된 어린이의 질문에 쉽고 재미있는 설명과 그림으로 답변하는 코너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어린이가 자기 스스로 추론하고 핵심을 파악해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 ‘언론인? 그리 쉽지는 않아!’—<프랑스 텔레비전>. 이 프로젝트는 저널리즘의 다양한 측면을 해설과 함께 소개하면서, 시청자가 이 직종을 더 잘 이해하고 잠재적 변화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가령 정보 발행 속도와 이 분야의 경제적 현실, 그리고 대중의 기대는 글자 그대로 이 직업을 바꿔놓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 ‘정보의 공동작업(La Collab de L’Info)’—<프랑스 텔레비전>이 추진한 전례 없는 공동 작업이다. <프랑스 텔레비전>의 간판급 언론인 15명이 15명의 인기 유튜버와 함께 팀을 이뤄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기초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본다.

오늘날 미디어의 입장에서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가장 취약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독자/시청자/청취자는 정보의 흐름대로 이끌리면서 아주 손쉽게 충성의 대상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편집자에게 이처럼 변화무쌍한 분위기는 관심의 상실, 나아가 신뢰의 상실이나 마찬가지다. 수용자의 충성도와 신뢰의 불안정성은 아마 정보의 과잉 공급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 소비가 새로운 기준치에 도달하고 모든 인구의 정보 문화가 형성되는 단계에 이르면 오히려 반대급부로서 언론이 독자의 신뢰를 얻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보 문화’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개념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다. 이는 일반적인 인간 문화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자 “일련의 정보 세계관이며 지식·기술 체계로서,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정보 기술 모두를 활용해 개개인의 정보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한 목표 지향적 개별 활동을 제공한다.”<sup>1)</sup> 미디어 문화는 미디어 분야의 물질적·지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림 12] MIL의 구성 요소



“미디어 교육 = 미디어에 대한 방어책 + 미디어 분석 준비 =  
미디어 기능의 중요성 이해 + 미디어 문화에 대한 의식적 참여”<sup>2)</sup>

독자와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야 할 때 미디어는 다양한 유인책을 사용한다. 이때 합법성 여부를 떠나 모든 방법이 동원되는데, 여기에는 조작을 위해 쓰인 거짓도 포함된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갖춘 독자는 비판적 분석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 품위 있고 전문적인 미디어가 독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시민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므로써 미디어의 신뢰 획득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라.

1) N.I. Gendina (2012). Formation of Information and Media Literacy in the Conditions of Knowledge Society: A New UNESCO Initiative and the Problems of the Russian Information of Education. Pedagogy. Psychology. Issue № 1, pp.140–61.  
2) Vartanova E.L., Zasursky Ya. N. (2003). Russian Module of Media Education: Concepts, Principles, Models. Information society, № 3. pp.5-10.

[표 3]

독자/시청자 역량*	미디어가 얻게 되는 신뢰
사실과 허구, 광고, 기타 미디어 콘텐츠 유형의 차이 이해	전문 미디어는 광고와 대가성 정보에 항상 표시를 하며, 편집위원회나 저자의 입장은 돈으로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높은 차원의 신뢰 수준으로 나아간다.
다양한 장르와 내러티브 기술에 익숙하고, 미디어 콘텐츠는 저자와 이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을 인지한다.	다양한 미디어의 저자들을 이미 알고 있고, 저자의 텍스트는 해당 매체에서 발행되자마자 어느 정도 신뢰를 얻는다. 인정받고 신뢰성 있는 저자라면 수용자는 해당 미디어를 더 신뢰하게 된다.
정보를 분석, 평가, 통제할 수 있고, 미디어가 작동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미디어의 구조를 잘 알고, 미디어 콘텐츠 표면 아래 숨은 의도를 인식할 능력이 있다.	수많은 하루살이 미디어는 쉽게 창간할 수 있고 주목을 끌기 위해 값싼 기술을 사용한다.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는 두드러지고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결국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얻는다.
미디어 메시지에 의문을 던지고, 고정 관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	독자가 질문을 던지면서 의문을 품게 될 때 이 점은 매우 중요해진다. 미디어가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독자의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미디어의 상업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알고 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목적에 따라 다른 정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중요하다. 독자는 비교를 위해 전문성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다른 관점 역시 찾아보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몇 차례 거치게 되면 다른 매체에 비해 확고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정보원의 목적과 목표 수용자를 판단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 가치, 중립성, 개방성을 평가할 수 있다.	모든 미디어는 일정한 정보원에 의존한다. 만약 독자나 시청자가 ‘출처’, ‘익명 출처’ 등의 개념에 익숙하다면, 신뢰할 만한 출처에 근거해 작업하는 미디어와 그렇지 못한 미디어의 수준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간행물이 소문과 즉흥적인 가짜 정보에 의존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 변화하는 세계에서 총체적인 개념으로서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 3.2. MIL 관련 미디어 협회, NGO, 규제 기관

수많은 국가, 조직, 사회, 미디어가 MIL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로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MIL이 모두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널리 실행되어야 할, 21세기를 살아가는 필수 역량으로서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는 같은 목표 아래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유네스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 미디어 리터러시 위원회(European Media Literacy Commission)와 같은 국제 조직은 MIL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프로젝트의 이행과 촉진에 중점을 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들의 노력은 개념을 상세하게 발전시키고, 철저한 토론에 착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국가 교육 체제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도입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토비아스 플레센캠퍼(Tobias Flessenkemper) 유럽평의회 베오그라드 사무소장이 말했듯이, “특히 어린이들은 안전하면서도 흥미로운 미디어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명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들 국제 조직의 적극적인 노력은 규제 기구들로 하여금 신뢰할 만한 미디어 환경 개발을 위해 여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책임성을 가지며, 국가 간 경험 교류에도 힘쓰도록 하는 길잡이가 된다.

### 유럽 국가의 경험

모든 민주적 과정의 전제 조건은 식견을 갖춘 시민이다. 유럽 국가의 전자 미디어와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에 대한 최근의 비교 분석 연구 결과는 이것이 타당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유럽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몇 가지 실천 사례를 제시하고 특히 핀란드 모델에 초점을 맞추어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규제 기구를 비롯한 모든 관련 주체의 참여를 이끄는 방안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핀란드에서는 어린이와 젊은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즉 유치원과 학교 뿐 아니라 도서관, 게임방, 청소년센터, 심지어 가상공간 속 공동체와 디지털 게임에서도 미디어교육을 제공한다.

핀란드의 MIL 개발 과정에 나타난 구체적인 특징은 미디어교육의 실행과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접근 방법을 결합하려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정부 기구, 학교, 학교 행정, 학계, 그리고 NGO 같은 제3자들 간의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마련됐다. 핀란드 미디어교육협회(Finnish Society for Media Education)는 전국적인 규모로 연구와 실천을 지원하며([www.mediaeducation.fi](http://www.mediaeducation.fi)), MIL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sup>3)</sup>

3) I.V. Zhilavskaya and T.N. Vladimirova (Eds.) (2014). Media Education as a Factor of Optimization of the Russian Media Space: Collective Monograph. — M.: RIC MGGU named after M.A. Sholokhov, p. 420.

1990년대에 싹튼 미디어교육 개념은 ‘캠프’로 규정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더욱 발전해 나갔다. 기술 캠프는 기술적 해결책, 즉 학습 과정에서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 활용을 목표로 삼았다. 보호 캠프는 미디어가 사람에게, 특히 어린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했고, 부정적인 미디어 콘텐츠로부터의 보호라는 이슈를 다루었다. 문화 연구 캠프는 영국의 문화 연구 운동에서 영향을 받았다. 비평 캠프는 미디어와 관련해 비판적 교육과 참여, 저항 전략 문제를 활동의 토대로 삼았다.

오늘날 핀란드에서는 수많은 조직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에 관여하고 있는데, 것처럼 작은 나라로서는 인상적인 일이다. 핀란드에는 거의 100개에 달하는 다양한 MIL 조직이 존재한다. 이는 정규 교육, 청년 활동, 도서관, 다른 공공 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수행되는 미디어교육은 제외한 숫자다. 흔히 이 조직들은 MIL 촉진을 업무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으며, 고유의 구체적인 전문 영역 속에 통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립시청각연구소(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는 교육문화부 산하 기구로서 미디어 교육 촉진 임무를 맡은 미디어교육 기구다.

국가교육위원회(National Board of Education)는 핀란드의 교육과정 개발을 담당한다.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와 핀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Finnish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gency)은 담당 업무의 일부로서 MIL에 기여한다.

핀란드미디어교육협회는 미디어교육 관련 NGO 중에서도 핵심적인 조직으로서 특히 연구와 실천 간의 괴리를 메우는 교량 역할을 한다.

핀란드도서관협회 역시 미디어교육 분야에 매우 적극적 역할을 담당한다.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게임 기반의 교육 영역을 주로 담당하며 노년층의 미디어 기술 습득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조직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 및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촉진 활동을 벌인다. MIL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활발한 전국 청소년 업무 서비스 기구는 청소년정보상담개발센터(Koordinaatti), 전국온라인청년작업개발센터(Verke), 핀란드청년연구네트워크 등이다. NGO 중에는 만네르하임리그(Mannerheim Children's Protection League), 오피킨르요개발센터(Opinkirjo Development Centre), “세이브더 칠드런” 핀란드(Save the Children Finland), 핀란드부모연맹(Finnish Parents League)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NGO는 흔히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가 적고 도시 거주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핀란드에서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문화·예술 단체는 수십 년 동안 미디어교육 분야에도 매우 활발하게 참여해왔다. 어린이 문화 센터는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지역에서 미디어교육을 수행하는 수많은 조직을 결집하고 있다. 특히 영화 교육

은 핀란드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예를 들면 학교영화협회 코울루키노(Koulukino)와 메트카미디어교육센터(Metka Centre for Media Education)는 MIL의 일환으로 영화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국립시청각연구소는 영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핀란드 시청각 문화의 위상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격상시켰다.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운동은 미디어 기업과 협회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핀란드 공영방송인 <윌레(YLE)>는 수년에 걸쳐 교육 프로젝트와 미디어 자료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핀란드의 미디어 산업 연맹인 핀미디어(Finnmedia)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MIL 개발을 조직의 전략적, 사회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핀란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모델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은 바로 팀워크다. 이 모델의 핵심 요소는 다양한 조직과 행위자 간의 협력이다. 공동 작업으로 일궈낸 핀란드 미디어 교육의 성공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핀란드의 MIL 전문가들은 연구, 실천, 정책 개발 과정에서 국제적인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MIL 활성화 운동은 유럽연합, 유럽평의회, 유네스코가 마련한 프로젝트를 통해 북유럽,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MIL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를 찾는 각 관련 조직이나 연구자는 핀란드의 전문가와 접촉해볼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Media Literacy Week, MLW)은 매년 2월에 개최되며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각료, 정부 기구, 통신사, 데이터 보호 기업, 미디어 기업, NGO를 포함해 약 40개의 조직이 이 행사에 함께 하는데, 이들은 관련된 주제, 캠페인, 정보 자료와 MLW 행사 등에 참여하며 협력을 실천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 행사의 주관 기관은 국립시청각연구소이다([www.mediataitoviikko.fi](http://www.mediataitoviikko.fi)).

전국 게임의 날(National Game Day, NGD)은 게임의 장점, 의미, 그리고 게임이 플레이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는 수많은 이벤트를 마련한다. 이날에는 디지털 게임에 관한 공개 토론이 펼쳐지며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게임을 하도록 권장한다([www.pelipaiva.fi](http://www.pelipaiva.fi)).

미디어교육 전문가 포럼(The Media Education Forum for Professionals)은 MIL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 의사 결정권자, 정부 관리, 현직 종사자가 만나는 토론의 장이다. 포럼은 부문별 파트너십과 지역별 협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립시청각연구소에서 주관한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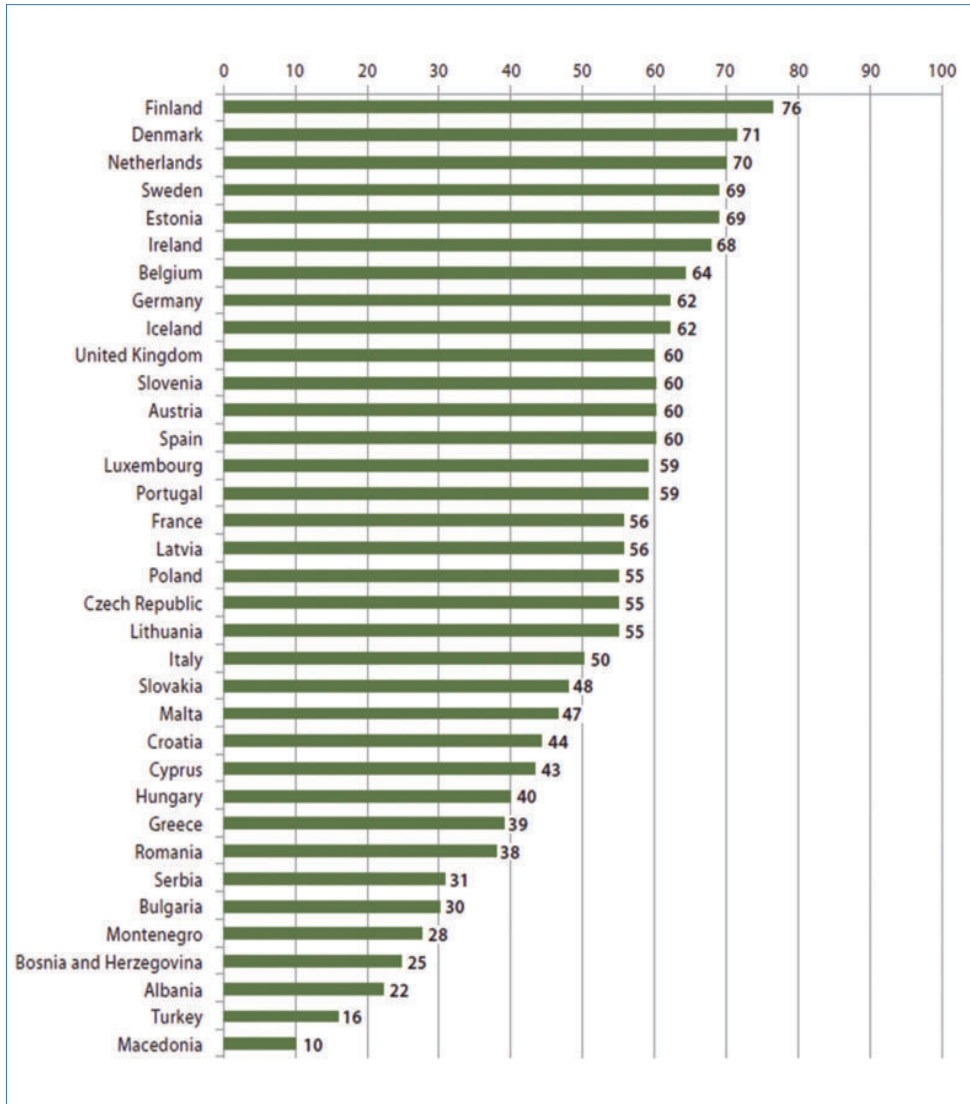
특정 국가에서든 국경을 훌쩍 넘어서든 MIL 역량 증진에 힘쓰는 행사나 조직은 무수히 많다. 핀란드의 경험은 개발도상국 및 각 사회에서의 MIL 개발 전략 수립에 있어 훌륭한 학교의 역할을 한다.

4) [www.kavi.fi](http://www.kavi.fi): Finnish Media Education의 자료에 근거함.



미디어와 공공 기관의 긴밀한 협력하에 진행되는 광역 지역 간의, 혹은 지역 단위의 MIL 프로젝트에서는 연구 수행, 도구 개발, 의견 및 경험 교환 등이 이루어진다. 종합적인 척도 중의 하나로 2017년에 고안된 MIL 지표가 있다. 이는 유럽 지역 각국에서 ‘탈진실(post-truth)’,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 및 그 영향에 대한 저항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해결책

[차트 4] 2018년 미디어 리터러시 지표



\*출처: Marin Lessenski (2018). Common Sense Wanted Resilience to ‘Post-truth’ and Its Predictors in the New Media Literacy Index.

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sup>5)</sup> 2018년 미디어 리터러시 지표에는 유럽 35개국을 대상으로 왜곡 정보와 그 부정적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주된 가정은 미디어 자유, 교육의 질, 대인 간 신뢰도, e-참여 등의 지표가 뉴스 위조, 탈진실, 그리고 관련 현상에 대한 대중의 거부 수준을 예측하는 잣대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6)</sup>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차트 4), 잘못된 정보·허위정보와 그 영향에 대응할 준비가 가장 잘 된 국가는 북서 유럽 국가, 즉 노르딕 국가들<sup>7)</sup> 및 네덜란드와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교육 수준, 미디어의 상태, 대중의 신뢰, 새로운 참여 도구의 이용은 미디어 리터러시 평가에서의 주요 지표였다. 참고로 이 지표들은 각기 중요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했다. 이 중 미디어 자유와 교육 지표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대중의 신뢰와 e-참여는 전반적인 평가에서 나머지를 차지했다.

**[표 4] MIL 지표의 방법론적 준거<sup>8)</sup>**

지표	%
<b>미디어 자유 지표</b>	
프리덤하우스의 언론 자유 등급	20%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 자유 지표	20%
<b>교육 지표</b>	
PISA 읽기 리터러시 지표	30%
PISA 자연과학 리터러시 지표	5%
PISA 수학 리터러시 지표	5%
고등교육 이수자 인구 비율 (Eurostat)	5%
<b>신뢰</b>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 (Eurostat)	10%
<b>새로운 참여 형태</b>	
온라인 참여 지수 (UN)	5%

5) “Can This Be True? Predictors of Media Literacy and Resilience to the Posttruth Phenomenon in Europe”라는 제목으로 2017년 10월에 나온 최초의 미디어 리터러시 지표 보고서.  
 6) Marin Lessenski (2018). Common Sense Wanted Resilience to ‘Post-truth’ and Its Predictors in the New Media Literacy Index.  
 7) [역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를 말한다.  
 8) Marin Lessenski (2018). Common Sense Wanted Resilience to ‘Post-truth’ and Its Predictors in the New Media Literacy Index.

35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100점에서 0점 척도(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했다. 웹 사이트(<http://www.thecatchupindex.eu>)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최신 정보에 따르면, 핀란드(76), 덴마크(71), 네덜란드(70), 스웨덴(69), 에스토니아(69), 아일랜드(68)가 선두 주자임을 알 수 있다.

MIL 유관 단체들은 MIL 발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요 과제로 지적했다.

- 현직 종사자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수준 — 미디어와 언론인 대상 교육과정/프로그램 및 훈련, 교사·강사 훈련, MIL 및 저널리즘 교육과 관련된 기타 활동, 언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
  - 공공 정책 — MIL 관련 규제 기구 및 규제 기구의 정책과 활동의 존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권력과 규제 기구의 관여.
  - 미디어 산업 — MIL의 증진, 저널리즘 교육 및 윤리와 관련된 활동·행동 계획에서 미디어의 역할. 여기에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재정 지원과 정보, 교육, 홍보 자료 개발이 포함된다.
- 82
- NGO 부문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저널리즘 교육, 부문 간의 조율과 협력, 프로젝트 등에 관여하는 조직이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저널리즘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숫자, 자율 규제 행위자의 존재, 그들의 활동과 영향력.
  - 정보 접근을 위해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도구(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온라인 정보, 소셜 네트워크) 가용성.<sup>9)</sup>

어떤 법률과 규정이 미디어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지, 미디어 교육에서 어떤 자원이 동원 가능할지, MIL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존재하는지 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MIL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MIL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디어 주간, 페스티벌, 콘테스트, 게임, 소셜 네트워크 그룹 등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행사가 있는지, MIL 역량 부족으로 법률 위반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 대한 통계치와 통계 집계 관행이 존재하는지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면 MIL 역량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미디어·정보 리터러시가 삶의 필수적인 기술이 되어 결국 시민의 삶의 질도 개선되는 그러한 국가 수준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9) Media Literacy and Education Needs of Journalists and the Public in Albania, Bosnia Herzegovina, Macedonia, Montenegro, Serbia—Regional Report March 2017 Project “South-East European Partnership for Media Development.”

### 3.3. MIL과 언론인의 직업 윤리

여러 나라에서 저널리즘의 윤리적 원칙 혹은 현대 언론인의 ‘명예 규약’은 다양한 문서에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19년 채택된 우즈베키스탄 전국전자매스미디어협회의 헌장과 우즈베키스탄 언론인직업강령에 저널리즘과 관련된 윤리 이슈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40만 언론인을 포함하는 국제적 또는 지역 단위의 조직들은 1978년 유네스코의 후원하에 개최된 자문 회의 끝에 의기투합했다. 파리과 프라하에서 열린 제4차 자문 회의에서 “미디어와 언론인의 늘어난 사회적 책임을 감안할 때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 수행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기됐다. 최종 문서는 언론인의 직업 윤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은 각각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시민의 권리”와 “객관적 사건 보도를 위한 언론인의 책무”에 초점을 맞추었고, 세 번째는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원칙이다.

이 점은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즉, 현대의 정보 검증 기술이 독립성, 객관성, 불편부당성, 정확성 같은 일정한 윤리적 규범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간행물은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일반 대중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사실 왜곡은 객관성을 위반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이것이 의도적인 왜곡이라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인 불편부당성과 독립성을 짓밟는 행위인 셈이다. 의식적인 조작은 언론인을 정보 가해자이자 정보 전쟁 가담자로 바꿔놓는다.

시민의 미디어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에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토대인 비판적 사고가 적용되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매스 미디어의 지위를 회피해왔고 이를 핑계로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소셜 네트워크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현재 소셜 네트워크는 독립적으로 콘텐츠의 품질을 결정하며,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추론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에서 조작된 콘텐츠의 흐름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율 규제 메커니즘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 연습 문제 5.

다음 질문에 답변해보라.

1.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언론인에게는 사실 검증을 위해 이 정보를 볼 도덕적 권리가 있는가? (여러분의 답변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하라)

---

---

---

---

2. 언론인이 기술한 한 사건이 정보원의 입장에서는 극적인 성격을 지녔다(정보원에게는 비극이다). 언론인은 정보원과 어떻게 상호 작용할까? 언론인에게는 직업적 의무를 다 하기 위해 애도의 순간에 개인을 괴롭힐 도덕적 권리가 있는가? (자세하고 논리적 추론을 갖춘 답을 제시하라)

---

---

---

---

3. 언론인은 자료용으로 이용자 콘텐츠를 수집한다. 그에게는 주제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사건의 전개가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날 것임을 확증해주는 주장도 있고, 증거와 숫자도 확보했다. 그러나 이 기자가 플롯을 갖춘 드라마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자료의 세 번째 부분을 설명해야만 한다. 기자는 등장인물을 창조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실행에 옮길 권리가 있는가? (자세하고 근거를 갖춘 답변을 제시하라)

---

---

---

---

### 3.4. MIL 개발에 관한 보도: 도구와 기법

미디어는 기후 변화, 성평등, 인신매매, 표현의 자유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 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공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늘 강력한 감시견 노릇을 해왔다. 모두를 위한 MIL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적, 글로벌 차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MIL 개발에 관한 보도는 극히 미미하거나 전무한 상태다. 최근에는 허위정보가 부상하며 보도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눈에 띄고 있다.

유네스코 간행물 《MIL 정책과 전략 지침》<sup>10)</sup>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 정책과 전략은 지식 기반의, 포용적이고, 다원적이며 민주적인 열린사회 조성을 촉진한다.<sup>11)</sup> MIL 정책과 전략은 디지털 세계에서 현대의 거버넌스와 글로벌 시민성이 존립하는 데 긴요한 부분이다. 만약 MIL 정책과 전략이 없다면, 정보와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보유한 층과 보유하지 못한 층 사이에,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층과 누리지 못하는 층 사이에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갖춘 층과 그렇지 못한 층 사이에서도 격차가 나타날 것이다.”(p.12)

모든 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의 MIL 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공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도움이 필요하다. 유네스코의 알톤 그리즐이 주장한 것처럼, 유네스코는 MIL 개발과 인지도 제고 문제에 대해 미디어와 글로벌 차원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5]는 국가나 글로벌 수준에서 MIL 개발 문제를 보도할 때 미디어가 고려해야 할 이슈와 도구, 기법을 제안한다.

언론인의 작업은 1차 정보를 다루고 이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기술 발전이 눈부시게 빠른 시대에, 이 영역은 점점 더 기술에 의존해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능력도 필요해졌다.

10) Grizzle, A. & Torras, M.C. (Eds.) (2013).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Policy and Strategy Guideline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aris, Franc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25606>. [2019.8.31. 접속]. Steinerová, J. and Šušol, J. (2007), Users' Information Behaviour: A Gender Perspective. Information Research, 12(3): paper 320, Available at <http://InformationR.net/ir/12-3/paper320.html>

11) 또한 다음 문헌도 보라. Carlsson, U. (Ed.) (2019). Understanding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MIL) in the Digital Age: A Question of Democracy. Department of Journalism, Media and Communication (JMG). University of Gothenburg, Sweden.

[표 5] MIL 개발에 관한 언론 보도에서 이슈, 도구, 기법

MIL 보도에서 미디어/언론인이 고려해야 할 개발 관련 이슈	도구와 기법
<p>MIL의 개발 맥락에 관해 조사해 보도하고, MIL이 어떻게 해서 지식 사회, 교육, 민주주의, 평화, 건전한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발전 전반과 관련이 있는지 대중이 깨닫도록 지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LID Yearbook 2015: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li> <li>- Understanding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MIL) in the Digital Age: A question of democracy</li> <li>- MILID Yearbook 2016: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Reinforcing Human Rights, Countering Radicalisation and Extremism</li> </ul>
<p>MIL 촉진 활동을 하는 미디어와, 이 활동이 미디어-수용자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관해 조사해 보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신문협회(WAN-IFRA)의 130개 미디어 조직 표본 대상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li> <li>-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Journalism Students and Professionals</li> <li>- Dilevko, J. (1998). Bibliographic Instruction and Mass Media News Literacy: A Theoretical Background. Library Quarterly, 68(4), 431-474.</li> <li>- Research, Resource and Ideas to Improve Journalism. (n.d.). Journalism.org [2019.12.1. 접속]. <a href="http://journalism.org/">http://journalism.org/</a></li> </ul>
<p>국가적 MIL 정책 필요성에 대해 보도하고 토론을 장려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Policy and Strategy Guidelines</li> </ul>
<p>국가적 MIL 정책 시행 국가 및 이 정책의 이행 현황에 관해 조사해 보도한다.</p>	
<p>MIL이 시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 결과를 조사해 보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li> <li>- Journal of Information Literacy (JIL)</li> <li>- Journal of Media Literacy Education (JMLE.org)</li> </ul>

한 가지 변치 않는 규칙이 있다. 언론인은 회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인은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자신이 전파하는 정보를 검증해야만 한다. 전문 언론인뿐 아니라 길거리의 일반인도 정보 흐름을 만드는 창작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토대는 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됐다.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막는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정보원을 확인하라(누가 정보를 배포하기 시작했는가, 내가 이 정보원을 신뢰할 수 있는가). 대안적 증거나 기존 정보를 부정하는 근거를 찾아보라(만약 그 사실에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면 적어도 세 개의 독립된 정보원이 필요).
- 정보원이란 원래의 발언이나 행동의 출발점이 된 사람이다. 사건에 참여한 사람(목격자)일 수도 있고, 원 출처와 친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역량있는 관계자에게 논평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쓸 데 없는 일이 아니다. 사실은 논평과, 텍스트는 맥락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 반대 측 의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정보원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정보원들이 똑같은 의견을 고수할 때 언론인은 편향될 위험성에 빠진다. 반대 시각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시할 출처의 숫자는 기사의 품질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입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적어도 두 측면, 양극단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해 관계자의 지도를 그려보고 이슈에 관계된 당사자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
- 사실의 정확성은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  
 감정은 언론인에게 아주 위험한 적이다. 정보를 다룰 때 언론인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건전한 의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일반적 분위기, 동정심, 희망적 생각에 넘어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영원히 시간의 압박을 받으며 작업하는 모든 현대 언론인에게는 특히 그렇다. 만일 허위정보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따끈한’ 뉴스를 터뜨리고 싶은 욕망과 싸울 필요가 있다.
- 소셜 네트워크에서 얻은 정보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에는 사건의 증언/목격자로부터 아주 빨리 소식이 전해지고 흔히 다양한 의견을 드러내는 댓글도 무수히 많이 달린다. 덕분에 언론인의 작업이 수월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의 정보는 적어도 세 가지의 독립된 출처를 통해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 모든 종류의 검증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저널리즘은 현대의 정보 환경에서 비롯되는 갖가지 도전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과 도구도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의 노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웹 사이트도 상당히 많다. 또한 거짓, 정보 조작과의 투쟁에서 선두에 서 있는 네트워크 공동체들도 있다.

<http://factchec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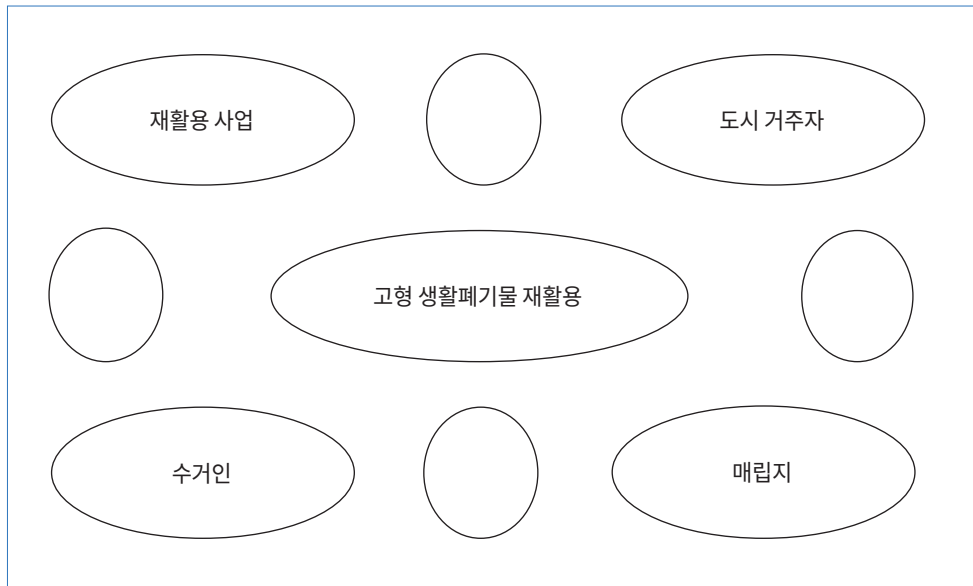
<http://www.accessify.com/visit?domain=faktograf.hr>

<https://anhor.uz/MILplus>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사실과 출처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확인해보라.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면 개인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다. 정보의 출처를 확인해서 가족, 친지, 친구와 접촉해보고 동료나 지인과의 인터뷰해보라.

**연습 문제 6.** 제기된 문제와 관련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를 지도로 그려보면서 목록에 추가하고 관계를 표시하는 선을 그려보라.

88



언론인에게 소셜 네트워크는 조사 대상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정보원이며 대중의 정서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대의 기술은 ‘천 개의 눈’이라는 현상을 창조했다. 어떤 특이한 사건이 발생하면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평범한 시민, 즉 ‘시민 기자’가 처음으로 사건을 보도한다. 물론 그러한 정보는 철저하게 진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가짜 정보, 짝퉁 사실(factoid),<sup>12)</sup> 베낀 정보를 식별하는 보조 도구로도 사용된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얻은 정보를 확인할 때에는 먼저 계정의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방법은 사실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일뿐 아니라 정보를 추가 규명하고, 세부 사항을 확보하는 데도 유용할 수 있다.

우리는 사실과 짝퉁 사실, 가짜를 구분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양질의 우수한 간행물의 편집국에서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편집 과정에서의 필터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팩트체크’란 용어로 부르는데 이는 말하자면 유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팩트체크는 이처럼 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접근 방식, 포맷, 제시 방식 등 자료의 새로운 구성 형태도 나타낸다. 실제 적용에서 볼 수 있듯이 팩트체크는 단지 출판된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자료가 된다.

저널리즘 실무에서 사실이란 명확히 규명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과 현상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확인 대상일 뿐 아니라 검증과 재확인을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팩트체크의 형식에서는 정보를 입증하거나 틀렸음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처, 검증의 알고리즘까지 보여줌으로써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란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팩트체크는 정해진 규칙에 국한되지 않는다. 책임감, 적극적 관심, 방관하지 않는 태도 등, 언론인의 개인적 자질과도 관련 있다. 물론 언론인은 미디어 지형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의 현실에서는 진실이 효과보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그래서 심지어는 짝퉁 사실도 등장하고 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이 미디어에 게재되고 온라인으로 배포되어 평가와 반응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많은 평범한 소비자들은 (미디어라는) 형태를 신뢰하며, 매스 미디어 지각 과정의 자동화와 고정 관념화에 익숙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지 않는다. 일단 신문에 게재되고 나면 진실이 된다. 텔레비전에 나오면 이 역시 진실임을 뜻한다. 웹 사이트에 올라올

12) [역주] factoid는 1973년 작가이자 언론인인 노먼 메일러가 처음 사용한 신조어다. 메일러는 “잡지나 신문에 나오기 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는 사실”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사실이라는 뜻으로 진실이 아니라 진실과 닮은 거짓 사실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짝퉁한 흥미성 사실, 토막 상식, 많은 사람이 사용하다보니 사실처럼 여겨지고 진실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진실이 아닌 사실을 의미한다.

경우 진실임에 틀림없다고 여기고, 조회수와 ‘좋아요’ 건수가 많으면 이 역시 진실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현상과 사건이 공인되고 현실화하며 사실로 지각된다. 의도적이건 우연이건 이것들은 정보의 장애 뿌리 내리고 있어 다른 사실의 증거 기반이 된다. 이렇게 해서 세계의 진짜 모습이 왜곡되는 것이다.

**연습 문제 7.** 국내 또는 해외 미디어에서 사례를 찾아보라. 자료가 게재된 미디어 이름과 제목을 붙여보라.

[표 6]

커뮤니케이션 오류. 제목, 일러스트, 혹은 콘텐츠가 관련성이 없거나 일관성이 없다.	
그릇된 맥락. 사실이 그릇된 맥락에 배치되고 이를 통해 본질을 왜곡할 때.	
조종의 맥락. 원 정보가 반응을 유발하도록 제시된다.	
풍자와 패러디. 분명히 해를 끼치려는 목적은 없으나 놀리고 싶어하는 욕망은 있다.	
애매모호한 콘텐츠. 고의로 혼동과 질문을 유발하도록 작성된다.	
가면 콘텐츠(content imposter). 출처 없는 사실 또는 출처가 사람이 아닐 때.	
날조된 콘텐츠. 해를 끼치기 위해 완전히 조작된 콘텐츠.	

### 3.5. 미디어 내부용 MIL 정책 개발과 실행

오늘날 모든 편집위원회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관련해 내부용 정보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편집국의 일원인 언론인이 자칫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배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편집인들은 내부용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을 갖추어야 한다.

2017년 2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학술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특집으로 다뤘다. 과학자 팀은 허위와 진실 구분 없이 트위터에 재게시된

12만 6,000건의 뉴스를 수집해 10년 동안의 경로를 추적했는데, 거짓이 진실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확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sup>13)</sup>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작업하는 분야에서는 합동 작업을 편집 정책 내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를 들면 정보의 정확성 재검증이라는 이슈는 팩트체크 언론인 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자극제가 됐다.

미국의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프로퍼블리카(ProPublica)>, <퍼스트 드래프트(First Draft)>와 협력하여 출범한 일렉션랜드(Electionland)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미래의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문제점과 관련해 소셜 네트워크의 비평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150명의 언론인이 근무하는 뉴욕 한복판의 대형 뉴스 허브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600명 이상의 저널리즘 전공 학생과 400명의 기자가 참여한 야심 찬 프로젝트였다. 효율적인 팀 작업을 마련해 언론인들은 매순간 정보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투표 경험에 관한 스토리를 전했다”고 이 프로젝트 책임자 클레어 워들(Claire Wardle)은 논평한다.<sup>14)</sup>

<프로퍼블리카>의 사례를 활용해 프랑스 언론인들 역시 열의를 보이며 곧 크로스체크(CrossCheck)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겼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2월 <퍼스트 드래프트>와 구글 뉴스랩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 활동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온라인 허위정보와 싸우고 유권자들의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에서 100명 이상의 언론인과 33명의 편집인이 뭉쳤다.

크로스체크 플랫폼에 올라온 각 기사에는 언론사나 정보 출처의 로고와 더불어 정확성 확인을 위한 내용 분석도 첨부됐다. 또한 기사에는 ‘진실, 거짓, 주의, 부분적으로만 신뢰, 주의’ 등이 표시됐다. ‘거짓 정보’ 표시의 경우에는 조롱(농담), 불완전한 정보, 정보 조작, 날조된 정보, 왜곡성 콘텐츠, 잘못 해석된 정보 등 정보의 왜곡 유형에 관해 자세히 평가해 놓았다.<sup>15)</sup>

13) Kozlovsky, B. Maximum. Repost: How Social Networks Make Us Believe the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 M.: Alpina Publisher, p.198.

14) firstdraftnews.com/crosscheck-findings

15) Smyrniotis, N., Chauvet, S., & Marty, E. (November 2017). The Impact of CrossCheck on Journalists & the Audience.



\*출처: <https://www.poynter.org/channels/fact-checking>

언론사의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터연구소 산하에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IFCN)가 설립됐다. IFCN은 전 세계 팩트체커들의 협력을 위한 조직으로, 이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팩트체크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됐다.

IFCN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sup>16)</sup>

- 전 세계의 팩트체크 추이, 포맷, 정책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이와 관련한 기사를 발행한다.
- 팩트체크의 기본 기준과 원칙을 장려하며 팩트체크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팩트체크의 혁신적 발전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례 장학금과 지원금을 제공한다.
- 글로벌 팩트(Global Fact)라는 연례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국제적 차원의 공동 팩트체크를 장려한다.
- 실제 팩트체크 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위에 언급한 공동체와 온라인 사이트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콘텐츠의 진실성에 관심이

16) <https://www.poynter.org/channels/fact-checking>

많고, 정보 왜곡을 뿌리 뽑으려는 다양한 노력을 외면하지 않는 언론인과 전문가를 연결해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각 사회 구성원이 개인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역량 중 하나”<sup>17)</sup>다. 그리고 “그 리터러시는 지식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안정 뿐 아니라 성공적인 직업 및 일상 활동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sup>18)</sup> 따라서 어떤 미디어에서든 취업 인터뷰에서 저널리즘 구직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은 필수 항목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용자와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질 높은 미디어 콘텐츠 마련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언론인을 고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채용 후에도 언론인의 적절한 직무 수준을 확보하고 창의적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를 편집국 내부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내부 편집 정책에 필요한 또 다른 원칙은 언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연대다. 미디어교육 개발 과정에서 언론인들은 흔히 저항에 부딪치고 심지어 동료들 간에 갈등도 발생한다. 이 경우 연대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편집국 차원의 통일된 접근을 취해야 한다. 오늘날 언론인과 독자 사이에는 높은 수준으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정책은 모든 편집국에 정착되어야 한다.

### 3.6. 온라인 인권, 시민 교육 도구로서의 MIL과 저널리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원칙은 수많은 기본 인권 원칙을 거울처럼 반영한다. MIL은 새로운 온라인 현실에서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이자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비교표의 예에서 보듯이, MIL의 주된 메시지는 미디어 정보라는 공간에서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MIL 프로그램은 특정 집단(가령 이민자나 난민)이나 소수 집단(종교, 인종, 종족별 집단,

---

17) Zhilavskaya, Irina Vladimirovna (2011). Media Information Literacy as a New Direction in Media Education. Magister Dixit., №3. URL: <https://cyberleninka.ru/article/n/mediainformatsionnaya-gramotnost-kak-novoe-napravlenie-v-mediaobrazovanii>

18) Gendina, N.I., Kolkova, N.I., Starodubova, G. A., Ulenko Yu. V. (2006). Formation of an Information Culture of a Person: Theoretical Substantiation and Modeling of the Content of an Academic Discipline. M.: Interregional Center for Library Cooperation. M.: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библиотеч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장애인 집단)에 대한 증오, 젠더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증오를 조장하는 캠페인과 운동에 대해서 온라인 이용자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MIL 원칙		인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발견하는 능력	↔	정보 접근 권리
악의적이고 과도한 콘텐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	프라이버시 권리
대안적 정보원을 활용해 정보를 검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	선택의 자유 권리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정확하게) 이용하는 능력	↔	사상의 자유 권리
법적 요구 사항에 맞춰 정보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전파하는 능력	↔	정보 전파의 권리

94

인권과 관련해 가장 파괴적인 현상 중 하나는 혐오 발언(hate speech)이다. 공격적인 발언과 존엄성 모욕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쉽게 복제가 가능하고, 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처벌할 수도 없는 혼합 형태로 진화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허위 사실과 이야기, 사진 혹은 기타 유형의 스토리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갖추지 못한 보통의 이용자는 날조된 정보에 쉽게 속아넘어가서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둔 운동을 무의식적으로 지지하거나 때로는 일조하기도 한다. 언론인으로서 우리는 혐오 발언을 가장 먼저 인지하여 미디어에 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과 부정적 결과를 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반박성 주장, 대안적 이야기와 견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미디어의 임무이기도 하다.

또 다른 시급한 과업은 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다. 인터넷 덕분에 개인 데이터를 포함해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쉽고 빨라졌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심코든 개인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상품과 서비스 구매, 놀이, 공부, 세금 납부를 위해 우리는 네트워크에 개인 데이터를 입력한다.

사회적 상호 작용 역시 웹에서, 예컨대 소셜 플랫폼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물론 새로운 기회가 생겨났지만 프라이버시 면에서는 위험한 일이다. 인터넷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양한 목적과 삶의 가치를 지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데이터가 자유롭게 흘러 다닐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의 무한한 속성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의식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이유가 된다.

### 3.7. 미디어 콘텐츠 창작: 수용자와의 소통을 위한 MIL의 목적, 방법, 촉진책

매일매일 업무에서 언론인은 디지털 플랫폼과의 연계를 점점 절감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고, 선전과 바이럴 콘텐츠를 널리 알리며, 이를 통해 민주 사회의 정치 및 공적 풍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들이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촉진하는 목적과 이익, 동기를 추적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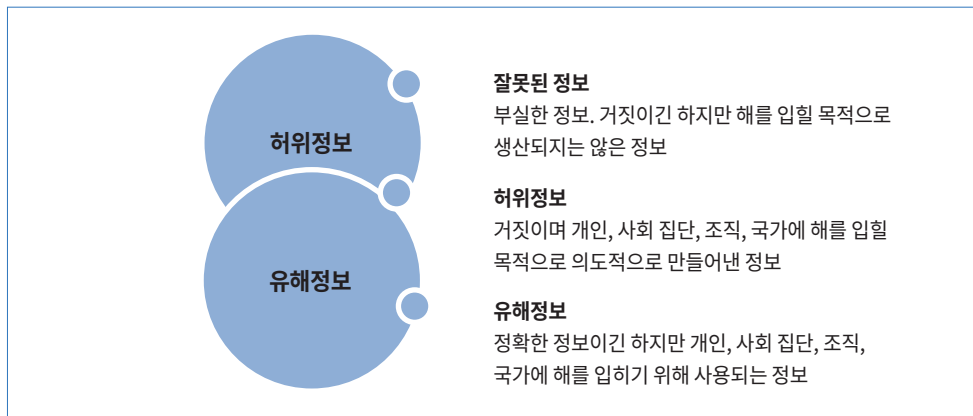
여기서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정보는 착각을 유도하는 콘텐츠이고 허위정보는 거짓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 왜곡은 흔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허위정보(disinformation)**—허위정보는 거짓이며 개인, 사회 집단, 조직, 국가에 해를 입힐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정보다.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부실한 정보로서, 거짓이긴 하지만 해를 입힐 목적으로 생산되지는 않은 정보다.

**유해정보(malinformation)**—정확한 정보이긴 하지만 개인, 사회 집단, 조직, 국가에 해를 입히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다.

[그림 13] 세 가지 유형의 정보 왜곡<sup>19)</sup>



19) Claire Wardle and Hossein Derakhshan (2017). Information Disorder. Toward an Interdisciplinary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making. Council of Europe.



위의 그림에서 세 가지 정보 왜곡 유형 모두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해를 입히려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의 흐름은 각 사회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에 몇 배나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예로는 정치 선거, 특정 지역에서의 군사 행동, 다양한 주제 이슈에 관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날짜 등이 있다.

소셜 네트워크 중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인 페이스북은 다른 많은 정보 콘텐츠 업체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 왜곡된 콘텐츠와 적극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아래에서는 잘못된 정보의 출처를 추적해서 삭제하는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정보 흐름과 사실의 정확성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국 수용자 중 14퍼센트만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콘텐츠를 얻지만 바로 이 채널을 통해 왜곡된 정보가 탄력을 얻고 재게시를 거듭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수용자를 끌어들었다.<sup>20)</sup>

## 페이스북은 잘못된 정보와 어떻게 싸우고 있나

페이스북은 플랫폼에서 잘못된 정보를 관리하는 몇 가지 다양한 정책을 갖고 있다.  
이 정책은 이렇게 운영된다.



제1단계. 페이스북은 어떻게 잘못된 정보와 싸우는가. 특정 자료의 수용자와 이용자 반응에 근거해 콘텐츠를 분석한다.

20) Alcott, H. & Gentzcow, M. (2017). Social Media and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in the 2016. Elec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2), 211-236.



\*출처: 인포그래픽 Daniel Fun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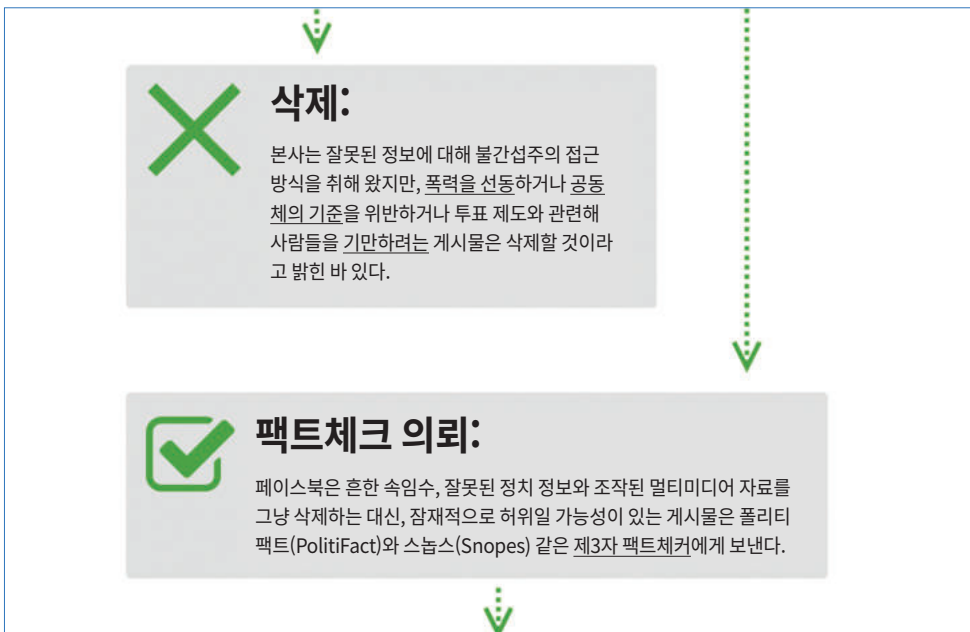
<https://www.poynter.org/news/how-facebook-deals-misinformation-one-graphic/>

제2단계. 선택 가능한 안을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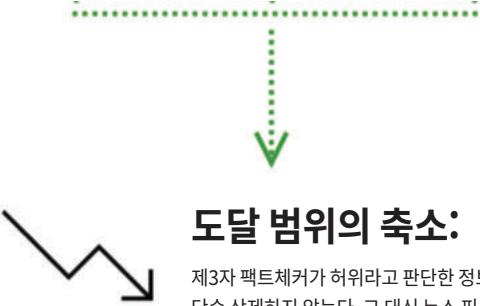
- 유권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콘텐츠
- 실제 폭력 위협을 포함한 콘텐츠
- 사회의 규칙과 법규를 위반하려 하는 콘텐츠

97

만일 여기에 해당한다면 정보를 삭제한다.



이 척도들에 비추어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자료를 팩트체크 담당에게 보낸다.



### 도달 범위의 축소:

제3자 팩트체커가 허위라고 판단한 정보일지라도 페이스북은 해당 정보를 단순 삭제하지 않는다. 그 대신 뉴스 피드에서 잘못된 정보의 도달 범위를 80퍼센트까지(제목만 허위인 기사에 대해서는 이보다 적게) 줄이고, 관련된 모든 팩트체크 사항을 첨부한다. 또한 포스팅을 공유하기 전에 팩트체커로부터 이 콘텐츠가 허위임을 확인했다는 메시지를 이용자에게 보내 경고한다. 낱조되거나 맥락이 맞지 않는 콘텐츠를 포함해 사진과 비디오는 기사와 약간 다른 등급을 부여 받는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게시한 페이지에 경고를 보내 향후 이들의 경제적 수입 창출 활동이 제약받을 수도 있음을 알린다.

(인포그래픽: Daniel Funke)  
(출처: Facebook)  
(최종 업데이트: 2018. 10.24.)






폴리티팩트(Politifacts)나 스놉스(Snopes)와 같은 팩트체크 서비스에서는 ‘허위정보’, ‘혼합 콘텐츠’, ‘제목만’, ‘해당 없음’ 등의 척도를 사용해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만약 허위 정보성 조작된 콘텐츠가 탐지되면, 페이스북은 이 자료의 수용자 범위를 감축시킨다.

소셜 네트워크는 분명 파급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준비할 때에는 그 정보가 연쇄 반응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보나 허위정보의 연결고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3.8. MIL 실습: 자체 평가 연습


우리 주변에 정보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신뢰성이 의심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료를 대할 때 일단 의심의 눈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인터넷 출처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얻은 정보는 제3의 출처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정보와 콘텐츠의 출처를 검증할 때 적합한 체크리스트로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가 개발한 것이다.<sup>21)</sup> 이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언론인은 자료의 진실성,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 매년 30퍼센트씩 증가하는 방대한 전체 정보량 가운데서 특히 외톨이처럼 고립된 자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도구를 활용해볼 수 있다.<sup>22)</sup>

<p>(1) 출처를 확인한다. 해당 정보가 어디서 온 것인지 반드시 파악하라. 단순 제목이든, 사진이나 링크든 어떤 정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p>   <p>전통적 신문에 대해서도 의심 품을 수는 있겠지만, 신문은 정당한 정보 출처다. 신문은 현장 언론인에게 의존하며, 만약 허위정보를 실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p>	<p>1. 출처를 확인하라. 어떤 출처에서 정보가 전파됐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제목, 사진이나 링크의 점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p>
<p>(2) 만약 정보의 출처가 의심스러우면 다른 사이트에서 똑같은 뉴스를 찾아보라. 만약 정보가 사실이라면 다른 매체에도 보도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p>    <p>언론사 사칭 사이트도 조심하라. 주요 신문, 잡지의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유사한 URL 주소를 사용하는 웹 사이트도 있다.</p>	<p>2. 다른 출처들과 비교해가며 이 정보를 다시 확인해보라. 신뢰할 만한 정보라면, 흔히 다른 출처에도 게재된다. 유명한 출처의 이름과 비슷한 가짜 사이트를 조심하라.</p>

21) <https://www.poynter.org/news/> Fred Fact Doesn't Fall for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Brazilian Fact-checking Platform Aos Fatos, April 2018.  
22) <https://ru.wikipedia.org/wiki>

**(3) 작성자를 확인하라.**  
 이 텍스트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자문해보라



**아무개 기자**  
 1998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했으며, 2012년부터 진실뉴스의 기자로 근무 중. 주로 이 주제에 관한 글을 쓰고 있음.


**이 기자가 쓴:**

- 당신이 방금 읽은 스토리에 관한 또 다른 기사
- 다른 주제에 관한 또 다른 기사


만약 기사에 작성자 이름이 적혀 있다면 해당 언론인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이 기자가 다른 어떤 기사를 작성했는지 확인해보거나, 만약 가능하다면 기자와 접촉해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다.

3. 작성자의 이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가 현업에서 활동 중이라면 출간 이력이 있어야 한다. 대체로 작성자의 예전 기사로 이어지는 링크도 존재한다.

이미지나 비디오의 진실성에 의문이 들면  
**(4) 구글에 문의해보라.**



그냥 구글 검색창에 이미지를 붙여다 붙이면 된다.  
 -아니면 레브아이(Reveue) 확장자를 사용해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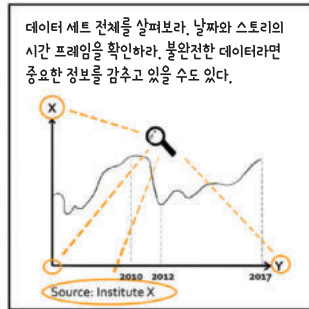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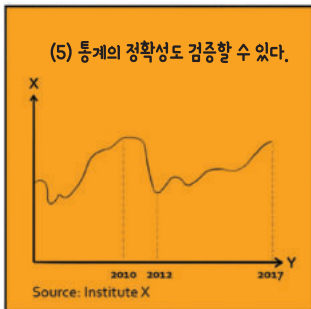


**Youtube DataViewer**

Video URL

비디오는 유튜브 데이터뷰어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도 있다.

4. 사진이나 비디오의 진실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파일을 검색 엔진에 업로드 해보라. 유튜브의 데이터뷰어를 통해서도 비디오를 확인할 수 있다.



5. 통계치도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계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재미나 감성을 용인하지 않는다. 진짜 통계는 항상 논리적 순서와 시간적, 양적, 질적 데이터를 갖추고 있다. 불완전한 그림은 중요한 정보를 은폐할 수도 있다.



당신은 혼자서 아님을 명심하라! 도움이 필요하면  
(6) 전문가의 협력을 요청하라.



이미 수많은 팩트체크 사이트가 존재한다.

물론 이들도 정보의 모든 것을 파악할 (그리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슈는 대부분 가려낸다.



6. 기꺼이 도와줄 전문가를 확보하라. 팩트체크 사이트도 많다. 널리 게재되지 않은 정보는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역시 잘못된 정보와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 팩트체크 제안

안녕하세요? 작업할 거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보도된 뉴스(2018.4.4.)가 허위인 것 같은데요.  
이 기사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 확인할 기사 링크

<https://truthfulnews.com/45663451>

#### 정보의 작성자나 출처

So-and-So Surname / Truthful News

Send

질문하라: 요청을 많이 받은 내용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해주는 주문형 체크 사이트들이 있다.  
여러분의 질문이 자신들의 정책에 부합하다면, 팩트체크 해줄 것이다.

7. 작성자, 출처나 제목 정보 등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을 보내 정확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우와, 단지 뉴스가 허위인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한단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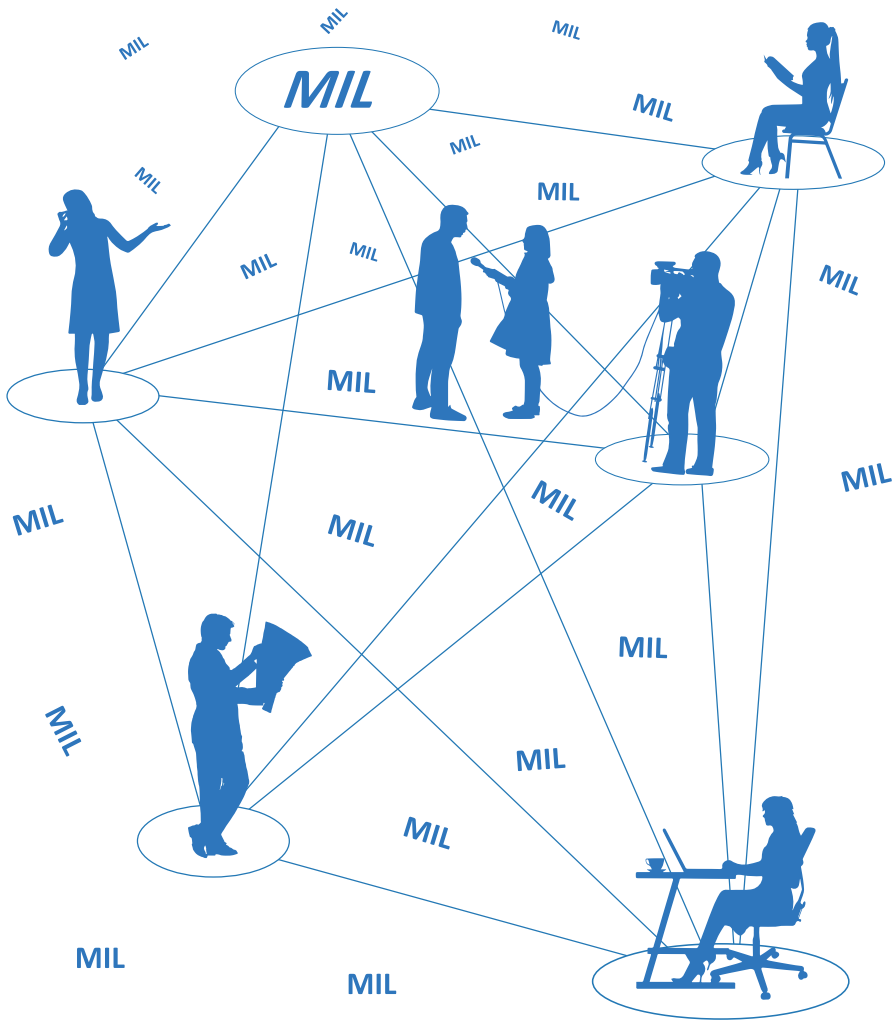


그렇다. 만약 거짓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공유하게 되면, 그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에게 도달하게 된다. 이들로써 확인하지 않는다면 다른 가족과 친구에게 전달될 것이고, 이 과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8. 수많은 정보 중 단 한 개의 잘못된 정보나 허위정보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 여러분이 지나쳐 버린 잘못된 정보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가고 그 후에 때로는 수백만 명에게 도달할 수도 있다. 허위정보는 개인이나 사회에 해악이나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나온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연쇄 반응을 바꿀 수도 있다.





## 제4부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도구 모음



### 체크리스트란 무엇인가?

체크리스트란 자체 검증을 위한 행동 알고리즘이나 간단하면서 손쉬운 도구다. 체크리스트는 작업에 필요한 중요한 요점을 놓치지 않고,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를 피하며 정보를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관리 기준과 질문 혹은 과제의 목록을 담고 있다. 이는 정보원을 다루는 언론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 매뉴얼이 제시하는 체크리스트는 미디어의 사전 제작, 제작, 후기 제작 단계에 유용할 수도 있다.

## 4.1. 체크리스트 #1: MIL 배양법

전문가들은 언론인을 위한 MIL의 핵심 역량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미디어의 훈련 담당자는 학습 과정 안에 그러한 역량이 구축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 독자 여러분은 이러한 역량이 어떻게 직무 수행 중인 언론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판단해보길 바란다. 여러분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맞추어 표의 빈칸을 채우면 된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는 ‘MIL 배양법’ 과정에서 주된 원칙이다.

저널리즘 역량	저널리즘 교육자가 이 역량을 배양하는 법 (예시를 근거로 혼자 스스로 완성하라)
스토리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역량. 플롯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	
자기감정을 단어, 이미지, 음악으로 표현하는 역량.	
다양한 역할을 구분하고 시도해볼 수 있으며, 캐릭터의 개인적 경험과 감정을 자신의 경험, 감정과 비교할 수 있는 역량.	
미디어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개성을 드러내는 역량.	
미디어에 제시된 가치, 태도와 자신의 가치, 태도를 비교할 수 있는 역량.	
미디어 메시지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음.	
미디어에 제시된 다양한 시각을 파악하는 능력, 토론 참여 역량,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능력.	예시: 다양한 사회적, 직업적 주제에 관해 토론을 마련한다.
미디어에서 사적, 공적 공간을 구분하고, 언론 자유의 원칙에 익숙해질 수 있는 역량.	
미디어에 관여하는 여러 방안이 있다는 점을 인식.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연령 제한을 구분할 수 있는 역량.	
인터넷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가상공간에서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음.	
인터넷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올바른 행동 규범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것을 준수할 수 있음.	
미디어 이용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알고 있음.	
미디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되, 인터넷의 규칙과 법규를 지킬 수 있음.	

## 4.2. 체크리스트 #2: 언론인의 보도에 MIL을 반영하는 법

아래 표에서 저널리즘과 MIL 관련 주요 원칙 가운데 가장 유사한 것과 다른 것을 찾아 보라.<sup>1)</sup>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MIL의 기본 원칙
1. 저널리즘의 으뜸가는 의무는 진실의 추구이다.	1. 진실 추구 과정에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2. 저널리즘의 첫 번째 충성 대상은 시민이다.	2.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3. 저널리즘의 정수는 검증이라는 규율에 있다.	3. MIL의 본질 또한 개인적 검증이라는 규율에 있다.
4. 저널리즘 종사자는 취재 대상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4. MIL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나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5. 저널리즘은 권력에 대한 독립적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5. 미디어가 제4부라면, MIL은 (시민에게) 제5부의 권위를 부여해준다.
6. 저널리즘은 공적 비판과 타협을 위한 장을 제공해야 한다.	6. MIL은 사람들이 공적 담론과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7. 의미 있는 사안을 흥미롭고 (시민의 삶에)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MIL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기술 탐색을 자극해,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정보와 미디어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8. 뉴스를 종합적이고 균형감 있게 유지해야 한다.	8. MIL은 사람들이 정보와 미디어의 다원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
9. 저널리즘 종사자가 개인의 양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MIL은 우리 모두의 타고난 자질인 추론과 양심을 자극한다.

1) 출처: Alton Grizzle, 미출간 저작.

### 4.3. 체크리스트 #3: 정보원 다루기

-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관련 배경이 있는가?
- 해당 주제에 관한 통계치가 있는가?
- 주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가?
- 어떤 전문가가 사실을 확인해주거나 의견을 말해줄 수 있는가?
- 지역의 전문가를 몇 사람이나 인터뷰할 필요가 있는가?
- 주제별로 국제적인 전문가는 몇 사람이나 찾아낼 수 있는가?
- 추가 자료 혹은 시각적 자료에 의한 확인이 가능한가?
- 해당 주제에 대해 데이터를 확인/반박하는 사회학적 연구가 있는가?
- 자신이 속한 매체 외에 어떤 미디어가 이 주제를 다루었는가?
- 이전에 이 주제는 어떻게, 어떤 각도에서 더 깊게/추가로 다루어졌는가?
- 기록된 정보 출처가 존재하는가?
- 수집한 자료 중 인터넷 출처에서 수집한 자료는 몇 퍼센트인가?
- 인터뷰를 음성으로 녹음한 자료가 있는가?
- 습득한 사실 중 어떤 것을, 얼마나 1면에 게재할 수 있는가? 또는 그렇게 해야 하는가?
- 습득한 사실 중 어떤 것이, 얼마나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는가?
- 제목에 포함할 만한 사실이 존재하는가?
- 시각적 보조 자료로 활용할 만한 세부 사항이 존재하는가?
- 인포그래픽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만한 정보는 있는가?
- 습득한 데이터는 여러분이 다루는 주제에 부합하는가?

## 4.4. 체크리스트 #4: 텍스트 중심의 저널리즘 기사 작성법

### 기사의 주 아이디어 작업하기 (45분)

#### 주 아이디어를 구상해보라.

다음 질문에 답변해보라: 내 기사의 주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아이디어는 짧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두 문장 정도가 적당하다. 아이디어 구상 작업에 너무 매달리지 않도록 10~15분 정도로 타이머를 맞춰두면 편리하다.

#### 예비 작업용 이름을 붙여라.

제목은 기사의 핵심을 표현해야 하지만, 그 때문에 글쓰기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제목을 다듬는 데 긴 시간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다시 작업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질질 끌지 않도록 20~30분으로 타이머를 설정해두면 도움이 된다.

### 기사의 구조 고안하기 (30분)

#### 5~7개의 부제목을 구상하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기사의 하위 주제를 적어보라. 지식 지도(intellectual map) 형태로 정리할 수도 있다. 부제목은 많이 구상할수록 나중에 좋다. 이 작업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15~20분으로 타이머를 설정해두라.

#### 3~4개 핵심 부제목을 선정하라.

주된 주제 부분을 거듭 읽어보고 거기에 근거해 주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하위 주제 3~4가지를 선정하라.

### 정확한 시간 배정과 함께 시간별 행동 계획 확정 (60분 이내)

#### 하위 주제별로 시간을 할당하라.

각 하위 주제 앞부분에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하라. 일러스트레이션 탐색 및 전체 틀 작성 문제도 고려해보라.

#### 마무리를 위한 시간을 배정하라.

마무리 작업 시간은 하위 주제 작성에 할당된 시간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결과에서는 기사에서 표현할 기본적 생각만 간결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 결과는 “이전의 시리즈에서는...” 식의 스타일로 작성해야 한다.

#### 교정을 위한 시간을 배정하라.

실수를 수정하고 보다 정확한 제목을 작성한다.

일정을 구체화하라.

채택한 계획이 기사 게재 마감 시간에 맞는지 확인하라.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기사 구성 요소 중 어떤 부분을 버릴지 결정하라.

작업 계획을 작성하고 출력하라.

소요 시간과 마감 일정에 근거해 각 작업 단계를 구체적인 날짜와 연결시킨 파일을 (텍스트나 표로) 작성한다. 실제 소요 시간을 표시할 칸도 비워두라. 계획을 출력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라.<sup>2)</sup>

## 4.5. 체크리스트 #5: 공개 데이터 다루기

데이터의 출처를 검증하라.

출처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믿을 만한 데이터라고 당연시할 수 없다.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낮은 평가를 받는다.

데이터는 어떤 포맷으로 되어 있는가?

.xls나 .csv로 끝나는 포맷은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이나 .docx이나 .pdf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109

오픈리파인(OpenRefine)이나 엑셀(Excel)을 이용해 데이터를 가공한다.

각 변인이 각각 별도의 열에 들어가도록 유의하라.

변인 설명이 각각 별도의 행에 포함되도록 하라.

다양한 집단용으로 별도의 표를 여럿 만들도록 한다.

개별 표는 공통된 열로 연결되도록 한다.

---

2) E-version은 다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 <http://checklists.expert>

## 4.6. 언론인의 MIL 노트

### 연습 문제 1.

다음의 출처, 즉 인물의 신뢰성을 검증해보라.

단계 1	해당 인물은 이러한 부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단계 2	이 인물의 메시지는 정보를 검증하는 데 적합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단계 3	이 출처는 이전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으며, 그 정보는 확인되었는가?	
단계 4	이 인물의 동기는 무엇인가?	
단계 5	공개 출처인가, 아니면 익명으로 나가야 하는가?	
단계 6	더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가 존재하는가?	

### 연습 문제 2.

110

인터뷰를 할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모호함을 조성하는 기법, 더 쉽게 말하면 정보 조작 기법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법은 ‘조작적 수사(manipulative rhetoric)’라고 불린다. 유사한 기법의 사용과 접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경험한 예를 들고, 설명해보라.

- ‘구체성이 없는 단어’는 (이 단어를 듣는)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게끔 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되는 다의적 단어를 의미한다. 그러한 진술은 구호의 속성을 지니며, 구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유와 번영을 지지한다.”

---

---

---

- ‘행위자 생략’ 혹은 추상적 인간 집단을 지칭하는 것. 예를 들면, “모든 의식 있는 시민들은 우리를 지지한다.”

---

---

---

- ‘연결 짓기 기법’은 서로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양한 사건, 사실, 현상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두마(러시아의 하원)에서 빈둥거리는 동안에도

광부의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다.”

---

---

---

- “부당한 일반화”는 “실질적으로”, “거의” 등의 단어에 의존해 일반화를 구사하고 구체적 내용을 회피하는 기법이다.

---

---

---

- “표현 바꾸기”는 발언자가 언론인의 질문에 대해 의미는 비슷하지만 대응하기 편한 내용으로 바꿔 답하면서 민감한 부분을 회피하는 기법이다.

---

---

---

- “질문의 수용 불가성 언급”은 인터뷰 대상자가 질문을 회피하고자 할 때 자신은 이 질문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질문은 대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기법이다.

---

---

---

**연습 문제 3.**

‘나의 주인공’이란 역할 놀이 하기도.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 한 인물을 정해 심리적, 인구학적, 친소 관계 특징에 따라 그의 모습을 설정해보라. 여러분이 창작한 인물의 이미지를 ‘그려보라.’



#### 연습 문제 4.

‘역사적 인물’ 게임이다. 역사적 인물을 선정해 그에 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주인공의 모습을 창작해보라.

역사적 인물	개인적 사실	역사적 사건에 관한 사실
역사적 인물	1.	1.
	2.	2.
	3.	3.
	4.	4.

#### 연습 문제 5.

포맷 선택

112

다음의 시각적 포맷의 설명 내용과 특징에 따라 두 열을 서로 짝짓기해보라.

비디오		숫자와 데이터
오디오		공통된 주제, 인물, 이슈에 따라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배열한 것
텍스트		정태적 기술
사진		중요한 논리적 정보로 이루어지는 상황 설명과 내레이션
사진 슬라이드		시간 및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
인포그래픽		시공간 속에서 변화하는 행동
타임라인		전문가 의견이나 인물의 정서적 행위 결과 여기서는 발언의 특징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작용적 지도		일련의 밝은 시각적 인상

## 연습 문제 6.

과제: 다음 웹 사이트, 출처의 신뢰성을 검증해보라.

검증 알고리즘:

단계	행동
단계 1	도메인에 주목하라. 뉴스 통신사와 미디어는 대개 독자적인 도메인을 갖추고 있다.
단계 2	기사에서는 작성자와 발행일을 명기해야 한다.
단계 3	<p>사이트에는 ‘기관 소개’와 편집국 직원 명단이 있어야 한다. 흔히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그러한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한 사이트에서는 ‘기관 소개’란에서 그러한 정보를 언급한다.</p> <p>가짜 콘텐츠 제작 엔터테인먼트 웹 사이트:</p> <p>Onion</p> <p>Fog News</p> <p>HOBOSTI</p> <p>Smixer</p>
단계 4	대다수의 웹 사이트는 ‘기관 소개’란에서 간행물의 사명을 기술한다. 만약 이 부분이 호들갑스럽고 구체적 설명 없이 너무 과장되면서도 일반적 내용이라면 의심을 품을 만한 이유가 된다. 구글을 활용해 이 미디어의 신뢰성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라.
단계 5	웹 사이트 콘텐츠에 편향성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
단계 6	콘텐츠의 제목을 분석해보라. 만약 제목이 너무 요란하다면 사이트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된다.
단계 7	자료 아래의 댓글을 살펴보라. 댓글에서 이 자료가 가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주목할 만하다.
단계 8	기사에서 논쟁적 주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없는 결론이 나오면 의심을 품어보아야 한다.

## 연습 문제 7.

과제: 사진의 진실성 검증하기.

단계	행동
단계 1	이전에 이 이미지를 발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구글 이미지 검색이나 틴아이(TinEye) 서비스를 활용해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보라. 검색된 이미지는 날짜와 크기별로 분류되어 서로 비교된다. 틴아이는 이미지가 인터넷에 올라온 날짜도 보여준다.* 가장 해상도가 좋은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검색 엔진이 원본을 빨리 찾아낼 수 있다.
단계 2	종종 가짜 이미지는 두 개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합성의 의심이 들면 어떤 그래픽 편집기든 사용해 이미지 부분을 분리한 후 각 부분을 별도로 찾아보라.
단계 3	사진 날조가 이루어질 때에는 흔히 이미지의 양쪽 부분을 연결하고 한두 부분을 회전(뒤집기)하기도 한다. 검색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미지를 그래픽 편집기로 가공해 다시 검색해보라.
단계 4	사진 감식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진이 어떻게 디지털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감식 결과는 ‘추가된 이미지 요소’와 손보거나 편집된 영역을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수정된 부분을 하이라이트 표시한 채 보여준다.
단계 5	가짜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진짜 이미지에 허위 설명을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진 캡션을 세심하게 읽어보아야 한다. 두 개의 동일한 이미지에 다른 설명이 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계 6	이미지의 출처는 파일의 URL을 통해 찾을 수 있다. 파일 이름에 긴 숫자가 붙었다면 사진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퍼왔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페이스북 사진에는 게시한 이용자 ID가 제목에 포함되어 있다.
단계 7	<p>이미지상의 시각적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는 도로 표지판, 표시, 자동차 번호판, 주택, 옷, 지형 등이 있다.</p> <p>구글맵의 거리뷰나 위키매피아(Wikimapia)는 다양한 장소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 이를 기존의 사진과 비교해볼 수도 있다.</p> <p>지오피디아(Geofeedia)란 검색 엔진은 지리적 정보를 이용해 소셜 네트워크 게시물을 탐지해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GPS를 활용해 트위터, 플릭커(Flickr), 유튜브, 인스타그램, 피카사(Picasa)의 게시물을 처리한다. 결과는 콜라주 형태로 제공된다.</p>

## 연습 문제 8.

### 계정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알고리즘

단계	행동
단계 1	사람인지 봇인지 확인하라. 개인 정보, 친구의 게시물, 간행물에 달린 댓글 여부를 확인하고, 혹은 사진만 실렸는지 주의를 기울인다. 저작권이 설정된 간행물이 없다는 것은 봇의 작품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된다.
단계 2	여러분 계정에는 게시물이 몇 개인가? 게시물이 2~3개에 불과하며 주제도 각양각색이라면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된다.
단계 3	계정이 언제 개설됐나? 종종 비판받는 게시물이 게재된 직후 트롤을 목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계정이 다수 개설된다. 또한 계정은 오래전 개설됐으나 게시물이 2~3개에 불과하다면 의심해볼 만한 이유가 된다.
단계 4	프로필은 업무나 학업, 거주 장소, 관심 영역과 관련이 있는가?
단계 5	이 이용자는 소셜 네트워크의 어떤 페이지를 구독하고 있는가? 방문한 그룹의 주제는 정보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가?
단계 6	프로필 사진 검색 결과는 어떠한가?
단계 7	이용자 별명 검색 결과는 어떠한가?
단계 8	결론을 정하고 최종 판단을 내린다.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스스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관여하고 싶어하고, 특정한 사실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자료에 대한 태도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면 작업의 다양한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아야 한다.

-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 기득권을 갖고 있는가?
-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 내 가설에 맞추어 결과를 조정하지는 않았는가?

# 용어 해설

**감정 전이(emotional transfer)**—감정이 콘텐츠에 전이되도록 조성하는 과정. 예를 들면, 코카콜라 광고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여주지만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서 이 감정을 브랜드나 제품에 투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디어 조작 과정이다.

**검증(verification)**—자신이 수용하고 전파한 정보의 적절성을 논리적 방법을 활용해 확인하는 것.

**과학적 신비화(scientific mystification)**—사람들의 필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공리주의적 성격의 간행물.

**교차 확인(cross-check)**—현직 종사자들 사이에 사용되는 상호 검증 체제.

**기만(hoax)**—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의도적으로 오도하려는 시도.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검증이 불가능한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NBC 진행자인 처크 토드(Chuck Todd)의 발언에서).

**데이터 저널리즘**—데이터 가공에 근거한 저널리즘의 한 추세로서 데이터를 이용해 저널리즘 기사를 작성한다. 데이터가 특정한 저널리즘의 이력과 출처를 폭로하는 도구 구실을 할 수도 있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발전은 방대한 데이터의 저장과 가공이 가능하도록 기술 설계가 바뀌고, 정보 개방성을 강화하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컴퓨터 과학, 디자인, 통계와 연관성이 있다.

**디지털 공격성(digital aggression)**—디지털 환경이 인간 정신에 미치는 압력. 피해를 입히거나 공격을 가하는 행동, 다른 사람의 영역 침범, 위협, 혹은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거친 행동, 무례, 일반적 통념 위반, 파괴적 행동을 말한다.

**마감 시간(deadline)**—자료 발행을 위한 최종 제출 시한.

**모큐멘터리(mockumentary)**—영어 mock와 documentary의 합성어. 사이비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칭하는 말로, 현실의 모방이 내재해 있는 장르다.

**미디어교육**—1. 매스 커뮤니케이션(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비디오)의 추이 연구를 옹호하는 교육학의 한 차원이다. 미디어교육의 주요 임무는 새로운 세대에게 현대 정보 맥락에서의 삶에 대해 준비시키고, 진짜 정보를 지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디어를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고, 미디어가 정신에 미치는 결과를 깨닫게 하고, 기술적 보조 장치를 이용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근거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안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2. 매스 미디어 자료의 활용과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개인적 발전 과정으로 이를 통해 미디어와의 커뮤니케이션 문화, 커뮤니케이션과 창의적 기술, 비판적 사고, 미디어 텍스트의 완벽한 지각, 해석, 분석과 평가 기술,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자기표현의 형태 등을 학습하고 달성할 수 있다. 이 과정의 결과로 습득된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이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영화, 신문, 인터넷 등 정보 분야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 준다.

**미디어 리터러시**—1. 미디어 텍스트를 지각, 창작, 분석, 평가할 능력과 더불어, 현대 세계에서 미디어 작동의 사회 문화적, 정치적 맥락, 그리고 미디어에 사용되는 부호화와 재현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발전된 능력을 구비해주는 과정이다. 사회와 세계에서 이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의 삶은 시민적 책임과 연관된다. 2. 미디어교육이나 미디어 학습의 결과로, (미디어를 통해) 미디어를 더 많이 공부할수록 더 많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게 된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 텍스트를 실험, 해석/분석하고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다.<sup>1)</sup> 3.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이용, 분석, 평가, 전송하는 능력이다.<sup>2)</sup>

**미디어 문화**—미디어 분야에서 일군의 물질적, 지적 가치, 그리고 그 가치들이 사회에서 재생산되고 기능하는 역사적으로 규정된 체계를 말한다. 수용자와 관련해 ‘미디어 문화’와 ‘시청각 문화’는 미디어 텍스트를 지각, 평가, 분석하고, 미디어 창의성에 관여하며,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특성 발달 수준의 체계가 될 수도 있다.

**미디어 비평**—사회가 미디어 활동에서 새로운 현실과 추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특수한 저널리즘 영역이다. 이와 동시에 미디어 비평은 현대 인쇄·전자 언론의 성찰과 자기 지식의 독특한 한 방안이자, 시장 환경에서의 ‘화려함과 빈곤’을 반영하도록 고안된 공적인 거울이기도 하다.<sup>3)</sup>

117

**미디어 신비화(media mystification)**—일련의 그럴듯한 증거의 뒷받침을 받아 정보 분야에서 창작되고 기록되는 허구적 스토리(사건 혹은 현상)이며, 미디어에는 생생한 정보 원인으로 기능한다.

**미디어 언어**—구체적인 미디어 텍스트를 창작하는 데 사용되는 일군의 표현 도구와 기법.

**미디어 역량(media competence)**—다양한 유형, 형태, 장르에 속하는 미디어 텍스트의 선택, 이용, 비판적 분석, 평가, 창작, 전달, 그리고 사회 내에서 미디어가 작동하는 복잡한 과정의 분석에 기여하는 개인의 동기, 지식, 기술, 능력 군(그 지표는 동기, 접촉, 정보 기반, 지각적, 해석적/평가적, 실천 기반/행동/창의적)을 말한다.

**미디어 영향력(media impact)**—교육과 양육, 의식 발전, 행동 형성, 태도, 반응, 대응, 정보 전파 등의 분야에서 미디어 텍스트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미디어 효과)

**미디어 지각(media perception)**—‘미디어 현실’ 지각,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저자의 감정과 생각.

---

1) Worsnop, C. (1999). Screening Images: Ideas for Media Education. Mississauga, Ontario: Wright Communications.

2) Kubey, R. (1997). Media Education: Portraits of an Evolving Field. In Kubey, R. (Ed.) Media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New Brunswick &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p.2.

3) A. P. Korochenas “The Fifth Power?” Phenomenon of Media Criticism in the Context of the Information Market. <http://old.kpfu.ru>

**미디어 텍스트**—미디어 생산의 구체적 결과물. 정보를 담은 메시지로써 모든 유형과 장르의 미디어로 전달된다(신문 기사, 텔레비전 쇼, 비디오 클립, 영화 등).

**미디어 효과**(media effects)—교육과 양육, 의식 발전, 행동 형성, 태도, 반응, 대응, 정보 전파 등의 분야에서 미디어 텍스트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미디어 영향력)

**미디어의 거짓**(media fake)—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허위정보의 계획적 전파.

**배경 정보**(background, backgrounder)—사건을 둘러싼 ‘배경’(추가 사항, 세부 사항)에 관한 정보, 사건에 선행했거나 원인이 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는 센세이션도 뉴스도 아니며, 텍스트의 제시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사항, 세부 사항이다. 대체로 배경 정보는 내러티브 방식으로 구성된 단일하고 완결된 ‘스토리’로서, 단일 주제 또는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봇**(Bots)—특수한 유형의 작성자 은폐 장치. 인터넷 이용자의 행동을 똑같이 흉내 낼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브리핑**— 특정한 이슈에 관해 공식 입장, 혹은 국제 협상, 회담, 콘퍼런스, 진행 사항에 관한 정보, 정당의 견해 등에서 관련 당사자가 합의한 입장을 미디어 앞에서 제시하는 공식 석상.

118

**블로그**(blog)—1. 인터넷 이벤트 로그, 인터넷 다이어리, 온라인 다이어리. 정기적으로 추가되는 기록을 주 콘텐츠로 삼는 웹 사이트로서, 텍스트, 이미지 혹은 멀티미디어 등이 역시간 순으로 추가되며 제3의 자료 링크에 대한 간결한 논평과 댓글을 포함한다. 블로그와 전통적인 일기의 차이는 미디어에 있다. 블로그는 보통 공개적이며 제3자인 독자를 포함하는데 이들은 저자와 공개적인 토론을 벌일 수도 있다. 2. 블로그 주인의 개인적 게시물과 이 게시물에 대한 이용자 댓글로 주로 구성되는 개인 웹사이트. 블로거(blogger)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fact)—진짜 사건에 관한 입증되고 신뢰할 만한 지식.

**삽입 기사**(insert)—자극적인 텍스트 조각이나 인터뷰에서 따온 가벼운 구절로서, 대형 활자로 작성하고 프레임이나 칸, 선을 이용해 독립된 텍스트 블록으로 장식한다. 삽입 기사는 텍스트 내부에 배치하며, 대용량의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읽기 ‘편하게’ 만든다. 리드 역할도 해서 텍스트를 읽게끔 유도한다.

**소셜 네트워크**—사회적 커넥션을 생성하고 관계를 구축하며, 정보를 가공,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 혹은 사이트다. 소셜 네트워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각자의 ‘친구’ 사이에 링크를 추적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그룹을 결성하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필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단하며, 친구가 올리는 콘텐츠에 댓글을 달 수 있게 해주는 등의 권한을 제공해준다.

**‘소프트’ 뉴스**—어떤 사건의 최종 결과가 아니라 세부 사항에 강조점을 두는 정보 제시 방식.

**수용자**(audience)—한 미디어에 대한 공통된 관심으로 결합된 독자, 텔레비전 시청자, 라디오 청취자 집단.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수용자에게 현실에 대한 부정확한 그림을 갖게 하는 특수한 종류의 정보.

**재가공(rewriting)**—여러 출처에서 텍스트를 빌려오거나, 다른 저자의 자료를 철저히 가공해 자기 나름의 오리지널 텍스트를 창조하는 식으로 뉴스와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

**정보 장난꾼(prankers)**—일종의 신분 위장 작성자로서, 익명으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기도 한다.

**훅(hook, information event, newsbreak, inject)**—커뮤니티에 정보 지원을 형성하거나 제공해주고, 다른 시각을 형성하며, 정보적 상황의 주제에 관한 시각을 교정하는 구실도 하는 사건을 말한다.

**젠더 통계**—모든 전통적 통계 영역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남녀의 현실 삶을 반영하는 통계치를 확인하고 생산하고 전파하는 구실을 한다. 젠더 정책 개발에 고려사항이 된다.<sup>4)</sup>

**팩트 사실(factoid)**—부분적으로만 검증이 가능한 기술적인(descriptive) 정보다. 실제 일어난 사건의 일부 척도만 나타내기 때문이다.

**컴퓨터 리터러시**—컴퓨터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컴퓨터 과학, 정보 기술의 기초 지식이다. 관련된 개념으로는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역량,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다.

**타임라인(timeline)**—이용자가 올린 모든 포스팅의 스토리. 이는 마치 이용자가 공개한 모든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 녹화한 테이프와 같다.<sup>5)</sup>

**트롤(trolls)**—대체로 네트워크 상호 작용의 윤리를 위반하며, 갈등 유발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행위를 구사하는 네트워크 이용자.

**트롤링(trolling)**—부정적인 이용자 반응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메시지를 게재하는 것. 트롤링은 집단뿐 아니라 개인도 도발한다. 네트워크 트롤은 집단으로 행동하기도 하는데, 서로 조율된 상태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무작위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일삼는다.<sup>6)</sup>

**팩트체크**—출간된 사실과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 간의 비밀관성을 확인하는 방식의 사실 검증.

**퍼스널리티의 정보 문화(information culture of personality)**—한 개인의 일반적 문화의 구성 요소 중 하나. 전통적 정보와 새로운 정보, 기술을 모두 사용해 개인의 정보 욕구를 최적 상태로 만족시키기 위한 표적화된 독립적 활동을 제공하는, 일련의 정보 관점과 지식 기술 체계를 말한다. 이는 지식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안전뿐 아니라 성공적인 직업적, 비직업적 활동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Gendina, N.I. 2002).

4) Development of Gender Statistics: A Practical Guide. United Nations, Geneva, 2010. p.1.

5) IQ-coaching Educational Portal. <http://www.iq-coaching.ru>

6) What is Digital Aggression. Maxim Kornev, MediaToolbox.ru expert, <http://sdelano.media/project/stoptrolls/>



## 참고문헌

120

1. Riga Recommendations on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n a Shifting Media and Information Landscape.
2. Amzin A. A. News Internet journalism. M.: Aspect Press, 2012. p.143.
3. Bakanov R. P., Simkacheva M. V., Tumanov D. V., Journalism for beginners: A text-book for university students. — M.: “AspectPress”, 2018.
4. L. Vasilyeva. Making News! — M.: Aspect Press, 2003. p.188.
5. Viren V., Frolova T. Information agencies. How News Is Made. — M.: Aspect Press, 2015. p.176.
6. Gradyushko A. A. Fundamentals of Journalism. The organisation of the Media Editorial. Minsk: Belorussian State University, 2005. p.104.
7. Grizzle, A. (2018). Assessing Citizens’ Responses to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ies through an Online Course: An Empirical Study and Critical Comparative Analysis of Experts’ Views. Doctoral Dissertation. ISBN: 9788449084775: <http://hdl.handle.net/10803/666860>. Tesis Doctorals en Xarxa (TDX). 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 Spain.
8. Grizzle, A. (2014). Measuring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 Singh, J., Grizzle, A., et al (2015).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er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ren, Youth and Media, NORDICOM, University of Gothenburg, Sweden.
9. Jelazny D. Speak in the Language of Diagrams: A Guide for Visual Communication for Managers / M.: Institute for Integrated Strategic Studies, 2004. p.220.
10.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n Knowledge Societies / Comp. Kuzmin E. I., Parshakova A. V. — Moscow: ICBC, 2013. — p.384.
11. N. I. Gendina. The UNESCO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for Teachers as an object for analysis and adaptation in Russia and Uzbekistan. // Media education. Media Education, 2017. No. 3. pp.27-44.
12.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n Knowledge Societies / Comp. Kuzmin E. I., Parshakova A. V. — Moscow: ICBC, 2013. — p.384.

13. N. I. Gendina. The UNESCO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for Teachers as an Object for Analysis and Adaptation in Russia and Uzbekistan. // Media education. Media Education, 2017. No. 3. pp.27–44.
14. N. I. Gendina. Formation of Information and Media Literacy in the Conditions of Knowledge Society: A New UNESCO Initiative and the Problems of Russian Information Education. // Pedagogy. Psychology. Issue #1 / 2012. pp.140-161.
15. Julie Posetti, Alice Matthews. A Short Guide to the History of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https://www.icfj.org>
16. What is Digital Aggression. MediaToolbox.ru expert Maxim Kornev, <http://sdelano.media/project/stoptrolls/>
17. Kozlovsky, B. Maximum repost: How Social Networks Make Us Believe the Fake News / Borislav Kozlovsky. — M.: Alpina Publisher.
18. Alcott, H. & Gentzcow, M. (2017).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2).
19. IQ Coaching Educational Portal. <http://www.iqcoaching.ru>
20. MILID Yearbook 2013: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and Intercultural Dialogue / Ed. Ulla Carlsson, Sherri Hope Culver, 2013. p.416.
21. Recommendations Addressed to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ESCO // Education for the Media and the Digital Age. — Vienna: UNESCO, 1999.— pp.273-274.
22. The Second European Conference on Information Literacy (ECIL) / Abstracts // Editors: S. Spiranec, S. Kurbanoglu, R. Catts, E. Gras-sian, D. Mizrachi, M. Banek Zorica. — Zagreb, 2014. — p.239.
23. Cyber Leninka: <https://cyberleninka.ru/article/n/sovremennyye-tendentsii-razvitiya-mediai-informatsionnoy-gramotnosti-v-mire>
24. Online service <http://checklists.expert>
25. <https://www.poynter.org/channels/fact-checking>
26. UNESCO (2018) World Trends in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Development, Global Report 2017/2018. UNESCO (Paris).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1065>. Accessed on 22 July 2019.
27. White, A. (2008). To Tell You the Truth. The Ethical Journalism Initiative. Brussels, Belgiu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 부록

유용한 MIL 관련 자료 중 일부를 해설과 함께 제공한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개념, 정의, 통합적 접근 방식, 핵심 관계자, 도구와 자료는?

**유네스코 자료** (모든 자료는 유네스코 웹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 1. 간행물

교사를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for Teachers)**

교사는 리터러시를 갖춘 사회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그러므로 이 교사용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과정 모델은 모든 다양한 배경의 교육자에게 MIL에 관련된 주요 역량(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사들이 MIL을 학교 수업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교육학적 접근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122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 및 전략 지침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Policy and Strategy Guidelines)**

종합적인 MIL 정책과 전략을 안내하는 지침서로, MIL을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결합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표현 자유의 권리,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정보 접근까지 고려했으며, 관련 자료 중 최초의 자료다. 이 안내서는 균형을 이룬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모든 관련 행위자에게 과정과 콘텐츠를 모두 기술하는 좀 더 지속적인 전국 단위 MIL 정책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 및 MIL 향상에 관한 방송사 지침

**(Guidelines for Broadcasters on Promoting User-Generated Content and MIL)**

전 세계 방송사가 수용자를 도와 더 질 좋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생산하고,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관련 분야 최초의 지침서다. 새로운 지침들은 대중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디어 종사자를 위한 시민 교육: 훈련 교본

**(Civic Education for Media Professionals: a Training Manual)**

일련의 저널리즘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 미디어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코자 하는 목적에서 유네스코가 발간한 훈련 교본이다. 이 교본은 미디어 기능과 적극적인 시민 관계에 관한 지식도 제공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민주주의, 발전, 미디어 저변에 깔린 관계 등에 초점을 둔다.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인권 강화, 급진화와 극단주의 대응

###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Reinforcing Human Rights, Countering Radicalisation and Extremism)

이 책은 세계 전역에서 도출된 MIL에 관한 풍부한 접근 방식을 소개한다. 공동체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증오 발언과 선동, 급진화와 극단주의, 인권과 성평등, 미디어 속의 종교 간/문화 간 담론 등의 내용이 섹션별로 묶여 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년 MILID 연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 도구로서 MIL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연감은 MIL에 관한 연구 결과, 이론, 실천 경험, 주제별 진행 상황 등에 의존하고 있다.

## 디지털 세계의 글로벌 시민성

### (Global Citizenship in a Digital World)

2014년 MILID 연감. 전 세계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시각에서 글로벌 시민성이라는 주제를 다룬 리뷰 논문을 모아 실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자와 실천가들의 다양한 생각을 반영하며, 과감한 새 전략을 제안하고, 연구 결과와 우수 사례, 단상과 성찰 등을 공유하고 있다.

123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문화 간 대화

###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and Intercultural Dialogue)

이 연감의 구체적 목적 중 하나는 시민 참여,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고, MIL에 관한 문화 간, 협력 연구를 제고하는 가운데 MIL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전망대 구실을 하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MIL과 문화 간 대화와 관련된 글로벌 차원의 조치를 촉진하는 데도 목적을 둔다. 이 2013년 연감의 공동 편집자는 셰리 호프 컬버(Sherri Hope Culver), 울라 칼손(Ulla Carlsson), 카타리나 부흐트(Catharina Bucht)와 마리아 에드스트림(Maria Edström)이다.

##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 (Opportunities for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이 책은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진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작업의 진척 상황에 관한 기존 문헌의 공백을 메워준다.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흥미가 있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젊은 시민의 활발한 미디어 참여가 최근 세계 전역에서 뉴스 보도의 주목을 받았고, MIL 역량에 대한 각성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 유네스코 글로벌 MIL 평가 틀

### (UNESCO Global MIL Assessment Framework)

유네스코 글로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평가 틀은 국가별 준비도와 역량 평가, 특히 국가 수준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관련 서비스와 훈련에 종사하는 교사 대상의 평가에 필요한 방법론적 안내와 실질적인 도구를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제공한다.

## 정보 리터러시의 이해 입문

### (Understanding Information Literacy: a Primer)

이 발간물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공공 정책 수립자, 고위층 비즈니스맨, 시민 사회 행정가와 현장 종사자를 위해 설계됐으며, ‘정보 리터러시’의 의미를 쉽고, 기술적 용어 없이 설명해주는 개관서다.

### 교사·학생·부모·전문가를 위한 미디어교육 도구

#### (Media Education: a Kit for Teachers, Students, Parents and Professionals)

이 훈련 도구는 전통적 미디어, 뉴 미디어를 아우르며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교하고 종합적인 개관을 제공한다. 이 자료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생활에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 젊은층의 미디어 접근을 장려하면서도 특히 미디어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지속 가능 발전의 시각에서 지식 사회가 직면한 일부 도전들, 특히 디지털 지식 격차 문제를 제기한다.

### 세계 미디어교육 정책 지도: 비전, 프로그램 및 도전 과제

#### (Mapping Media Education Policies in the World: Visions, Programmes and Challenges)

유네스코, 국제연합 문명 간 동맹(the UN Alliance of Civilisations), 유럽집행위원회, 그루포 코무니카르(Grupo Comunicar) 등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 간행물은 미디어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육 종사자, 연구자, 정책 결정권자들의 핵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 2. 온라인 멀티미디어 MIL 강의 자료 도구

이 웹 사이트는 교육자, 연구자, 개인에게 국제적인 멀티미디어, 다언어 MIL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정규, 비정규 교육 환경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쌍방향적인 문화 간 교육 자료를 포함한다. 이용자는 원하는 대로 자료를 공유, 검색, 이용하고 다시 업로드할 수도 있다. 자료는 표준 MIL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9가지 언어로 제공된다.

<http://unesco.mil-for-teachers.unaoc.org/>

## 3. 온라인 MIL과 문화 간 대화 강좌

인터넷에서 프라이버시와 안전 간의 선택,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정보, 미디어, 기술의 윤리적 이용 간의 선택에 직면해, 여성과 남성, 젊은 소녀와 소년들에게는 새로운 유형의 역량이 필요하며, MIL은 이 역량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두를 위한 교육에는 모두를 위한 MIL이 포함되어야 한다.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media-development/media-literacy/online-mil-and-intercultural-dialogue-courses/>

## 4. MIL 클릭스(MIL CLICKS)

MIL 클릭스는 사람들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용 속에서 MIL을 습득케 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브라우징, 놀이, 연결, 공유, 사교의 분위기 속에서 동료 간 교육에 관여하게 된다.

민간 사업자를 포함해 미디어와 기타 정보 공급자들도 MIL을 대중적이고 관여도 높은 시민 교육 운동으로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디어와 기타 정보 공급자의 자유, 독립성, 다원성은 보호해야 하지만, 이들과 시민 사회 집단 간에는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의 기회가 열려 있다.

<https://www.facebook.com/MILCLICKS/posts/>

## 5.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보 센터(Media & Information Literacy Clearinghouse)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보 센터는 MIL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전 세계에 다언어로 보급, 지원해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곳의 자료를 교육자에게 제공해 그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 환경 속에 MIL 관련 주제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

<https://milunesco.unaoc.org/welcome/>

## 6. 관련 네트워크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문화 간 대화 대학 협의회

(MIL and Intercultural Dialogue University Network)

유네스코와 유엔문명연대(UNAOC)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갖춘 사회 조성이라는 확고한 사명을 갖고, 국제적인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문화 간 대화 대학 협의회(UNESCO/UNAOC-MILID)를 최초로 출범시켰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글로벌 협의회

(Global Alliance for Partnerships on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GAPMIL)<sup>1)</sup>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글로벌 협의회는 모든 시민이 미디어·정보 역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제 협력을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80개 이상 국가의 조직들이 뜻을 모았다. 본 협의회는 2013년 6월 23일~26일에 진행된 MIL을 위한 글로벌동반자포럼 행사 기간에 출범했다.

---

1) [역주] GAPMIL은 2020년 10월 이후 '유네스코 MIL 연합'(UNESCO MIL Alliance)으로 변경되었다.  
<https://en.unesco.org/themes/media-and-information-literacy/gapmil>

## 글로벌 파트너의 자료 (더 많은 자료는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것)

### 국제도서관협회연맹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은 도서관, 정보 서비스와 이용자의 관심사를 대표하는 선도적인 국제기구로, 전 세계 도서관과 정보 업무 종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https://www.ifla.org/>

### 유럽청소년정보자문기구

(The European Youth Information and Counselling Agency, ERYICA)

유럽청소년정보자문기구는 유럽의 국가별, 지역별 청년 정보 조율 기구와 네트워크로 구성된 독립 조직이다. 젊은이의 정보 작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유럽 내, 그리고 국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젊은이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유럽청소년정보헌장(European Youth Information Charter)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수준 높은 보편적 청소년 정보 정책과 실천을 개발, 지원, 촉진한다.

여기서 발간한 《우수사례 모음집(Good Practice Booklet)》은 새로운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를 학습, 장려, 생성, 개발하기 위해 이 네트워크에서 나온 성공 사례를 모은 것이다.

<https://www.eryica.org/tools-resources>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9ab1130ff7c50083fc9736c/t/5bd9654ccd83666261ba9e53/1540973907525/Sheryica\\_2018\\_online+%281%29.pdf](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9ab1130ff7c50083fc9736c/t/5bd9654ccd83666261ba9e53/1540973907525/Sheryica_2018_online+%281%29.pdf)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센터(The Center for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https://centermil.org/resources/>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https://www.coe.int/en/web/portal>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commission/index\\_en](https://ec.europa.eu/commission/index_en)

### 제이 스무스(Jay Smooth)의 미디어 리터러시 단기 속성 강좌 시리즈(Crash Course)

1. 미디어 리터러시 속성 강좌 소개
2.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소개: 속성 강좌 #1
3.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사 제1부: 속성 강좌 #2
4.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사 제2부: 속성 강좌 #3
5. 미디어와 정신: 속성 강좌 #4
6. 미디어와 돈: 속성 강좌 #5
7. 영향력과 설득: 속성 강좌 #6
8. 온라인 광고: 속성 강좌 #7
9. 미디어의 소유 구조: 속성 강좌 #8
10. 미디어 정책과 우리: 속성 강좌 #9

<https://www.youtube.com/watch?v=sPwJ0obJya0&list=PL8dPuuaLjXtM6jSpzb5gMNsx9kdmqBfmY>

### 미디어 주도의 MIL 증진 사례

1. ‘7년 동안의 7가지 이야기’: <알자지라>, 요르단의 자타리 난민촌에서 가상현실 워크숍을 운영하다.  
7 stories for 7 years: Al Jazeera ran virtual reality workshops in Jordan’s Za’atari refugee camp  
<https://www.journalism.co.uk/video/telling-their-own-stories-al-jazeera-s-virtual-realityworkshops-in-jordan/s400/a719878/>
2. ‘그냥 수용자가 아니라 공동체다’: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인스타그램으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는가.  
‘It’s not just an audience, it’s a community’: How The Economist is engaging with young people on Instagram, <https://www.journalism.co.uk/news/-it-s-not-just-an-audienceit-s-a-community-how-the-economist-is-engage-with-young-people-on-instagram/s2/a725173/>
3. <텔레그래프>는 어떻게 스냅챗의 디스커버에 올린 뉴스 기사로 10대에게 파고들었는가.  
How The Telegraph is reaching teenagers with news stories on Snapchat Discover, <https://www.journalism.co.uk/news/how-the-telegraph-is-reaching-teenagers-with-news-stories-on-snapchat-discover/s2/a724198/>
4. (모바일 저널리즘 네트워크인) <HoS>가 스냅챗 렌즈를 활용해 시민을 좀 더 효과적인 스토리텔러로 바꿔놓고 있다.  
Hashtag Our Stories is using Snapchat lenses to turn citizens into more effective storytellers  
<https://www.journalism.co.uk/news/hashtag-our-storiesis-using-snapchat-lenses-to-turn-citizens-into-more-effective-storytellers/s2/a733370/>
5. 언론인과 학교가 협력하여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다.  
Journalists and schools work together to teach media literacy, <https://en.ejo.ch/ethics-quality/journalists-schools-work-together-teach-media-literacy>
6. <BBC>는 쌍방향 게임을 활용해 허위정보 생태계에 대한 젊은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With an interactive game, the BBC is helping young people better understand the disinformation ecosystem, <https://www.journalism.co.uk/news/with-an-interactive-gamethe-bbc-is-helping-young-people-better-understand-the-disinformation-ecosystem-/s2/a721168/>
7. 윤리적 스토리텔링: 저널리즘과 미디어 리터러시  
Ethical storytelling: Journalism and media literacy, <https://ethicaljournalismnetwork.org/ethical-storytelling-journalism-media-literacy>



## 저널리즘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 언론인과 저널리즘 교육자를 위한 핸드북

(한국어판)

발간일 2021년 12월 20일

펴낸곳 한국언론진흥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한국언론진흥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저자 노지마 무라토바, 알톤 그리즐, 딜푸자 미르자흐메도바

감수 강인경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편집 송은아

옮긴이 임영호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대너 보이드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 윤리》 한국언론진흥재단, 닉 레이시 《내러티브와 장르》 산지니, 스투어트 홀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컬처룩, 스투어트 홀 《대처리즘의 문화 정치》 한나래 등 다수의 해외 전문 서적을 번역했다.

ISBN 979-11-90615-29-7



이 출판물은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Attribution Share 3.0 IGO (CC-BY-SA 3.0IGO) 라이선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igo/>)가 적용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활용시에는 유네스코 오픈 액세스 저장소(<http://www.unesco.org/open-access/terms-ues-ccbysa-en>)의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한국어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와 교육부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